THE TITLE OF THESIS

A STUDY OF SHEPHERDING LEADERSHIP

(A REFLECTION ON THE 30 YEARS MINISTRY OF YALE CHURCH)

A THESIS-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AND ADMINISTRATION OF: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HWAN CHUN

DATE: MAY 2016

이 논문을 부족한 종을 소명하시고 동행하신 주님과

그리고 나의 가족과 예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바칩니다.

목차

ACKNOWLEDGEMENTS

본 소고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일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신뢰와 섬김의 열매이며 지도 교수이신 Dr. David A. CURRIE 와 Dr. Suk Ho Moon과 Dr. Matthew Kim. 교수의 지도와 총장 DENNIS P. HOLLINGER와 대학원장 Dr. Timothy Laniak의 후원과 나의 친구 Dr. Neely Guston과 John Kim의 사랑과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의 여러 교수님들의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나의 모친 故 모양례 권사님의 기도와 아내와 자녀들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동역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자료 모음과 설문조사, 기록 정리, 교정 기타 많은 수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나의 동역자 강성구 목사를 비롯하여 본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역사 정리에 함께 참여해준 이영옥 집사께 감사하며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완성할 수 있는 결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천 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discovering of biblical leadership as a guide to shepherd leadership for the church revival in the 21st century. In doing so, I would like to focus on two research surveys conducted through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Yale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In-Cheon City, South Korea. In the last thirty years of church history and ministry, Yale church has shown such an outstanding progress in shepherding leadership both through its strong, productive discipleship activities amongst church members and cultivating a great turning point of denominational solidarity.

This study includes two surveys on how to prepare the biblical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The first survey focuses on the twelve areas of a Korean pastor's church ministry and tried to highlight the important issues and problems among Reformed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A two-pag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bout two hundred pastors who are members of Korea's Presbyterian church.

The second survey focuses on the ministry of the current Senior Pastor at In-Cheon Yale Presbyterian Church. This will be an evaluation of the last thirty years of pastoral efforts in an exemplary local church. A questionnaire regarding the topic was distributed to five hundred church members of In-Cheon Yale church in May 2015.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성장정체와 퇴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합당한 교회의 리더십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살려낼 가장 중요한 대안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천신학 분야에서 목회학, 설교학, 교회성장학, 교회행정학 등이 세분화 되면서 학문적으로 기독교 목회와 교회의 사역에서 리더십에 주목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부터였다. 주로 세속적인 단체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연구들에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목회지도자들에게 적용하는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다. 일반학문에서는 경영학과 조직관리학에서 리더의 기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었고, 생활환경이나 조직체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되어 왔었다. 경영과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혜안을 제시해온 피터 드러커는 조직체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경영학적인 중요자원

임을 역설하여 왔다. 기독교적으로 이런 리더십 이론을 채용한 존 맥스웰은 모든 성공의 열쇠가 리더십이라고 진단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조직이 유기적 일치를 도모하면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 지도력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급속히 변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와 핵가족화 된 사회의 재편으로 인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개발되어야만 한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현대 목회 리더십에서 가장 성경적 리더십을 재발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 연구에 해당한다. 인천 예일교회라는 지역교회의 목회활동 전반에서 어떻게 목양적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다양한 리더십에 관한 문헌적 연구를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의 핵심과제는 가장 성경적인 목회 지도력으로서 목양적 리더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예일교회 30년 역사 속에서 적용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양적 리더십의 기본적인 개념은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으로 모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래니악 박사가 유목생활을 하는 베드윈 부족들 속에서 목축업자들 가운데서 가장 성경적 리더십이 담겨있음을 재발견하였다.[1]

---

[1] Timothy S. Laniak, *While Shepherds Watch Their Flocks: Rediscovering Biblical Leadership*

세계 교회는 급속히 변모하고 있고, 서양의 교회는 완전히 몰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어떻게 교회가 다시금 소생하는가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한데, 가장 성경적인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토양과 문화를 간파하여 다시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목양적 리더십이다.

이 논문은 목양적 리더십의 성경적 기초와 목축업의 면모들을 기초로 하여, 한국 교회에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총회에 속한 인천 예일교회에서 30년 동안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온 목양적 지도력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목양적 리더십이 구현된 여러 내용들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여 봄으로써, 장차 한국교회 목회가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할 모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모든 목회자는 성경적으로 목양적인 사역자가 되어야만 하며, 예수님의 목양사역과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정립한 목양적인 활동을 본받아만 한다. 또한 한국교회 내에서 21세기 목양적인 지도력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총회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난 바와 예일교회를 이끌어 나온 30년간의 지도력을 통해서 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 21세기 한국교회에 필요한 역할을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들에게 목양적 리

(Matthews: Shepherd Leader Publications, 2007); 김재성 역, 「양을 돌보는 참목자」 (용인: 킹덤북스, 2013), 112.

더십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논문은 목양적 리더십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직면한 위기를 대처하게 하려는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사회 문화적인 지도력이 그 어느 종교보다 큰 힘을 발휘하여 왔는데, 200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 논문은 바로 가장 시급한 한국목회 현장의 문제점들을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목양적 리더십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필요성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목회 환경이 날이 갈수록 척박한 실정에서, 기독교가 비호감의 종교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목회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하고, 마음에 깊이 사

랑을 느끼게 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변화시키는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예일교회 30년 동안에 발휘되고 열매를 맺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목회리더십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대처하는 목양적 리더십의 여러 요소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목양적 리더십이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현대한국교회에서는 목회적인 방법론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어오고 있지만, 전통교회를 벗어나서 주로 목장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교회가 주로 당회를 중심으로 권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탈피하려는 시도이지만, 침례교회가 지향해온 회중교회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정치구조를 가진 장로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충돌을 빚고 있다.[2]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교회가 성경적 목회방침을 갖추게 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목양적 리더십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와 목양적 보살핌을 동시에 존중하려는 건강한 교회론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환란과 핍박의 시대를 넘어서서 번영과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에

---

[2] 최영기,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가정교회를 진단한다" 「목회와 신학」 2007년 11월호 참고.

서는 진리와 정의가 변질되어버리고 말았다. 한국 선교역사 130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패한 인생들이 순종하며 경청해야만 하는 기본 원리가 사라져 버리고,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경쟁논리만이 팽배해 있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적 풍토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상업적인 성공이나 물량적인 팽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진리만이 참된 보화이며 지혜임을 목양적 리더십을 통해서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드러내야만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고전적인 교회론에 입각한 목회지도력으로는 추락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리더십을 구현하여야만 한다.

지난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한국교회에는 목회적인 리더십이 크게 변화를 겪어왔다. 지금 직면한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목양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 동란이 발발한 이후에 한동안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신비적인 경험을 강조한 분들의 영향력이 크게 알려졌고, 호소력을 가진 때가 있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기에 발맞추어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서 발휘되었다.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산업화 시대에 대형교회들의 등장은 목회적 가치관에 혼란을 빚어냈었다. 한 초대형 교회로부터 성경적 신학은 배울 것이 없지만, 목회방법론은 배워야 한다는 흐름이 퍼져나간 적도 있었다. 바로

한국교회의 치명적이 위기가 도래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한국교회는 혼돈과 각종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교회에서 권위주의 목회자들이 하향식으로 목회하던 시대는 민주화의 열풍이 불어온 이후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의식 있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기도 하고, 강력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영향력이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치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업주의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모든 시설을 확장하고,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사용하여 부동산 거품에 편승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젖은 개인주의적 현대인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력은 전통적으로 구성된 제도와 구조에 묶여있어서 전혀 신선한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행동 지향적이며 신비적인 공동체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기존의 교회를 선택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안모색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 직면한 가운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목양적 지도력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3]

현대 교회를 이끌어나갈 대안으로서 목양적인 리더십을 제기하려고 하는

---

[3] 문석호,"현대 기독교를 향한 과제와 의미: 신앙고백과 교리"(교육대학원 논총) 통권 7권(2006년 4월): 7-24

것은 바로 작금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극히 위험스럽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교회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곳곳에서 오래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밀려오는 비판과 도전 앞에서 이겨나가려면 근본적인 지도력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예일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걸어온 과정과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국의 정통 장로교회에 속하는 한 지역교회를 이끌어온 목회적 지도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예일교회 30년이 완전한 모형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일교회 30년간의 사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함께 돌아보면서, 한국 목회자들과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양적 지도력을 인식하게 하고자 함이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목사의 기본 자세가 철저히 목양적 리더십으로 구성되어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장로들의 리더십, 작은 부서 담당자들이나 부교역자들도 역시 모두 다 기본정신과 자세가 목양적 리더십에서 나와야만 평안과 화목이 가능해진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목양적인 환경 안에서 함께 동거하도록 지도자들의 정신과 신학, 예배에서 중점적인 내용, 목회활동 전반이 미치는 양육, 성도들의 훈련과 목표가 설정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일교회는 개척 이후 30년 동안 안정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왔는데, 그 동안 한 목회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하여 일사분란하게 목회방향이 정착되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무엇이 더욱 더 분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들은 교회 개척자들에게 지역교회의 역사에 드러나는 목양적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고 명쾌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1.3. 연구의 방법

새로운 목양적 리더십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문헌연구에 집중해서 리더십의 종류와 특징을 압축할 것이다. 목양적 리더십의 특징과 내용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면서, 다른 리더십과 대조해 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예일교회의 30년간에 걸친 역사 자료와 목회 활동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연구대상으로 사용한다. 일부는 직접 성도들의 여론과 의견을 담은 통계조

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 문헌 자료 연구의 영역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리더십과 기독교 지도력, 그리고 이 논문의 핵심을 이루는 목양적 리더십에 관련된 저술들이다. 예수님의 목회 지도력을 추정하고자 하기에, 신약성경 주석서들과 목회지도력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 논문이 한국 상황에서 목회하는 분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든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목회적 지도력 혹은 목양적 지도력을 본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성경적 탐구로 시작한다. 예수님은 세례 직후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였고, 전체 사역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홀로 한적한 곳에 독립적으로 은둔하거나, 숨어서 비밀 교지를 내리던 분이 아니었다.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대 사역을 사람들 가운데서 진행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혼구원 사역은 당시 성전중심으로 율법준수를 주장해오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랐다.

예수님의 목양적 지도력은 세상 지혜와 권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써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으며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확장시켰다. 압박을 받고 있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변화와 교훈의 명령자이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저 훈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증거하라고 훈련을 시켰다. 이러한 증거와 전도와 양육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목양사역에서 핵심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목양적인 리더십을 배우고 터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모두 열두 명을 지도적인 사도들로 훈련시켰다. 이것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로 번성해 내려온 유대 역사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이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목회지도력이 예일교회 3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목회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중요성에 해당한다.

2) 설문조사 1.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집약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응한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예

수교 장로회 고려파 교회 목회자들에게 목양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질문하여 목회적 지도력을 탐구하였다.

목회지도력을 12개 영역으로 다루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목회자의 신학사상 형성과 목회철학을 입증하는 것들이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유산과 전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설교에 강조되면서 사용된 개념들을 검토할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에 한국으로 소개된 정통개혁주의 신학사상에서 영향을 입은 부분들이 어떻게 설교와 목회활동을 통해서 반영되었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예일교회 설교자에게 영향을 끼친 한국에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과 형성, 한국 장로교회와 고려신학교의 신학적인 특징들을 연구할 것이다.

3) 설문조사 2. 예일교회 30년간의 사역을 평가하고 목양적 분야에 대한 열매들을 종합하는 통계를 작성하고자 한다. 예일교회 각종 중심적인 절기행사와 목회 프로그램, 교제와 친교를 위한 행사들을 교회 요람과 역사자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양적인 지도력을 파악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형성과 봉사생활의 참여도를 연구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예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300여명에게 교회 생활에 관련된 질문과 훈련에 관한 것, 영적인 성장과 전도에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묻는 방법을 채택하

였다. 이 자료조사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 동안 예일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헌신도와 활동을 측정하여 제시하여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4) 문헌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일교회의 30년 주보에 나타난 예배와 설교본문 및 제목 등이다. 이 부분은 목회지도력의 핵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강단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설교본문과 제목을 검토하여보면, 지난 30년 동안 정통 개혁주의 설교에 치중했음이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서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자극과 생명양식이 공급된 것이다. 따라서, 주보에 드러나는 설교사역의 핵심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목양적 리더십에는 증거와 선교가 분리될 수 없다. 예일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지도역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들을 검토할 것이다. 예일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모든 활동상황과 정황들, 본 교회가 후원해 온 선교사들의 성취와 기도제목들, 각 그룹이 참여해오면서 기도하여온 제목들이 검토될 것이다.

또한 장로교단에 속한 예일교회의 역사와 노회, 및 고려신학교의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일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교회의 일치와 연합활동을 제시할 것이다.

1.4.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크게 일곱 가지 부분들로 나뉘어서 목양적 리더십을 성경적으로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검증하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부분에서는 목회리더십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문헌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충실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에, 목회지도력을 연구한 최근 두 가지 이론을 검증해 볼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새로운 목회적 성취를 향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양적 리더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다.

둘째 부분에서 목양 리더십에 대한 문헌적 연구와 일반적 고찰이다. 예수님의 목양 지도력에 대한 성경적인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21세기 기독교 교회의 총체적 위기와 쇠퇴에 직면하고 있는 서구 교회론에 대한 반성이자, 목회학의 대안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셋째 부분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준 목양적 리더십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양적 리더십은

예수님이 드러낸 새로운 천국복음의 가르침과 증거사역에서 발견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고 증언했다. 물론 예수님은 틀에 박힌 자들처럼 억지로 율법의 조항들을 붙잡고 강요하지 않고, 가장 알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주셨고, 새롭게 해석하였고, 기록된 대로 성경을 가르쳤다.

넷째 부분에서는 예일교회를 비롯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속한 한국 장로교회의 한 축을 형성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측 총회와 노회의 신앙적 전통과 특징을 다루고자 한다. 예일교회 담임목사는 교단에서 주도적으로 각종 연합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려측 총회에서 담임목사가 2회기 연속 총회장으로 사역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오고 있다.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측 총회 총회장으로서 교단의 전체 방향과 역량 결집을 위해서 하나됨을 도모하여 왔고, 총회에서 경영하는 신학원 운영을 위해서 중추적인 기여와 헌신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 째 부분은 목양적인 지도력이 어떻게 담겨있는가에 대해서 실증적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예수님의 목양적 리더십에서 발휘된 내용들을 현대 한국 목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적용했는지를 설문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회리더십의 지도력은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목회자의 신학적인 지도력이 강단을 중심하는 말씀증거와 각양 목회사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중되었는가를 반성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권세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훈을 주셨다. 한국교회는 담임목회자의 목회신학과 목회철학이 중요한 지도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바, 중요한 목회적 신학사상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볼 것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집약된 가르침의 근본적인 정신으로 삼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여섯 째 부분은 실증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예일교회의 목회적 지도력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하며 요약하고자 한다. 목양적 리더십이 어떻게 강단에서 발휘되었으며, 구체적인 목회현장에 담겨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일교회의 담임목사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국교회 신앙유산을 계승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진들의 순교정신을 받들어 오면서 주일성수와 선교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현하고 있다.

예일교회 30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목양적 리더십에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활동이 크게 강조되어 왔음을 제시할 것이다. 예수님의 목회적 지도력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제자들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예일교회 30년은 세계 선교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명령수행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각 소그룹별로 기도후원과 물질 후원, 그리고 단기선교에의 참여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예일교회 30년 동안에 전개된 목양적 지도력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예일교회는 목회전반의 행정, 제자훈련, 양육, 기도, 성도간의 교제와 교육, 전도 등에 해당하는 갖가지 훈련프로그램과 특별행사를 전개하여 오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형성과 제자됨을 도모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예일교회 30년 동안 단순히 하나의 지역교회 차원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내다보면서 교회 일치와 협력사역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여 오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예일교회의 30년은 전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선한 협력과 공동체 실현을 충분히 인식하고 협력하는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 논문은 예일교회 목회 현장에 대한 분석과 자랑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동시에 부족한 부분들도 과감하게 공감하면서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는 다소 부

정적인 면모들도 담겨있지만, 결코 포장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다. 목회지도력에서 부족한 면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경청하고자 하는 것이요, 더욱 더 발전을 향하여 노력하고 개선하고자 시금석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제 2 장 목양적 리더십의 일반적 고찰

이 논문은 목양적 리더십이 가장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재발견한 것과 이를 한국장로교회 목회현장에 대입하여 봄으로써, 이미 구체화된 내용들과 부족한 면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제 2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현대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목양적 리더십과 이전의 목회 리더십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연구해온 일반 학문의 성과와 특징적인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요약하여 제시면서, 이를 활용하여 기독교 목회에 적용된 주요 내용을 개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목회지도력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장에서 새로운 대안이자 성경적 리더십으로서 목양적 리더십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목회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지도자를 세우시고, 훈련하여 세상에 내 보내셨다. 이 논문에서 현대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목양적 리더십이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모습들과 가르침들이다. 목양적 리더십의 여러 특징들이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다른 목회리더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그 동안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비교하면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최근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목회에 접목되어서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교회론과 목회학의 분야에 연계된 목회리더십은 새롭게 제시되는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서 여러 상황에 적합한 이론들이 계속하여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종교다원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지도력은 완전히 위기에 직면해 있음이 한국교회에 관련된 모든 통계수치들에 나타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때에, 21세기에도 가장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목양적 리더십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목양적인 지도력을 본받아서 변화된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 동안 서구 유럽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오던 기독교 왕국시대의 흔적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2015년 1월 3일자, 미국 Wall Street Journal에 실린 기사는 충격적이다. 거대한 건물을 자랑하던 유럽의 텅 빈 교회가 유지와 보수하는 비용이 조달되지 못하여서 세속적인 기업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1] 한국교회는 1990년대부터 해마다 급속하게

---

[1] "Europe's Empty Churches Go on Sale," *Th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3, 2015.

양적인 퇴조현상을 드러내고 있다.[2] 1910년에 약 20만 명이었던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가 1960년대에 110만 명, 1970년대에 230만 명, 1980년대에 700만 명으로 급성장하였으나, 1987년을 기점으로 1,000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올림픽 이후로 급속하게 기울기 시작하였다.[3] 이런 교회들을 지금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의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교회의 퇴조 현상을 이겨내는 대안모색은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도력의 회복과 강화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목회자의 변화와 각성을 촉구하고 있고,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역시 목회자들이 지도자로서 인격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발생하는 것들이라 지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추된 목회자의 지도력이 회복되어야만 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였고, 분열하는 등 목회자들이 척박한 토양에서 험한 길을 걸어왔다.[4] 한

---

[2] 정일웅,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본 원인과 대안," 「목회와 신학」 2007년 2월호, 134. 숭실대학교 출판부, 「한국교회 성장 둔화분석과 대책」 한국기독교문화 연구소 편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2), 4.

[3] 박기윤, "교육목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2.

[4] 김양선, "신사참배 강요와 박해," 김승태 편, 「한국 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서울: 한국기독교 역

국 동란 직후에 다시 일어서는 조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곳곳에 개척교회를 세워 기독교의 복음을 널리 알렸다. 가난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강력한 힘으로 교회의 성장을 주도하여 왔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어야 하는 부분도 역시 목회자들에게 달려있다.[5]

현대교회의 목양사역은 성경적인 예수님의 지도력을 근본적으로 따라가야만 한다. 그 동안 세계교회를 지배해 온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 대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목양적 리더십보다는 제도와 거대한 조직의 영향력을 발휘했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1. 서구 교회의 목회지도력에 대한 반성

먼저 대표적인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목양적 리더십의 특징과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목회리더십은 크게 몇 가지

사연구소, 1991), 41.

[5] 이한수, "한국교회의 성장정체와 그 윤리적 대안,"「신학지남」256호 (1998): 82. 홍영기,「한국의 교회 개척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3), 21-25.

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대비하는 목양적 리더십을 발견하기 위한 역사적 탐구이자, 기존 서구교회의 리더십 모델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호주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최근 서구 문화에서 드러난 목회 리더십과 교회론에 세 가지 시대적 큰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6] 그러나 지난 2천 년간의 교회사 속에서 목회리더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측면이 많이 간과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천 년 간의 교회를 돌아보되 목회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교회론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시에 다섯 가지 시대적 특성으로 목회리더십을 구별해 보고, 목양적 리더십의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목회신학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현대 한국교회의 목회리더십 형성을 위해서 지나간 교회역사를 목양적 리더십의 측면에서 반성해 보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전체를 점검해보는 의미가 크다.

첫째, 사도 시대와 초대교회의 지도력 (주후 30-313년)

목회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은 처음 1 세기가 경과하는 과정에서 유대교와

[6]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Peabody: Hendrickson, 2003); 지성근 역,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한국IVP, 2009), 28.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성전과 회당 제도, 다양한 유대주의 전승을 고수하던 유대교와는 달리, 양떼들을 돌아보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이다 (요 10:11, 14).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된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것이다. 처음 3백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로 퍼졌고, 교회 모임이 성장해 나갔다.

초대 교회의 리더십은 다섯 종류의 사역자들 (엡 4:11,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을 중심으로 발휘되었다. 이들은 헌신적인 희생과 겸손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남겼다. 교회의 역할은 말씀을 선포하고 (예 행 10:34-43, 13:16-41),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감싸 안는 포용적인 공동체의 건설이었고 (행 6:1-7, 11:27-30), 사도바울은 아덴에서는 변증적이었지만 대체로 이방인들을 건져내는 일에 힘을 쏟았다 (행 17:22-34).[7] 그들의 모든 권세와 지위는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설립하고 지키는 데 사용되었다. 조용하게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와 농촌으로 퍼져나가서 정착되었는데, 영적인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이들은

---

[7] David Wenham & Steve Walton, *The Gospels and Acts* (London: The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2001); 박대영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2013), 498.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은 거룩한 의식이나 예배만을 위해서 따로 봉헌된 종교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다.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나 위용을 자랑할 만한 구심점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지하에 숨어서 은밀하게 생존하면서 박해를 견뎌냈다. 초대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직분자들의 리더십은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민감하였으며 영적인 면에서조차 분권적이었고, 성찬은 거룩한 공동체 식사로 경축되었다.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난 후, 기독교는 비로소 어둠과 박해의 사슬에서 풀려 나왔고 기독교와 교회의 교훈과 가르침은 즉각 세속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교회의 리더십은 삼위일체 신앙고백서 작성을 근간으로 하여 정통신앙을 견고하고 세웠다.

둘째, 니케야 신경과 삼위일체 신앙의 정통화 시대 (325년에서 9세기까지)

기독교 교회가 발휘하는 목양적 리더십이 일반 사회에서 발휘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왕궁이나 지배계층과 교류하는 등, 국가 지도층의 지위로 격상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이다. 동시에 목회적 지도력은 정통 신학과 교리적 통일성을 기초로 하게 되었다. 단순히 성도 공동체의 양육이나

보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 일선의 지도자들은 국가적 대사에 간여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로 격상되었다.

콘스탄틴 대왕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 오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예배의 자유를 주었고 기독교를 편애하였으며, 로마 제국 내에서 다른 종교들을 훼손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는 제후가 신봉하는 종교로서 귀족들과 지배계급이 복종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속지로 귀속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8]

주후 325년에 소집된 니케야 종교회의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리우스주의를 물리치는 결정을 내리고,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립함으로써, 신학적 기준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교회의 리더십은 제도적으로 안수를 받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전문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감독이나 주교가 목사-교사로서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다. 거대한 대형 석조 건물이 교회 개념과 교회의 권위를 체험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목회 리더십이란 교회 내외적으로 상하 계급구조로 되어진 제도적이고 계층적인 개념이 되었다.

또 다시 제 2차 회의가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소집되어서 니케야

---

[8] Peter Brown, *The Rise of Western Christendom: Triumph and Diversity 200-1000 AD.* (Chichester: John Wiley & Sons, 2003, revised 2013), 17, 54.

종교 회의 결정을 재확립시켰다. 갑바도기아 교부들과 함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밀라노의 암브로스 감독의 생애를 살펴보면 집중 기도와 금식,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 검소한 의식주 생활, 전 재산의 기증, 후학도들의 교육, 각 나라에서 오는 신자들에 대한 영접, 교부들의 저서 탐독 특히 요세푸스, 필로, 오리겐, 바실, 디디무스, 아타나시우스의 책들을 읽었다.[9] 암브로스는 당대 로마 황제들과 귀족들과 세속 정치가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탁월한 목회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콘스탄틴 대왕 이후로 기독교 제국시대에 형성된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신약교회와 신앙공동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외형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가미된 형태로 황제 종교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표준화된 형식과 신조를 세웠다.[10] 거룩한 전용건물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진정한 선교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건물과 교회가 혼돈을 일으켜서 모임을 유지하는 쪽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말았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더욱 정적인 공동체로 되어갔고, 그 결과 항상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이 되고 말았다.

플라톤적인 이원론은 엄청나게 퍼져나가서, 세상은 두 경쟁적인 영역, 즉

---

[9] Ambrose, *The Fathers of the Church*, tr. Roy J. Deferrari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3), ix-x.

[10] Marcellino D'Ambrosio, *When the Church Was Young: Voices of the Early Church Fathers* (Cincinnati: Franciscan Media, 2014), 4.

거룩한 영적 영역과 세속적인 물질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세계관에 젖어 들었다.[11] 이런 세계관에서는 영적인 것은 높은 곳에 있고, 물질세계는 의미가 없다. 영적인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심화시켰고, 교회와 세상사이의 간격을 벌어지게 하였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의 가치를 차별화시켰다.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습관은 세속적인 일이나 예술이나 식사를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다른 것으로 규정되었다.

셋째,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귀족적 성직주의 (10세기에서 15세기)

목회 리더십과 정치적이 영향력이 함께 결합된 시대는 중세 기독교 왕국에서 잘 드러났다. 유럽은 중세기를 거치면서 사회와 국가제도의 상층부에 자리한 기독교 교회의 제국시대가 되었고, 최고위층과 같이 국가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고 직업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 받은 성직자 계급이 출현하였다. 직업적인 성직자는 교단적 자격증을 갖추는데 힘썼고, 평신도와의 계급적 차별로 정당화되었다.

세계 문명사에서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데, 이 시대를 기독교의 제국시대 (Christendom) 라고 부른다. 이는 로

---

[11] Will Durant, *Story of Philosophy: The Lives and Opinions of the World's Greatest Philosophers* (New York: Simon & Schuster, Retrieved 2013), 40-48.

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종교적 문화로 지배하던 시대임을 지칭하는 말이다.[12]

로마 교황청의 교황 수위권에 대한 강조가 상하구조의 목회 지도력을 형성하였다.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모든 결정과 주도권은 철저하게 성례를 집례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다. 12세기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와 연옥 교리를 새로 추가하여,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지혜로운 불로 정화하는 장소라고 선포하였다.[13]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7가지 각종 성례를 제도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정착시켰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의 모든 서구 유럽 도시의 중앙에 세워졌고, 모든 귀족들 사이에서도 고위 성직자들이 혈연관계로 연결되어서 정치적 결정과 사회와 문화를 선도하여 나갔다. 사제만이 올리는 중보 기도는 신비적인 관대함을 가져오는 특별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홍보되어 있었다. 또한 연옥에서 연단을 받아야 할 연수를 경감해준다는 공로를 쌓도록 계속적인 선행, 즉 면죄부 구입을 강조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목회 리더십은 신비적인 성례에서 발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도 마리아 숭배, 성자들의 유품과 유물 숭배, 절기 숭상 등 일종의 사업행위와 유사하게 변질되었다. 막대한 부동산과 재산과

---

[12] Martin Marty, *The Christian World: A Global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2008), 124-129.

[13] C. S. Wartkins, "Sin, Penance and Purgatory in Anglo-Norman realm: the Evidence of visions and ghost stories," *Past and Present* 175 (2003):3-33.

건물을 갖추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구축하였던 구교회 체제하에서 유럽 세계는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 군주들의 야망과 탐욕,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가져온 낙관적 이상론이 팽배하였다. 베네딕트 수도원을 비롯하여 경건한 금욕주의 교단들이 태동했지만, 폐쇄적인 분리주의를 지향하였으므로 결국 세상과 깊이 연계된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넷째, 종교개혁자들과 복음 선포의 지도력 (16세기-20세기)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변혁을 초래하였다. 한 사람의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와 사회가 아니라, 유럽인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면서 큰 변혁이 일어났다. 대중적 정서의 움직임과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영적 갈망이 성직자들의 타락과 중앙집권적 상하구조의 성직자 중심주의의 비효율을 능가하였다.[14] 루터, 쯔빙글리, 칼빈, 부써, 멜랑톤, 크랜머 등이 내놓은 새로운 성경적 신학 사상의 힘이 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 나라 언어로 전파되어 나가면서 단순한 일상의 삶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다.

필자는 종교개혁자들의 지도력은 신학적 리더십, 특히 오직 은혜만을 근거

---

[14] Diarmaid MacCulloch, *The Reformation: History* (New York: Penguin, 2003), 30-31.

로 제시하는 성경적인 구원론의 영향력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15]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의 구원론을 재발견하여 소개하게 되자, 로마 가톨릭에서 순종을 강요하면서 중요시해 해오던 성례주의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구교의 타락, 군주들의 탐욕, 기독교 인문주의의 낙관론에서 제시하지 못하던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확신과 성경 강해 설교를 통해서 퍼트렸던 신학적 지도력은 어거스틴의 은총론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제시된 바, 이성적인 인간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바른 판단을 얻어낼 수 있었다. 어거스틴은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에 대한 해답을 찾았었고,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이 새로운 사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에,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던 군주들은 원어 성경을 읽고 한 구절씩 풀이하여 주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물론, 목회적인 돌봄과 경건 훈련을 동시에 강조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은 신흥 상인들과 열성적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541년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법령" (Ecclesiastical Ordinance)를 시

---

[15]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6), 332.

의회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성취하였다. 도시의 위계질서와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도록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목사는 중세의 교구 사제가 감당했던 교구 관리를 맡았지만 도시 전체의 귀족에 속했던 장로는 결혼이나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집사는 구제사업과 자선 행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데 앞장서도록 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을 통해서 다시 세속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영향력에 큰 타격이 가해지고 말았다.

다섯 째,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21세기-현재)

서구 문화의 세속화는 산업화와 문명화 이후에 극단적인 인간의 자율주의와 쾌락주의 문화가 확산시키고 말았다. 기존의 모든 가치와 체계를 극단적으로 부정해 버리고, 가치체계 자체를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개별화로 대체시켜 버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현대 교회의 리더십은 완전히 비제도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개인주의와 절대적 권위를 해체하려는 개별주의 시대에는 봉헌된 교회 건물과 그에 연계된 모든 문화적 사역과 사회적 구조를 거부한다. 웅장하고 거대하며 사치스러운 건물 중심의 교회가 진부한 종교적 순응주의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문화의 변두리로 밀

려나고 말았다. 교회의 리더십이 세대를 따라서 변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 이상 건물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프로스트 박사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문화를 가지고 정숙하게 살아가는 미덕을 제시하려는 전통적 서구 교회의 선교신학에 대해서도 반성하자는 주장을 내 놓았다. 세계 곳곳에 영국 파송 선교사들이 퍼져나갔으나, 역시 식민지 시대의 팽창이념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오류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교회에서는 항상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목회자나 목사만이 청중의 리더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재생산적인 팀 사역이라고 강조한다.[16]

2.2. 일반 리더십과 목회리더십에 관한 상관성 이해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목양적 리더십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종합하고자 한다. 목회 리더십이라는 용어와 연구 분야가 정립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국가

[16] Frost,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139.

나 단체, 조직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연구되어 왔었고, 이런 요소들이 목회적인 전략에도 활용되었으므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더십의 기본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 일반 경영학에서 정리되어온 바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하고자 한다.[17]

리더십이란 "리더" (leader)라는 단어와 "쉽" (ship)이라는 낱말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 단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배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의미이다. 리더십은 항해에 비유하여 풀이하여 누구나 쉽게 형상화 할 수 있다. 즉, 리더십이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배를 잘 지휘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과 같다. 배를 이끌어나가는 동안에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여야만 하는데, 특히 폭풍이나 암초, 해류를 잘 인식해야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바, 이러한 일을 감당하려면 선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선장으로부터 배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발휘되어야만 하는데, 순풍에서나 역풍에서나 선원들의 능력을 결집시키는 단체의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은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민하게 대응하여야만 암초가 있으면 피해서 나갈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하고 탈진하게 될 때에도 리더는 희망을 불어넣고 격려하면서 신체적 리듬을 맞춰주어야 하며, 충분한 휴식을 배려

---

[17] http://www.businessdictionary.com/definition/leadership.html. (2015.3.20.일 접속)

하면서도 능력을 결집해서 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가도록 해야만 한다.[18]

조직에서나 집단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곳에서 지도자들이 있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은 분명한 비전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따라오도록 함께 나눔을 가지며, 정보를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지식을 제공한다. 구성들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균형을 갖추도록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조적으로 극복해 내는 능력을 발휘한다.

리더십은 단순한 조직 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지도력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받고 도움을 얻어서 개발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르침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국의 빌 게이츠(Bill Gates)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보는데, 그는 초기 다양한 실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기술과 열정을 갖고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견고하게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더십이란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동료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행동을 말한다. 리더십은 어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기부여이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행위

---

[18] 한 홍,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4), 30.

적 영향력"이라고 규정한다.[19]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한 개인의 특별한 능력과 행위적 영향력이다. 리더십은 특정 동기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경쟁이나 충돌 상황에서 추종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및 기타 자원들을 동원할 때 발휘된다.[20]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사회심리학, 경영학, 조직행동학, 경제학, 정치사회학, 목회학 등에서 자주 사용되다 보니 세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가이는 리더십이란 어떤 그룹 속에서 신중하게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 영향력은 그룹으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성취할 연속적이고 유익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21]

스티븐 번스타인과 앤서니 스미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능력과 동기를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의미있는 변화를 위해서 합심하여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여

---

[19] Martin M. Chemers, *An Integrative Theory of Leadership*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7), 1, "Leadership has been described as a process of social influence in which a person can enlist the aid and support of others in the accomplishment of a common task."

[20] Henry & Richard Blackby, 윤종석 역, 「영적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4), 31.

[21] John E. Haggai, 권명달 역, 「지도자가 되라」 (서울: 보이스사, 1990), 32.

러 사람이 함께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주는 행동이라고 규정한다.[22]

이런 일반 이론가들의 개념을 활용하여 군대에서나 기독교에서도 "리더십"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른다. 미국 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Harry S. Truman)은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지도자로서 세계를 이끌었다. 그는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싫은 일을 하면서도 좋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고 했다.[23]

그러나 점차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리더십이 일반 사업체와 군인과 국가를 이끄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거론되었다. 특히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리처드 휴즈는 리더십이란 한 조직체에 끼치는 영향력으로서, 그 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한

---

[22] Steven M. Bernstein & Anthony F. Smith, "The Puzzles of Leadershiphi," in *The The Leader of the Future: New Visions, Strategies and Practices for the Next Era*, ed. Frances Hesselbein and Marshall Goldsmith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282.

[23]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엠마오, 1987), 77.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다. 따르는 이들도 분명히 리더십의 중요한 일부분이다고 지적하였다.

크리스천 리더십을 연구한 제임스 쿠제스와 베리 포스너는 이런 일반화된 리더십으로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였다. 필자는 이런 리더십 연구가 목양적 리더십 연구에 매우 큰 자료가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의 인용문에 담긴 내용은 리더십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유익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이란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갖추어져야만 한다.

리더십은 사람들의 DNA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기관의 최고위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다.

리더십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낼 때 사용하는 과정이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24]

크리스천 리더는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여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끼쳐야만 한다. 이러한 리더십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당연히 필요하고,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목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는 양무리인 성도들을

---

[24] 제임스 쿠퍼, 배리 포스터, 「크리스천 리더십 챌린저」, 정옥배 역 (서울: 디모데, 2009), 15.

양육하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요인들과 내적인 문제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핵무기 전쟁에 대한 공포와 갈등, 환경과 에너지 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침해, 인종적 대립과 폭력적 비극이 발생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내부적으로 가정의 파괴와 결혼생활의 침해, 남녀간의 결혼에 대한 성적인 도전들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말았다. 영적으로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런 시대에 목회지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2.3. 목회 리더십에 관한 주요 연구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리더십의 유형과 특성들을 연구하여 온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보면, 발전 단계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미국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노트하우스 박사는 지금까지 발견된 리더십 이론으로는 모두 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특성론적 접근, 기술적

접근, 행태적 접근, 상황적 접근, 돌발 상황적 접근, 경로 목표적 리더십, 상호 교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 팀 리더십, 심리적 역동 리더십, 여성리더십, 문화리더십 등이다. 이 가운데서 크게 주목해 볼 것은 네 가지 접근방법에 따른 리더십의 구별이다.[25]

가.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의 자질과 특성을 중심으로 개발된 리더십 연구

지도자의 자질과 타고난 특성에 대해서 특성론적 접근 방식 (trait approach)이다. 1940년대에 활약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던 것이다. 지도자의 능력은 타고난다는 바탕 위에서, 성공한 인물들의 자질과 경험과 업적을 주로 분석한 것이다.[26]

지도자에게는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자질들이 있다는 것이다. 시대를 이끌

---

[25] Peter G. Northous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Thosand Oaks: Sage, 2013, 6th Edition). J. M. Burns, *Leadership* (N.Y.: Harper & Row, 1978). 신중식 외 7인,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26] Ralph M.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N.Y.: Free Press, 1974). 이 책은 다시 공동저자 추가되어 개정판으로 나왔는데, 지도자의 특성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R. M. Stogdill & Bernard M. Bass,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Revised and Expanded (Macmillan: 1982).

어 가는 지도자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adaptable to situation), 사회적 환경에 대한 민감성 (alert to social environment), 성취지향성 (ambitious, achievement oriented) 결단성 (assertive), 협동성 (cooperative), 단호함 (decisive), 신뢰성 (dependable), 압도적인 성취감 (dominant power motivation), 왕성함 (energetic), 인내심 (persistent), 자신감 (self-confident)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분석한 것이다.[27]

성공적인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능의 영특함 (clerver), 개념적으로 숙달됨 (conceptually skilled), 창의성 (creative), 외교적인 재치 (diplomatic and tactful), 유창한 언변 (fluent in speaking), 임무에 대한 지식 (knowledgeable about the work), 조직적 관리능력 (organized administrative ability), 설득력 (persuasive), 사회성 (socially skilled) 등이다.

그러나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개인에 대한 연구 방법만으로는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점차 다른 각도에서 연구가 나왔다.

---

[27] Gary A. Yukl, *Leadership in Organiz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8), 237.

나. 리더가 된 사람들의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방법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연구가 개발되었다. 1950년대 이후로는 행동주의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등에서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리더가 되려면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적 리더십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을 특징적으로 비교하였다. 첫째는 권위주의형 리더십 (authoritarian style)이고, 둘째는 민주형 리더십 (democratic style)이며, 셋째는 자유방임형 리더십 (laissez faire style)이다.[28] 권위주의 리더십은 전제형이므로 구성원들이나 조직원들과의 관계가 수동적이고, 냉담하며, 성공하기 힘들다. 민주형 리더십은 호의적이며 응집력이 있고, 안정감을 가진다.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리더가 무관심하게 느껴지므로 불만족스럽고 불편하다. 그 결과는 최악이 되고 만다.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일을 맡은 사람이나 종업원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생산 중심적인 리더십 (production centered or job centered

---

[28] Ibid., 120.

leadership)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크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리더가 치밀하게 감독을 하면서도 조직 내의 구성들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과 개성의 존중, 개인적 욕구에 대한 민감성, 권한 위임과 지원적인 업무환경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리더의 행동과 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분리함으로써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리더십 상황론이 대두되었다.

다. 리더의 역할을 발전적으로 제시한 상황이론

피들러는 1951년부터 대규모 다양한 집단의 리더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상황이론을 개발했다.[29] 그는 두 가지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을 제시했다. 즉 과업 지향적 리더 (task oriented leader)와 관계지향적 리더 (relation oriented leader)로 나누고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역할들을 대처하는 상황이론을 분석하였다. 과업 지향적 리더는 목표달성을 중요시하지만, 관계지향적 리더는 과

---

[29] F. E. Fiedler, *A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 (McGraw-Hill, 1967), 22.

업의 성취만이 아니라 조직 내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리더를 말한다.

상황이론에서는 강조하는 리더십이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신뢰성, 친밀감, 신용과 존경을 중요시한다. 집단 구성원들의 수행성과를 평가하여 리더가 승진, 승급등의 보상과 인사이동이나 해임등의 처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우스와 미첼은 다시 더 발전시켜서 네 가지 유형의 기대 이론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하였다.[30]

첫째, 지시적 리더십 (Directive leadership)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질문하고 가장 합당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방법이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까지 특수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임무표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확실하게 증대시켜 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도 있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에 모호한 역할들은 줄어든다.

이 방법은 임무가 구조화되지 못하였거나 복잡할 때, 그리고 구성원들이 미숙련자들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고, 안정

---

[30] R. J. House, and T. R. Mitchell,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Contemporary Business*, 3 (Fall, 1974): 81-98. cf. M. G. Evans, "The Ef Supervisory Behavior on the Path-Goal Relationship,"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5 (1970): 277-298. R. J. House, "A Path-Goal Theory of Leader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6 (1971):321-339. 백기복, 「리더십 리뷰」 (서울: 창민사, 2005), 16.fect of

감과 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둘째, 후원적 리더십 (Supportive leadership)은 따르는 자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며, 친밀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자아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임무를 더욱 더 흥미롭게 대하도록 만든다. 이 방법이야말로 임무가 힘들고, 지겹고,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

셋째, 참여적 리더십 (Participative leadership)이 있다. 구성원들과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고자 할 때에 함께 그들의 생각들을 고려해서 채택한다. 이 방법은 조직원들이 숙련되어 있고, 그들의 제안이 필요할 때에는 최고의 방법이다.

넷째, 성취 지향적 리더십 (Achievement-oriented leadership)이다.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업무에 있어서나, 자기 개발에 있어서나 최고의 성과를 내려는 방법이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능력이 잘 발휘되도록 성공에의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고, 그가 제시한 최고의 목표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기대치를 높여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방법은 임무가 복잡할 때에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어떤 지도력이라 하더라도 상호간에 지도자는 효과적으로 소통하여야 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과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학문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제시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적인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나왔다. 그 동안의 여러 연구 성과들 가운데서, 현대 목회리더십에 도움이 되는 가장 탁월한 대안으로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회리더십의 대안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버려야만 한다거나 상호 경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두 가지 목회 리더십을 토대로 하여서 더 한걸음 발전된 리더십을 제시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핵심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려는 목양적 리더십이 왜 본질적으로 필요한가를 제기하고자 한다. 목양적 리더십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유익한 부분들을 상호 보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안목을 갖추는데도 도움이 된다.

2.4. 변혁적 리더십

현대교회에서는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접목하여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왔다. 특히 목회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역동성이라고 본다. 목회자들의 리더십을 유형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은 서구에서 진행된 리더십 연구서들로부터 나온 것을 기초한 것이다.[31]

기존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한 지도자에 집중되어서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전통적이고 거래적인 리더십이 많이 연구되어 왔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조직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어가면서 현대적 상황에 적합한 대안적인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모든 일을 중심적으로 처리하는 한 사람의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부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서, 조직 구성원인 추종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접근들이 새롭게 나온 것이다.

성경적인 접근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목회리더십은 변환적 혹은 변혁적 지도력 (transformation leadership)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 변환이라는 개

---

[31] 양기성, "목회자의 리더십 유형이 목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조성종, 「목회자 리더십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8). 서정하, "한국 기독교 목회자의 리더십 행위가 성도들의 조직시민행동과 정통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념은 단순한 변화와는 달리 훨씬 포괄적인 총체적 전환을 의미한다. 즉, "변환"이라는 개념은 리더와 조직원 사이에 서로 사기를 고양시켜 주는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제안되었다. 리더와 조직원 혹은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유발의 상태로 고양시키는 과정이 들어있고, 높은 이상과 도덕성을 호소하여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변환적 리더십이란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욕구, 믿음, 가치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용어를 처음 일반 리더십에서 사용한 번즈는 카리스마 리더십의 반대개념으로서 사용하였다.[32]

목회리더십에서 주목하는 변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적 동기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가. 카리스마: 리더가 부하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하고, 부하들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가치관, 존경심,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나. 개별적 배려: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인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개인의 욕구차이를 인정하며 알맞은 임무를 부

[32] J. M. Burns,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1978); B. M.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ew York: Free Press, 1985); 권상술, "상사의 변형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태도 및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고성진, "훈육대장의 변환적 리더십이 생도들의 학습동기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여하고 잠재력을 개발해 준다.

다. 지적자극: 리더가 구성원들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존의 합리적인 틀을 벗어나 이해력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각성시켜 보다 창의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라. 영감적 동기부여: 리더는 부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노력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통한 사기양양 등을 통해 업무에 매진하도록 활기를 제공한다.[33]

"변환"이라는 전문 학술 용어는 일반 리더십 이론에서 먼저 거론되었고, 목회리더십으로 채용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사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개념화 되어서 사용되어왔던 문화관이었다. 인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이나 세속 정치와의 관계설정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에 유럽에서 칼빈과 개혁교회가 이룩한 것이 "변혁적 문화관"이라고 개념화

[33] B. M. Bass,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 (Winter, 1990):22.

된 바 있었다.[34] 라인홀드 니버와 헨리 반틸 등이 이미 정확하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을 기술한 바 있었다. 변혁주의 문화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예술을 포함하는 문화의 전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노력해온 것을 말한다.[35] 변혁적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을 밝히 고쳐나가는 창조적인 행위들을 일컫는다.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로는 20세기 초엽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델란드에서 반혁명파를 기치로 내걸고 수상을 역임하면서 정치 분야에서 공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변환적 리더십을 교회성장과 연계시키는 면에서 다소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다. 교회도 마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와 사회적 기관으로서 규정한 나머지, 출석률, 헌금률, 전도율, 이적률, 봉사율 등으로 교회성장을 계량화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교회성장학자들의 생각에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만이 의미를 갖게 된다. 상업적인 의식이 반영된 대형교회와 고객의 힘을 근거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일반 회사를

---

[34]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Reprint edition 2001), 190-195.

[35]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1959), 47.

경영하는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36]

2.5. 영적 리더십

지금까지 또 다른 기독교 리더십으로 조명을 받아온 것이 영적 리더십이다. 기독교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종교이며, 교회는 생명의 사역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영적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영적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리더십은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시행되는 것이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업, 군대, 정부, 학교 등에서 검증되어서 나온 리더십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성공만을 부추기는 것들이다. 건강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은 오직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

[36] 미국 풀러신학교 맥가브란, 피터 와그너 등에게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다음 두 책에서 가장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명성훈, 「리더십 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한금석, 「교회성장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어내는 성경적인 것이라야 하고 영적인 차원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직업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가, 의사, 정치가, 부모, 교사, 목회자 등이 직업과 관계없이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리더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종들을 찾고 계신다 (사 59:16, 겔 22:30). 영적인 리더십은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감과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37]

그러나 영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온전한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영적 리더십은 굳이 성경적으로 풀이할 필요가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자들이 굳이 기독교적인 신앙적 감화력을 발휘하지 않았어도 충분했다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몇 사람의 사례를 들어 보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리더의 소양을 보였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복잡한 전투대형을 꾸미곤 했다는 것이다. 그의 기질과 품성이 어린 시절부터 영적 리더십을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왔었다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을 다루는 사례로서 윈스톤 처칠 경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어린 아이 시절에 1,500개의 장난감 병정을 갖고서 전투 작전을 지휘하였다는

---

[37] Henry T. Blackaby & Richard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1, 2011); 「영적 리더십」,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2014), 24.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탈리아 독재자 무쏠리니는 부정적 리더십이 강하여서 동급생을 두 번이나 칼로 찔러서 퇴학을 당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결국 미래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타고난 자질을 잘 개발하여 영적 리더십 능력을 크게 높일 수 만 있다면, 뛰어난 재능과 카리스마, 멋진 풍채와 신체적 매력을 갖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방식으로 본 다면, 영적 리더십은 태어나는 것이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은 기독교적인 리더십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강력한 의지와 품성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어린 리더의 인간적인 면모를 개발하면 된다는 것은 결국 인본주의적 낙관주의이자, 낭만적인 긍정주의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영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자들은 이성과 품성은 개발하기만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리더십이기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말고 그 사람 자체의 왜곡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회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요, 그 후에 발휘되어야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온전한 리더십의 근원이자 모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의 목양적 리더십을 성경적으로 검토하면서,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목양적 리더십의 재발견과 그 특징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목양적 리더십" (Shepherding Leadership)은 구약신학적인 배경적 지식을 근간으로 삼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베드윈들의 목양 사역지의 현장탐방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 즉 현재 목축업자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Pastoralism) 참고하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양을 하는 목동의 역할을 성경적 리더십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근간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목양적 리더십은 성경에 담긴 가장 탁월한 리더십으로서 현대 한국 목회자들의 지침이 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1]

간단히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유목생활에서 터득한 것들도 목양적 리더십이었고, 이런 요소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들의 시대에 드러난 것이 목양적 리더십인데, 역사적 배경과 특징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실성을 확인할

---

[1]Timothy S. Laniak, *While Shepherds Watch Their Flocks: Rediscovering Biblical Leadership* (Matthews: Shepherd Leader Publications, 2007); 김재성 역, 「양을 돌보는 참목자」 (용인: 킹덤북스, 2013). Idem, *Shepherds After My Own Heart*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수 있다. 현대목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자, 성경적인 리더십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적 리더십을 통해서 제시된 바, "선한 목자"의 비유로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개념에 담겨있다.

3.1. 목양과 목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

목양적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목자와 목양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이 있어야 한다. 우선 목자라는 직업 자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직업이었다. 성경에서 목자와 목양에 관련된 언급이 모두 200회가 넘는다. 아벨이 최초의 목자로 기록되어 있고 (창 4:2), 아브라함 (창 12:16), 라헬 (창 29:9), 야곱 (창 30:31-40), 모세 (출 3:1) 등이 모두 다 목자로서의 생애를 살았었다. 그러나 점차 목축업보다는 농업이 발전하면서 땅을 가꾸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자, 목자라는 직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근동지방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경멸을 당하고 무시되었다. 즉, 목양의 임무는 어린 자녀들이나, 품 삯을 받고 고용된 자들, 노예들에게 부과되었다 (삼상 16:11-13). 양을 돌보는 목자는 많은 재산

을 가지고 권세를 자랑하는 부자들이나 권세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냄새 나는 동물을 취급하는 직업이었으므로, 이집트에서도 무시를 당하였다 (창 46:34).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주로 들판에서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던 자들이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의 생애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야곱이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23편 1-3절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목양적 리더십을 분석해보면, 양들을 잘 알고, 먹이고, 이끌어주며, 보호하심으로 네 가지 내용임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인 디모데 위트머가 잘 풀어냈다.[2]

신약성경에서는 목자라는 용어가 모두 16회 사용되었다. 목자와 양 사이의

[2] Timothy Z. Witmer. *The Shepherd Leader: Achieving Effective Shepherding in Your Church*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2010), 11.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와의 긴밀성으로 풀이하는 구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요 10:7-18)라는 선언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언급된 부분이다 (히 13:20).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사역을 명령하셨는데 (요 21:1), 이에 따라서 라틴어로 목사를 의미하는 단어, "목회자" (pastor)는 "양을 돌보는 자" (shepherd)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에는 영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패스터'(목회자)이다. 목회자는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Reverend" 라고 따로 부른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특정한 그룹을 교회에서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 '패스터' (목회자) 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언약들의 최종 성취자로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메시아로서 "선한 목자"이셨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목양적 리더십을 계승하도록 준비시켰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지도력을 분석해 보면, 구약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과의 연계성이 발견된다.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목민의 후예들로서 조상들의 목축업과 연계된 신앙적 유산을 간직해 왔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23:4).

목자는 비록 그 직업 자체는 천대받고 무시를 당하였지만, 양을 이끌고 지

도하는 일을 한다는 역할이 있었기에 국가 지도자의 지위를 상징하는데 사용 되었다. 메시아적 사역이었다.

3.2.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적 리더십

목양적 리더십의 본질과 전형은 예수님이 자신을 풀이하면서 제시하신 "선한 목자"라는 개념에 담겨있다.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면서 자신들의 생애를 보내게 되는데, 현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에 전형으로 새겨야 할 귀중한 교훈들이 담겨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남다른 일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선한 목자의 개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 본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선한 목자라는 개념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된 부분은 참되고 고결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된 유대정권과의 대조이다. 이러한 대조의 배후에는 에스겔서 34장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백성들을 거짓된 목자들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적인 목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3]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 선한 목자를 통과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양들의 안전과 보호가 뒤따른다. 양들은 이동하면서 꼴을 먹어야만 했기에 항상 한 장소에 머물 수 없었다. 목자는 들판에서 담을 치고 양들을 머물게 하는 임시 거처에서 밤을 보내면서 휴식을 해야만 했다. 항상 그 주변에는 담을 넘어서 들어와 양을 훔치려는 도적들이 있다. 예수님은 양들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신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결코 손해를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의 목자들은 양떼를 해치는 자들이다.

오늘날 다양한 신학들이 제공되어서, 기독교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다종교 포용주의를 가르치고 있다.[4]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문은 오직

---

[3] Kenneth E. Bailey, "The Shepherd Poems of John 10: Their Culture and Style," *Near East School of Theology Theological Review* 14 (1993):3-21.

[4] David F. Wells, *About All Earthly Powers: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2005), 248; "The autonomous self, I have suggested, is a thread that comes into postmodern era from the modern." John Frame, *No Other God: A Response to Open Theism*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2001).

하나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한다. 비슷한 문들이 많이 있지만, 다 가짜이며 속임수일 뿐이다.

둘째, 예수님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만 살아날 수 있는 선한 목자인 반면에, 삯군 목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자들이다. 양들은 순진해서 선한 목자와 삯군 목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위기의 순간에 삯군 목자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강한 모래 바람으로 휩쓸리는 순간이 도래하면,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구하고 돌보아는 주는 일에 진력한다. 삯군 목자는 양을 지키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을 피하기에만 급급하다. 그는 자신이 받아가야 할 대가에만 집착한다. 양들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양들을 지키는 사명감을 상실해 버린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어떤 여건과 상황 하에서도 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2)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의 개념에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며, 양을 지키

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직책이다. 목축업을 열심히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기꺼이 양을 살려내는 헌신을 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행동을 직접 설명하면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희생이 있음을 거듭 세 번이나 지적하였다 (요 10:11,15,17). 실제로, 몇 마리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가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현대 목축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5] 그만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3)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대한 사역의 확장을 암시하였다(요 10:16). 목양사역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분명하게 담아놓으신 것으로 본다. 선한 목자의 사역반경은 결코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제한시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나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히 12:2). 참된 목자가 돌보아 주는 양떼들은 그 수가 많아서, 단지 하나의 민족이나 종족으

---

[5] Johannes Beutler & Robert T. Fortna, eds., *The Shepherd Discourse of John 10 and Its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로 그치지 않는다. 민족주의나 혈통주의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같은 말씀이 다.

반면에 이 구절에 대해서 존 머레이 교수는 속죄의 범위와 관련된 해석을 제시하였다.[6] 이 구절에는 장차 나타나게 될 선교적 사역의 열매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영원토록 양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선언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범주에 속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양에 속하지 않으며 (요 10:26),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양과 양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반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서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경험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더 궁극적인 것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속적 희생이 결정되어 있고, 양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보증한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다.

---

[6] John Murray,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6), v.1; 박문재 역, 「조직신학」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8), 93-94.

4)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 (요 10:10)을 약속하시는 목자이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이란 부활의 생명 (요 6:39),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시려는 생명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결코 실패하였다고 말한 적도 없다. 양들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풍성한 생명, 즉 영생의 약속 이외에 아무런 세상 영화나 번영이나 부귀나 권세 등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지 않으셨다.[7]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하였을 뿐이다 (요 10:9). 여기서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곧 영생이다" 고 선포하였다 (요 10:10, 11:25, 14:6).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하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신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곳은 푸른 초장이다 (시 23편, 65:13, 출 15:1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초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룩한 목장이었고, 새 백성을 위한 낙원이었다.[8] 예루살렘은 거룩한 초장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목양지, 목장이었다. 시온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약속의 땅에서도 중심지였다.

---

[7] Craig L. Blomberg, *Jesus and the Gospels*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김경식 역, 「예수와 복음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471.

[8] 래니악, 「양을 돌보는 참 목자」, 96.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세속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가장 소중한 보화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가 아니다, 지혜를 얻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잠 8:11).

교황청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싸움하던 비리들이 많이 폭로되었고,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연합기관이나 교단이 교파의 총회관련 조직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명예욕과 감투욕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오직 목양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구현할 수 있다.

3.3. 예수님의 목양적 리더십의 훈련: 제자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발휘하는 목양적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뽑아서 친히 양육하고 가르치는 제자화 과정을 3년간 시행하였다. 영혼의 목

자로서 사역을 하려면 먼저 겸손함과 낮아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제자들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마침내,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였다. 제자들에게 제시하였고, 지속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였다.

목양적 리더십의 교훈과 감화의 핵심사항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받아서 그대로 교회의 설립과 양육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목양적 리더십의 기본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과정에 담겨있다. 이것은 동시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자, 교회가 따라가는 기준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제자도의 결단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이러 결단으로 단번에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자도의 삶이 성장해 나가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고백을 받아내셨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다 (막 8:27-9.1).[9]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돌이켜서 제자들에게만 신자의 삶을 가르치었다. 이것이 바로 목회리더십에서 주목해야 할 제자도의 양육과정이라고 본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부정사'

---

[9] Ernst Best, *Following Jesus. Discipleship in the Gospel of Mark* (Sheffield: The University of Sheffield, 1981), 39.

가 사용되어서 제자로서의 결단과 결정은 이미 완전하게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네 가지 단계적인 연속성이 제자도의 결단과 삶에 들어있다.

첫째는 제자도의 과정으로 부르셨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셋째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넷째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목양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제자가 되려면, 위의 네 가지 좌우명을 잊지 말고 감당해야만 한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힘을 주시면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일이다.

먼저 기독교의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imitatio Christi)이다. 여기서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만 한다. 단순히 제자도를 훈련하는 방법도 그저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보면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속사도 시대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개발된 수도원 운동이나 고행, 탁발성지순례, 궁벽한 산골이나 사막에서 은둔수행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것들이 제시되었으나, 모두 다 왜곡된 방법론에만 집착하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을 지

속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3.4. 예수님의 사역에 담겨있는 목양 지도력

교회는 가장 핵심 되는 목양 사역에서 항상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통해서 제시된 목회 지도력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본 목표로 설정여야만 한다. 예수님의 목양적인 지도력은 공동체 훈련과 교훈적인 목회활동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 내용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 중심의 소규모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종교적인 성찰이나 영적인 개발을 위해서 현실로부터 은둔하거나 피신하지 않았다.[10]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금욕적으로 생활하거나 독립적으로 은둔하지 않았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의 목양적 지도력에서 두드러지

---

[10] Jonathan Hill,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2011), 17: "Even during his own lifetime, Jesus was not an isolated figure but the focal point of a movement."

는 모습은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먹이고 지키며 돌보신다는 점이다.[11]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가정에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셨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동적으로 전파하고 천국복음을 증거하도록 운동을 일으켰다. 이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킨 사역이다. 예수님의 지도력은 제자들을 양육하여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케 하는데 집중되었다.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 두 형제들을 먼저 불러내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젊은이들이었다. 그러나 서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게을리 하다가 망했다고 데이빗 왓슨이 지적하였다: "서구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그저 교회 자리를 채우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니다. 제자도의 참 의미를 배우고 또 실제로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야 비로소 서구 기독교는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도 점

[11] 래니악, 「양을 돌보는 참목자」, 171-182.

차 증가할 것이다."[12]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랍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학교에 등록하였고, 스승에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헌신했었다. 제자들은 랍비들에게 완전히 종속적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연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바리새인의 제자" (막 2:18)는 기록된 토라와 구전으로 전해진 토라, 조상들의 유전 또는 전승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배우는데 전념하고 있었다. 랍비학교의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충성하였다 (막 2:18, 눅 11:1).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주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직접 선발하였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제자도를 만드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교육 제도이며, 예수님의 지도력이라고 본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레위, 빌립 등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따른 것이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도가 요구하는 전인적인 희생을 설명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다. 그의 완전한 인격과 고귀한 가르침과 기적에 이끌려서 찾아온 주

---

[12] David Watson, *The Discipleship*, 문동학 역, 「제자도」 (서울: 두란노서원, 2004), 12.

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헌신을 약속하며 제자가 되겠다고 간청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청원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제자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덕목과 희생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얼마 안 가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요 6:60)고 하면서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서 마침내 열 둘, 바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며 순수하게 부르신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자들이었다 (요 17:9). 열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불러내어 세웠기에 모두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로 묶여질 수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지도력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6)

셋째, 열두 명을 선발하시고, 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헌신적인 교육을 집약시킨 것은 예수님의 목양사역에 담긴 전략이었다. 열 두 명이란 숫자에 집착할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열두 명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족장시대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요소였다. 이들 열 두 명의 부족장은 후손들에게 대대로 세습되는 땅을 물려받았다. 전

체 유대 사회에서 부족별 구분은 그들의 결속력과 역할에 따라서 전쟁에 대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열 두 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신 이유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이라고 본다. 숫자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갱신운동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사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혁명을 가져오신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사람의 속성과 모든 욕망을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과 변화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넷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지도적 위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 예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성장한 이들은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 (막 9:2-8),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의 요청도 받았다 (막 14:33). 이들은 때로는 세속적으로 경쟁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여서 자신들이 좌우에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요 21:2).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처형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변질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흩어져버렸다. 다 주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가룟 유다는 선생님을 팔아 넘기는 배반을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동료임을 부인하는 배신도 하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고초를 당한다.

다섯째,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증거하였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부활신앙은 충만한 역동성을 불어넣어서 모든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불어넣었다.

3.5. 예수님의 목양적 리더십과 사역자의 비전

선한 목자의 행동과 교훈에서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다음 몇 가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사명에 포함되어 있다. 제자들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로서 양을 책임지는 목동의 직무를 부여 받은 자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의 역할에 대한 희망이요, 비전이 된다.

1) 목양적 리더십과 영혼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모습에서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 (마 10:6)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점이다.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선한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축사에 놓아두고 찾고자 들과 산을 헤매고 다닌다는 비유를 말씀하였다 (눅 15:3-7).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하늘에서 얼마나 기쁨이 큰지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목회자들이 최우선 순위에 놓고 감당해야 할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 하늘에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이야말로, 목회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분야가 된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교회 목회자들이 전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강력한 비전을 제공한다. 리더십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13] 목회자들은 양을 잃어버린 곳에서 편안한 심리상태를 가진다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함께,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기 나온다. 이 비유에는 목자들과 여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등장하는데, 목자들을 경멸하고 여인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던 유대인들

[13] 래니악, 「양을 돌보는 참 목자」, 129-130.

의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비유들이었다.[14]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어떤 고상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목양적 리더십과 말씀 증거 사역

목양적 리더십은 목회자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과 실천적 섬김을 통해서 발휘된다. 요한복음 21장 15-2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였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요 1:41-42),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요 18:15-18, 25-27), 다시 세 번이나 다짐하게 하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재소명 (recall)을 받아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15] 세 번의 부인과 세 차례의 확인은 위대한 비전을 주심으로서 마무리 되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신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에 주목해 보자. 여기서 래니악 교수는 두 단어가 쓰였음에 주목하였다. 우리 한글 성

[14] Kenneth E. Bailey, *Finding the Lost: Cultural Keys to Luke 15* (St. Louis: Concordia, 1992).

[15] Paul S. Miner, "The Original Functions of John 2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2 (1983):85-98.

경에는 똑같이 "먹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처음과 세 번째 단어는 "보스코"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포이마이노"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다.[16] 두 번 사용된 "먹이라" (보스코)는 실제로 먹이를 넣어주는 장면을 묘사한다.

베드로는 양을 먹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활동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아왔었고, 익숙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선한 목자로부터 세움을 받은 모세와 같은 사역자는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위치에서 양떼를 이끌고 가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시 78:24-29).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시 78:25, 출 8:3).

목회자들은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중요한 사역적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곧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배고픈 양떼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막 6:34).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생명을 말씀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셨다. 건강한 가르침이야말로 목회자들이 품고 있어야 할 비전이요, 목회사

[16] 래니악, 「양을 돌보는 참 목자」, 104.

역에서 제공해야 할 목양적 리더십의 핵심이 된다.

바른 교훈과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엡 5:6)고 지침을 제시했다. 목양적 리더십의 핵심은 성경만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임을 확신하고 굳세게 이를 증거하는 것이다 (딤후 1:10, 3:16).

목양적 리더십의 핵심은 현대 목회자들이 굶주린 양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제시하는 일이다. 지도자로서 목회자는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통찰하면서 별미를 음미하여야 한다. 생명의 양식을 윤택하게 하려면, 목회자들은 경건한 기독교 고전들, 신학적인 저서들, 감동적인 위인들의 간증들로 보충해야만 한다. 목양적 리더십의 최고 표현은 말씀사역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영양이 풍부하고 신선한 재료들로 인해서 감칠맛 나는 음식은 온갖 헛된 세상의 합성물들과 사상적 쓰레기들 속에서 생명의 원천이 된다.

현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심각하다.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서 진리로 감격하게 하여야만 하다.

3) 목양적 리더십과 돌봄 사역

목자는 양들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며, 여러 형편에서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실제로 양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있다.[17] 하나님의 양 무리인 성도들은 전염병이나, 개인적인 신체적 결함과 질병만이 아니라, 학대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빈약한 자존감, 열등의식, 심리적인 피해의식 등이 거미줄처럼 얽어 매고 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두드러진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쳐주셨던 점이다. 예수님은 영혼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치유를 목회사역의 핵심으로 삼았다.[18]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5-36; 사 57:18-19, 호 6:1).

예수님의 목양사역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많은 경우에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지만, 많은 경우에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

---

[17] Kenneth C. Haugk & William J. McKay, *Christian Caregiving: A Way of Life : Leader's Guide* (Minneapolis: Augsburg, 1994), 72.

[18] 래니악, 「양을 돌보는 참 목자」, 112-113.

님은 손을 내밀어서 환자를 만지었다. 그러나 당시의 풍습으로는 일부 병자들은 절대로 몸을 만져서는 안 되는 일 이었다 (막 1:41). 예수님은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면서 고치셨다 (마 20:34). 보다 극적으로 드러난 치유 사역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에 침과 흙을 섞어서 발라 주신 일이다 (요 9:6).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한 아이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목양적 리더십은 매우 구체적으로 양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치유사역으로 드러나게 될 은혜를 선포하셨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은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실행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갖출 수 있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영육 간에 회복이 된다. 목양적 리더십은 병든 양들을 고치는 데서 나타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렘 33:6).

목양적 리더십은 제자들에게로 전수되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마 10:6-8).

목양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분야는 성도들이 고통 당하는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대리 목자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며, 다친 사람을 싸매고 격려하며, 귀신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장애인들과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이다. 목양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 야고보의 서신에도 담겨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4-16).

4) 목양적 리더십과 인격적 모범

목양 사역에서 관련된 성경의 교훈들 가운데서 가장 실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수종 드는 목회적 리더십은 먼저 모범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가르침이다. 목양적 리더십은 겸손과 희생과 양보와 배려의 모습에서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에게서 나온다.[19]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에서는 성직자들이 성례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른 개신교단들은 설교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목회자는 주요 은사와 담당하는 역할 중심으로만 사역을 국한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였다 (벧전 5:3).

거룩한 목자께서는 지식과 명철로서 양떼를 인도할 현장 일꾼을 찾고 계신다. 청지기와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목자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종으로서 건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했고, 부진하게 지도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시 78:72).

권위를 남용하고 지위를 과시하는 자들은 목양적 리더십을 잃어버린다. 고함치고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후려치는 목자들은 학대성 리더십이 잘 통하리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통치, 제왕적 폭압, 공포 정치가들이 군대의 권세로 내려 누르는 학대를 일삼아 왔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다. 에스겔 34장 4절에서, 하나님은 권위주의적 지배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였다.[20]

---

[19] Jackson W. Carroll, *God's Potters: Pastoral Leadership and the Shaping of Congrega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6), 127, 132. 미국 듀크 대학교의 교수인 저자는 목회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와 전화면담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주류 개신교단들을 네 그룹으로 (보수적인 개신교단, 감리교회와 루터파, 흑인교단, 로마 가톨릭) 목회환경에 따라서 각각 특징들을 구별하였다.

[20] 래니악, 「양을 돌보는 참 목자」, 332.

모범적인 리더십은 반드시 앞장 서야 할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목양적 리더십은 발휘될 수 있다. 목양은 첫째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측면 (시 23:2-3), 둘째로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는 측면 (followership), 셋째로 옆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하여 나가는 모습도 필요하다. 선한 목자의 모습은 항상 앞장 서서 이끌어나가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양떼의 뒤편에 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 13:5).

성경적인 리더십은 항상 섬기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인종, 성적인 학대, 장애에 따르는 차별, 모독, 비하는 모두 다 맹종과 강요된 충성심을 유발할 뿐이다.

교회에서 발휘되어야 할 성경적 리더십은 목양하는 목자와 같아야만 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벧전 5:3).*** 양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폭언을 일삼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에서도 얼마든지 강력한 힘이 발휘될 수 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

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였다. "감독"은 에피스코포스인데, 어근에서 나온 일차적인 의미는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의 깊은 파수꾼으로 양떼를 돌보는 일, 살피는 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에스겔서 34장 16-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삯꾼 목자들에게 강력한 진노를 내리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 흩어진 자기 양떼를 구원하시고 직접 목양하시겠다고 선언하였다. 책임감이 강한 목자로서 하나님은 양떼를 지켜주고 정의롭게 인도하다가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

개혁주의 신학자 요한 칼빈 (1509-1564)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냄으로써 목양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21]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외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것이다 (빌 3:10). 영국 청교도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윌리엄 퍼킨스도 역시 목회자들의 겸손과 모범을 강조하여 목회자들이 먼저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큰 영향을 끼쳤다.[22] 퍼킨스는 목회자들이 먼저 겸손과 회개와

---

[2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ord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9), III.vii.1-2.

[22] William Perkins,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London: 1631), 3:520. 최근에 다시 재편집되어 출판된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Joel R. Beeke & J. Stephan Yulle, "Biographical Preface, William Perkins, the Father of Puritanism," in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4).

믿음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있어야만 결국 순종을 실천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 4 장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양적 리더십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목양적 리더십이 과연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목회자의 지도력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의식에서 기독교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형편없이 추락해 버렸다.

주요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가톨릭(29.2%)이 가장 높았다.[1] 이어 불교(28.0%), 개신교(21.3%), 유교(2.5%), 원불교(1.3%) 순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뢰도를 보면 가톨릭(32.7%), 불교(26.6%), 개신교(8.6%)로 나타나 개신교 신뢰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신교회 내에서도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의 여론조사내용이다. 한국인들은 목회자보다 일반 기독교인들을 훨씬 더 신뢰하였다. 기독교 교인(30.3%)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목사(21.1%), 교회활동(14.1%) 순이었다.

이제 어디에서도 기독교 목사라고 하면, 다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신

---

[1] 경향신문, 2014년 2월 4일자, "종교 신뢰도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개신교 신뢰는 10명 중 2명". 오마이뉴스, 2014년 9월 1일자.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반복된 사건들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워지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지도자들이 대내외적으로 각종 범죄와 추문에 연루되어서 고상한 목회자의 권위를 실추하고 말았다. 또한 해외에서 공부하여 전문 학위를 취득하거나, 해외에 있는 대형 한인교회를 목회하던 분들이 귀국해서 영향력이 큰 목회자를 승계하여 후임목회자로 섬기고 있는데, 한결같이 분쟁과 분열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일부 교회는 후임자를 전임자의 자녀나 친인척을 세움으로써, 세습갈등을 빚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목회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먼저 위대한 목회지도력을 발휘했던 분들의 특징과 공헌을 시대별로 일별해 보고자 한다. 한국 교회사에 불멸의 공헌을 남긴 분들의 중요한 지도력을 분석해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지도자들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30년간의 한국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국 교회에 불멸의 영향력을 발휘한 목양적 지도자들은 길선주 목사,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한상동 목사, 박윤선 목사 등이다. 이분들의 목양적 지도력의 배면에는 반드시 신학적인 요소가 깊이 들어있기에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요소들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과 통합하게된 고려파에 형성된 건전한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고려파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요한 본질을 밝혀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개혁주의 교단 중에 하나이자, 필자가 최근에 총회장으로 2년간 섬겼고, 2015년 9월 총회에서 하나로 통합하게 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측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한국에서 가장 정통 보수신학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교단의 목회자들이 구체적으로 목양적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 목자장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양적 지도력

목양적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목회적 활동을 추구한다. 양을 치는 자들은 각각 교회에서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지켜주며, 이끌어 나가는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성도들이 방황하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다. 목자장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양적 리더십은 결코 지식적인 통치나 우월함에서 나오지 않으며, 양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장로교회에서 당회는 일반 회사처럼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 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안건을 심의하거나, 논쟁을 하는 회의가 당회, 노회, 총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양적 사역을 놓고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한다. 현대교회에서는 수많은 잃은 양들을 지켜내고, 외롭고 홀로 된 양들을 찾아가는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은 없다.

한국교회는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들어와서 혼란과 침체의 징후들이 나타나서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던 영향력이 감퇴하고 있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둔화되고 말았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 논문은 목회자들의 지도력을 성경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회자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발휘하는 지도력은 여러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세속 정치권에서 발휘되는 정치적 지도력과는 달리, 목회지도력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목양을 근간으로 하는 태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제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중심 주제의 한 부분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또한 한국교회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목회적 지도력이 무

너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 리더십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에 속한 분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한다.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권위가 해체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허물어지고 말았다.[2] 절대 진리의 해체, 정통기독교 신앙의 해체를 부르짖는 포스트모던 시대로 규정되는 오늘의 사조는 급기야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고 말았다. 기독교 해체주의로 치닫고 있는 냉엄한 현재 한국의 종교적인 풍토 속에서 지나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목양적 지도력"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한다. 많은 목회자들의 내면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가치체계로 삼고 있는 숨어있는 신학사상들이다. 이 내면적 사상을 분석해 내면서, 동시에 포스트모던으로 알려진 후기 현대의 기술 과학적 사고를 기독교 신앙에서는 철저히 비판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이 대안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시급한 대안으로서, 목회자들의 목양적 리더십이 세워져야만 한다. 성경적 리더십이자, 목양적 리더십은 목회자들의 신학사상과 역사적 신앙유산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외부로 드러나는 열매가 맺

---

[2] Mal Couch 편저, 문석호 역, 「포스트모던 시대 속의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신앙과 지성, 2001). 이 책에서 저자는 사상과 문화, 기술혁명이라는 격변기에 직면한 복음적 신앙의 과제를 진단 한다. 특히 사상과 기술혁명이라는 격변기에 직면한 복음적 신앙의 과제를 밝히고 있다. 특히 6장, "다원주의의 여러 가면들을 벗김"과 7장 "새로운 세기에 있어서의 영적 배도와 교리적 혼돈"에서 탁월한 대안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사명감과 탁월한 목회적 지도력은 한국교회에 면면히 내려오는 신학적 전통에 연계된 역사인식에서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4.2. 한국 초대 교회의 목양적 리더십의 형성

한국 교회는 1884년 9월 20일 입국한 의사 알렌이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기간 주재하는 허락을 얻음으로써 시작 되었다. 그 후로 어떤 영향을 입었고, 어떻게 지도자들이 활동했던가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시대적 인물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구별해 보고자 한다.

가. 초기 한국 주재 선교사들의 목양적 리더십

한국교회는 복음전파에 목숨을 바친 젊은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초석 위에 건립되었다.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남긴 중요한 목양적 지도력은 세 가지 특징을 가졌던 것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초기 선교사들이 보여준 목양적 지도력의 핵심은 경건한 보수주의 신학에 확고히 기초한 지도력이었다. 물론, 이들 선교사들은 모든 방면에서 기울어가던 조선 땅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도력은 역시 성경적인 진리를 확고하게 지키고자 했던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적인 신앙이었다는 사실이다.[3]

미국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1890년에 들어온 새뮤얼 모펫(Samuel A. Moffet)선교사가 세운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체계화 되었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새뮤얼 모펫 선교사는 시카고에서 무디의 영향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그는 1901년에 세워

[3] Samuel A. Moffett, "Fifty Years of Missionary Life in Korea," in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 June 30-July 3, 1934 (Seoul: 1934), 40. Lee Jong Hyeong, "Samuel Austin Moffett: His Life and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890-1936," (Ph.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3).

진 평양신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같은 맥코믹 신학교 동료이던 그래함리 (Graham Lee), 스왈론 (W. L. Swallon)등과 함께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4] 이들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 당시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총무 브라운 박사가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나라가 개방된 이후 첫 25년간의 선교사는 전형적인 퓨리탄형의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은 1세기 전 그들의 조상들이 뉴잉글랜드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으며 춤이나 담배 그리고 카드놀이에 기독교신자들이 빠져서는 안될 죄라고 보았다. 신학과 성경비평에 관해서는 철저히 보수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전천년설의 견해를 없어서는 안 될 진리라고 주장했다. 고등비평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은 위험한 이단으로 생각되었다."[5]

여기서 브라운 총무는 그가 생각하던 시점에서 1세기 이전에, 미국의 교회사에서 중심을 이루던 뉴잉글랜드 선조들의 신앙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물려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는 일제의

---

[4] 조경현, 「초기 한국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그리심, 2011). 이금석, 「평양신학교 설립과 미국 청교도 신학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 Arthur Judson Brown, *The Master of the Far Eas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540.

한반도 통치와 총독부의 행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조했었다. 그렇다면, 과연 브라운 총무가 지적하는 미국 뉴잉글랜드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이었던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가졌던 보수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은 그 뿌리에 19세기에 형성된 '구학파' (Old School)라고 하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었다.[6] 1837년부터 구학파에 대립된 '신학파' (New School)와의 차이가 극심해서 교단이 나뉘어졌다가, 남북 전쟁 이후에 1867년에 다시 재통합하였다.[7] 그 후로 다시 1929년에 다시 나뉘어졌다. 구학파에서는 찰스 피니 (Charles G. Finney, 1792-1875)의 부흥운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옹호하는 뉴헤이븐 신학자들은 비쳐 (Lyman Beecher, 1775-1863), 테일러 (Nathaniel Taylor, 1786-1858)의 속죄론을 거부하였다.[8] 라이만 비처는 보스톤의 회중교회 목사로 있다가 씬시내티의 장로교 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더욱 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부흥 설교자는 뉴욕의 알버트 반스 (Albert Barnes)였다.[9]

제2차 부흥운동, 혹은 제2 대각성운동의 분위기를 통해서 미국인들을 자극

[6] Leonard Trinterud, *The Forming of an American Tradition: The Re-examination of Colonial Presbyterianism*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9), 86-90.

[7] D. G. Hart, *Calvinism: A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3), 248-251

[8] N. W. Taylor, *Lectures On The Moral Government of God* (New York: 1859; Ulan Press, 2012).

[9] Albert Barnes, *The Way of Salvation,* "A Sermon Delivered at Morris Town, New Jersey, February 8, 1829," in *The Presbyterian Enterprise*, ed. Maurice W. Armstrong, Lefferts A. Loestcher, and Charles A. Anderson (Philadelphia: 1955), 147-8.

하게 된 것은 스스로 결단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10] 그 배경에는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요나단 에드워드 (1703-1758)의 방법과 업적을 되살리려던 티모티 드와이트 (Timothy Dwight, 1752-1817)가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떠나서 인간의 전적 부패보다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사회의 갱신과 부흥을 주장하였던 데서 큰 영향을 입었다. 찰스 피니는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예정론과 제한속죄 교리를 부정하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바와 같이 성도 개개인의 즉각적 결단을 강조하였다. 부흥은 올바른 방법만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기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1] 피니는 결국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교회를 떠나서 독립적인 회중교회를 세우고 말았다. 구학파는 아담의 원조가 전가되었다는 점에 강조를 두었고, 제 2차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은 전통적인 교리가 부흥운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거부감을 가졌다. 회중교회와의 통합이 논의되자, 구학파에서 거부하였다. 뉴욕과 오하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파가 교단을 세웠다.

1830년대 미국 신학파에서는 피니의 부흥주의와 다양한 속죄론에 대해서 관용하는 입장을 취했다.[12] 요셉 발라미가 하나님의 도적적 통치론이라는 새로

---

[10] Barry Hankins, *The Second Great Awakening and the Trenscendentalists* (Westport: Greenwood Press, 2004), 137.

[11] Charles G. Finney,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New York: Alethea In Heart; 2nd edition, 2005), 4.

[12] George M. Marsden, *The Evangelical Mind and the New School Presbyterian Exper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82.

운 속죄론을 주장하였다. 구학파에서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근거로하여 전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부패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를 정통신학으로 가르쳐왔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율법을 합리적으로 주셨으며, 이런 능력은 상식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에드워드 팍은 계몽주의에 영향을 입은 속죄를 받아들였다.

구학파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전개했던 변형된 신학사조들과 특히 피니의 인위적인 부흥주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13]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내용으로 대립했었다. 1) 신학파는 원죄와 그 죄책의 전가를 부정했고, 인간의 자발적인 능력을 주장하였다. 구학파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2) 구학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만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강조하였다. 3) 구학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 받는다고 가르쳤다. 4)구학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교리를 확고하게 가르쳤다. 5) 신학파에서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찰스 피니의 자유의지가 더 호소력이 컸다.

그러나 이런 신학파의 부흥주의와 달리, 구학파에서는 진정한 부흥과 성령

---

[13] John C. Lord, "Introduction," in Lewis Cheeseman, *Differences between Old and New School Presbyterians* (Rochester: Erastus Darrow, 1848), 10.

님의 사역을 결코 부인한 적이 없다.[14] 구학파에서는 결코 부흥운동이나 전도의 열정이나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역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구학파의 중심지였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진들 중에, 아치발드 알렉산더, 새뮤얼 밀러, 찰스 핫지 등은 열정적으로 부흥운동과 세계선교를 강조하였다.[15] 이들 중요한 교수들의 영향으로 구학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1837년, 구학파가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거부했던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와 신학파의 다양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 들어가게 되었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와 말부르그 대학교에서 들어오는 자유주의 신학 혹은 근대신학의 영향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적 결단력과 이성적인 판단을 더욱 존중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16]

19세기 미국 장로교회는 부흥운동과 기독론의 속죄에 대한 교리적 갈등으로 전통적인 칼빈주의와 이에 맞서는 새로운 신학사조로 대립되어 있었다.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은 바로 구학파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하였고, 이들은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면서, 보수주의 신학을 힘차게 펼

---

[14] Richard Carwardine, *Trans Atlantic Revivalism: Popular Evangelicalism in Britain and America, 1790-1865* (Westport: Greenwood Press, 1978), 8.

[15] David Bays Calhoun, *Princeton Seminary,* vol. 2, The Majestic Testimony, 1869-192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6), 24.

[16] Lefferts A.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5, "Theologically, the New School men were much influenced by the New England school of Theology stemming from Jonathan Edwards. Edwards, in opposing Arminianism with its more optimistic views of human nature, had emphasized not only the immediacy of God's presence and sovereignty, but also the role of man's feelings and will- that is, 'right affections'."

쳐나갔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장로교회는 성경말씀에 기초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모든 설교와 교리적 가르침의 기준을 세웠었다.

둘째로,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본인들의 임무완수를 위해서 오직 복음전파에 열성을 다하는 전파자적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초기 선교사들은 직접 노방 전도와 선교적 사명완수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였다. 전도에 열정적인 선교전략은 선교사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무디의 부흥 전도 집회에서 나온 것임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온 초기 미국 북장로회 파송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 뉴저지의 프린스턴 신학교, 리치몬드의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경건한 보수주의 신학을 가졌으면서, 한편으로는 무디(Dwight L. Moody, 1837-1899)의 전도 집회와 열성적인 기도운동의 영향력을 크게 받았다.[17] 1886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특별훈련은 무디의 고향, 미국 메사츄세츠 주, 노스필드에서 열기를 더해 갔다. 무디는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설교자들과 선교사들과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헌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는 후원자들로 하여금 이 행사에 돕도록 하였으며, 매년 특별한

---

[17] 김재성, 「무디, 오 놀라운 복음전도자」(용인: 킹덤북스, 2013), 10.

집회에서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엘리트들이 넘쳐났다. 성경공부와 질의응답, 저녁 부흥회로 이어지는 단기 특수 훈련이었는데, 이를 일컬어서 "대학생 자원봉사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이라고 한다.[18] 여기에 운집한 수백명의 젊은이들은 도전과 감동 속에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다. 마침, 산업혁명에서 나온 거대한 스팀엔진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전세계를 향하여 나가도록 큰 배가 제조되었다. 세계 선교의 문호가 열리고 강대국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런 가운데 세계 선교의 첨병들이 복음을 들고 인도, 중국, 일본, 한국으로 건너온 것이다. 훨씬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여, 전세계를 향한 복음전파의 가능성을 널리 새겨주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하게 하였다.

셋째,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일치와 연합의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미국의 남북 장로교회를 비롯하여, 카나다, 호주, 스코틀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초교파적인 단일 장로교단을 한국에 세우는 데 합의하였다. 1905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재한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 연합공의회"를 조직하고, 한국에 단일한 예수교회를 세우고자 논의하였다. 비록 처음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918년 5월에는 장

[18] John R. Mott,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Address and Reports of John R. Mott* (New York: Associated Press, 1946).

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각각 20명을 대표로 하여 "조선예수교 장감 연합협의회"를 결성하여 친교하고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19] "조선기독교 협의회"가 되어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였으나, 1936년에 교리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해체되었고, 오늘날에는 수많은 개신교단의 연합단체들이 형성되었다.

초기 한국 주재 미국 북장로회에 소속되었던 선교사들은 시카고에서 맥코믹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Y.M.C.A.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을 활발하게 주도하던 무디와 함께 초교파적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였다. 1860년대에 미국 남북전쟁에 참여한 북군들을 도우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크게 활약했다. 그 후에 무디는 다소 신학적으로 부족한 지도자로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는 각 도시에서 수많은 회중이 모이는 연합 전도집회와 기도모임에 앞장섰다. 그는 일생 동안 여러 교파들에서 주장하는 신학적인 주제들과는 별로 상관하려 들지 않았고, 도리어 연합과 교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한국 주재 초기 선교사들은 서로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확고하여 충분히 다른 교단을 만들 수 있었지만, 미국의 남, 북 장로교회, 호주, 카나다, 영국 등이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단을 만들었다.

1901년에 접어들면서 장로교회 성도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치리와 체계적

---

[19]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19):227-9. 협의회 구성원들은 북장로교 선교회, 남장로교 선교회, 호주 장로교선교회, 캐나다 장로교 연합교회 선교회, 미국 감리교 선교회, 미국 감리교 연회, 남감리교 선교회 등이다. 이 밖에도, 영국 성공회, YMCA, YWCA,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참가했다. 훗날 이 모임은 "The Korea National Christian Council"이라고 부르게 된다. *The Korea Mission Field* (1925):21.

인 교회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선야소교 장로회 공의회"가 조직되었다. 첫 공의회는 선교사 24명, 조선인 장로 3명, 조사 6명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스왈론 (W. L. Swallon) 선교사가 피선되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국 목회자들에게 지도력을 이양하였는가는 다음 대목에서 알 수 있다.[20]

"조선인 총대가 공회에 참가하였으나, 아직 교회사에 미숙하고 조선인 목사가 없고, 장로된 자도 열세한고로 치리권은 계속해서 영어로 의사를 진행하는 회에 있었고, 조선어를 사용하는 회의에는 각 지역 총대의 친목하는 것과 교회사를 처리하는 규칙과 여하하게 처리할 것을 실습도 하고, 토론도 함으로써 유익이 많았다."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최초 7인의 목회자가 (서경조, 한석진, 송린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안수를 받은 후에,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역사적인 한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노회가 출범하였다. 전국 장로교회가 800여 교회에 이르게 되면서 한인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20] Allen D. Clark, 「한국교회사」, 심재원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68), 90. 민족주의 사관에서 쓰여진 한국교회사에서는 당시 선교사들에게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당시 한국인 목회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수준을 이해하여야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경배,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7), 10.

노회가 조직되었고, 비로서 한국인 지도자들이 교회법을 익히게 된 결과였다. 장로교회가 독노회를 구성하게 된 후, 한국 목회자들의 지도력이 마침내 빛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노회조직 당시 교세는 장로 53인, 조사 131명, 예배처소 984개처, 세례교인 17,890명, 원입교인 21,482명,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는 69,098명, 학교는 402개에 달했다.

이렇게 확장일로에 있던 한국교회는 1912년 9월 1일 평양 여자 성경학원에서 조선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목사 52명, 장로 125명, 선교사 44명 등 총 221명이 총회에 대표로 참가했다.

4.3. 길선주 목사와 부흥의 리더십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의 전환기마다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 목양적 지도자들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길선주 목사를 가장 먼저 손꼽게 된다. 그는 한국교회에 지금도 살아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목양적 지도자였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성격들은 열정적인 선교사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접목시킨 최초의 지도자들이 남긴 것이다. 엄청난

시련과 혼란, 정치적인 암흑 속에서 한국 초기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왕성한 부흥을 진행하던 시대에 우뚝 선 지도자가 바로 길선주 목사였다.[21]

한국교회사에 길이 기억된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행사들과 사건들은 길선주 목사 (1869-1935)가 시무하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사자, 길선주 목사의 목양적 영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분 자신이 부흥운동을 기획하거나,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초유의 역사적 사건인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1909년 최초의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하였고, 통성기도와 같은 열정적인 고백을 귀하게 여겼다. 길 목사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목회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22]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여 요한 계시록을 만 번 이상 읽었고, 거의 암기하였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 철저하게 성경중심의 설교와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신약성경 1백 번, 구약성경은 30번, 요한 1서는 5백 번을 읽었기에, 항상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구슬처럼 연결시키는 해석들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경본문을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의존하였던 정통주의 신학을 따랐던 것

---

[21]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 13권 3집 (1976년 가을호), 16.

[22] 영계 길선주 목사 저작집, 제 1권 (서울: 기독교서회, 1968), 55. 김린서, 「영계 선생 소전」, 저작전집 제 5권 (서울: 신망애사, 1951).

이다.

길선주 목사는 6천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대부흥운동의 여세를 전파한 부흥사였다. 그의 목양적 지도력은 주로 부흥회 강단에서 흘러나갔다고 볼 수 있는 바, 수많은 회심자들을 얻어내어 6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평서노회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에 쓰러진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한국초대교회에서 반짝이던 별이었고, 대들보이자 기둥과 같은 초석이었으며, 중후한 영향력을 발휘한 지도자였다. 박형룡 박사는 "아 한국교회의 별이 떨어지고, 기둥은 부러졌다"고 평가하였다.[23] 그의 장례식에서 한 조객이 명쾌한 문장으로 생애의 업적을 아름답게 압축하였다.

"선생이 기독교에 개종하심에 조선교회의 기초가 서고, 선생이 1906년 [정착된 교회의 정기 모임으로는 1909년임] 에 새벽기도를 시작하심에 세계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선생이 1907년에 성신의 불을 드심에 천하에 부흥이 일어나고, 선생이 목사 되심에 조선에 노회가 조직되고, 선생이 계시록을 만독하심에 무궁 세계의 길이 만인 앞에 밝아지도다. ... 선생의 손에 세례를 받은 자 3천인 이상이요, 구도자 7만인 이라 하니, 기실 40만 교인 중에 선생의 감

[23]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고신교단 50년사 총회역사 편찬위원회, 2002), 193.

화를 받지 아니한 자 적으리라.[24]

길선주 목사는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옥고를 치루면서도 옥중에서 계시록을 7백 번이나 읽었다고 알려져 있다. 길선주 목사의 목양적 지도력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삼고, 성도들을 일깨워서 건강한 믿음을 심어주는데 집중했던 목양사역에서 드러난다. 초기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전하고 가르쳐 준 복음으로 감동을 받고 전도에 앞장을 섰는데, 외래 종교라는 비난과 배척을 당하던 시대에 한반도라는 토양에 심고 자라는 초기 과정에서 길선주 목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가를 깨우쳐준 목양적 지도자였다.

길선주 목사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초기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은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 가난과 압박을 이겨내면서, 암흑기에 처한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을 이겨내면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 목양적 지도자들이었다. 길선주 목사와 함께 했던 김익두 목사, 최봉석 목사 등도 부흥운동에 앞장서서 전국을 순회하며 각종 부흥회에서 복음전파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다.

---

[24] 김린서, 「한국교회 순교사와 그 설교집」 (부산: 신앙생활사, 1962), 74-75.

4.4. 주기철 목사와 순교의 리더십

한국교회가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올바른 정의감과 헌신적인 사명감을 불어넣어주신 분이 주기철 목사이다. 순교정신을 각인시키고 생을 마감한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는 그 누구도 지우지 못하고 영원히 타오르는 신앙의 불길이 되었다. 신사참배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애국운동과 독립정신이 내포된 것이어서 일본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초기 지도자들 중에서 만일 주기철 목사와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양심마저 내던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에 크나큰 경종을 울리고 삶을 바쳤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고, 오직 한국교회만이 앞날의 희망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엄청난 확장을 하던 중에, 신사참배라는 시련에 직면하였다. 목숨을 던져서 우상숭배를 거부한 대표적인 지도자가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던 주기철 목사(1897-1944)이다. 그는 한교회의 담임목사를 넘어서서, 전국교회가 주목하여 설교를 경청하던 새로운 리더였다.[25]

---

[25] 어춘수, "주기철, 십자가를 지고 간 순교자,"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년」 (서울: 동연, 2015),

청년 주기철에게 영향을 준 목회자들은 경남 김해읍 교회 이기선 목사와 동시대 또 다른 부흥사로 감화력을 남긴 김익두 목사였다. 1936년부터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게 되어는데, 주기철 목사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급증하였다. 평양노회 이성휘 목사는 산정현 교회에 취임하던 날, 환영사에서 "주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 목사라고 해도 평양의 주인 목사, 조선의 주인 목사, 세계의 주인 목사로 오셨습니다"고 존경하는 언급을 하였다. 이 당시 산정현 교회에는 평양신학교 근처에 위치한 주요 교회로서, 박형룡이 부목사로 있었고, 송창근이 전도사로 부임했으며, 김재준이 재직하기도 했었다. 고당 조만식 장로를 비롯하여, 김동원, 유계준, 오윤선 등 시무장로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26]

"신사참배"라는 말은 원래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던 일본의 민간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천황을 조상신이라고 강화하면서, 천조대신 즉 태양신을 섬기는 신사를 지어놓고 신화적인 인물들과 전쟁영웅들에게 경배하라는 국민의식으로 변질되었고, 한반도에 살던 식민지 국민에게까지도 강요하였다. 우상화된 조상신들을 섬기는 신도는 일본을 지탱하는 국교가 되고 말았다. 1925년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라는 신사를 건립하고 한반도에서도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였다.

282-303. 김충남,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생애」 (서울: 백합출판사, 1971).

[26] 박용규, 「평양 산정현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235-6.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은 중일 전쟁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일제는 신사참배를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첫째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예배행위가 아니라 조상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강요했다. 둘째, 신사참배를 통해서 참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란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축적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천황의 신민이 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교사와 학생들이 다 함께 신사참배를 통해서 천황에게 경배를 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7년 12월, 일본의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모든 학생들과 주민들을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여 황국신민화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사각오"라는 표현은 주기철 목사가 1935년 12월 19일 평양신학교 사경회에서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본문으로 삼고 선포한 설교에서 제목으로 정한 것이다.[27] 1935년에는 이미 주요한 모임에서 주제설교자로 등장하고 있었는데, 5월에 금강산에서 개최된 장로교회 총회 목사 수양회에서도 설교를 맡아서 "예언자의 권위"라는 말씀을 선포하여 일제 경찰의 감시대상자가 되고 말았다.

1936년 7월부터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게 된 주기철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중요한 강조점을 보면, 하나님 중심사상, 철저한 신전의식, 은총의 승리, 진리를 위한 순교염원 등이다. 산정현 교회를 섬기면서 신사참배에 맞서서

---

[27] 김요나, 「일사각오」 (서울: 주성, 1987), 267.

그는 다섯 가지 기원이라는 소망을 피력한 바 있었는데,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철저한 기도는 성도들을 감동시켰으나, 일본 경찰의 사주를 받은 평양노회는 1939년 12월 18일 평양 남문 밖 교회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주기철 목사의 당회장 직분과 목사 직무를 파면하였다. 산정현 교회의 일곱 장로들 (방계성, 유계준, 박정익, 오윤선, 조만식 등) 의 직무도 정직하였고, 1941년 4월 23일에는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였다.[28]

1938년부터 1944년에 47세의 나이로 순교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 동안이나 투옥되어서 각종 고문을 견디면서 가난과 고독함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다. 주기철 목사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순결한 신앙 양심과 거짓이 섞인 타협주의자들의 차이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주기철이라는 이름 석자가 남긴 교훈은 지금도 한국교회에 살아있으며, 그가 남긴 순수한 신앙양심과 조국 광복의 염원은 후세 교우들에게 영원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타종교와는 달리,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한국교회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던 목양적 순교자였다.

---

[28] 민경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71.

4.5. 손양원 목사와 사랑의 리더십

손양원 목사 (1902-1950)는 한국교회가 직면했던 모든 수난을 온몸으로 감당해내면서 전세계에 큰 울림을 주는 사랑과 희생의 지도력을 남겼다. 그는 다섯 살 위가 되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신앙을 물려받았다. 함께 평양신학교를 수학했으며, 평양 감옥에서도 역시 함께 고초와 압박을 견디었고, 훗날에도 남다른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더구나 손양원 목사는 공산주의가 범람하던 시대에 거짓된 이데올로기마저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병들어서 사회로부터 천대받던 한센병 환우들을 품어주던 위대한 목양적 지도자였다.[29]

손양원 목사는 경남 함안에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다. 경남성경학교를 거쳐서 평양신학교에서 1935년 4월 5일부터 수학했는데 그가 졸업할 무렵이던 1938년부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집안의 가장이 5년여 기간을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남은 가족들은 가난과 핍박을 동시에 견뎌야만 했다.[30] 1939년 광주와 여수에서 한센병 환우들이 머물던 애양원에 부임하여 목회사역을 하는 한편, 일제의 강압적인 조치들에 저항하

---

[29] 안용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순교일대기」 (서울: 신망애, 1949). 박현정, 「하얀 불꽃: 손양원 목사 이야기」 (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1).

[30] 손동희,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서울: 아가페북스, 1994), 47.

여 신사에 불참배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일에도 양심을 지키고자 끝까지 노력하였다.

한국 사회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또 다른 정치적 대립과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적인 공격으로 좌파와 우파가 극도의 대립 속에 있을 때에, 1948년 10월 2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반란 사건을 일으켜서 3500여명을 살인하고 500여명이 행방불명 되었는데, 손양원 목사의 큰아들 동인, 작은 아들 동신이 순교했다.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평양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싸우는 동안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힘겨운 노동으로 가정을 돌보다가 늦게 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강팍한 심령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다.

여수시 둔덕동에 있던 과수원에서 1950년 9월 28일 한국동란을 일으켜서 지역을 장악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했다. 48세로 마쳐진 짧은 인생길에서 그가 남긴 목회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목양적 희생과 돌봄을 온 몸으로 구현하여 영원한 불꽃으로 감동을 남겼다.

세 가지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온 몸에 지고 목양적 목회자로서 사랑을 실천한 목회자가 손양원 목사였다. 첫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민족의 독립과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낸 고난의 삶이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사

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던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공경하던 목회자였다. 둘째, 애양원 목회를 통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한센병 환우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는 목자였다. 사회적 멸시와 천대를 받던 환우들을 품어준 목자로서 손양원 목사가 남긴 사랑은 예수님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셋째, 공산주의에 물든 자들에게 두 아들을 잃고 난 후,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 삼아서 용서하였다. 손양원 목사는 현실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 것이다. 두 아들이 순교 당하여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발표한 기도문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사항들로 나열되어 있다.[31] 공산주의 이념 앞에서 한국 사회가 양분되고 대립과 갈등을 반복할 때에, 손양원 목사는 스스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기독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박힌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의 실생활은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동안에는 고통이 심합니다. ... 참으로 못 박힌 자의 생활은 다음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32]

---

[31] 손양원, "아홉 가지 감사문,"「사랑의 순교자, 손양원 목사 옥중목회」(서울: 보이스사, 2000), 123-124.

[32] 손양원,「손양원, 한국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서울: 홍성사, 2009), 40-42.

손양원 목사는 기본적으로 신학자나 설교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실천적 목회자요, 고난의 활동과 처참한 생활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구현한 성자형 목회자였다.[33] 손양원 목사는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를 보여준 목양적 지도자였다. 그는 일제의 억압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는 치열한 목회현장에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였다. 가장 비극적인 목회현장에서 손양원 목사가 남긴 헌신과 겸손한 가르침들은 오늘날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가 순교한 곳, 여수와 순천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 투쟁과 사랑을 실천한 인물로 손양원 목사와 애양원 사역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손양원 목사는 한국교회의 표상이자 모범적인 인물로 숭상을 받고 있으니, 그의 감화력과 영향력이 훗날에라도 올바른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행이다.

4.6. 한상동 목사와 교회 재건의 리더십

해방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앞장을 선 지도자

[33] 차종순, 「애양원과 사랑의 성자: 손양원」 (서울: 홍성사, 2008).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였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은 평안북도에 이기선 목사, 평안남도에 주기철 목사, 경상남도에 한상동 목사, 전라남북도에 손양원 목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상동 목사(1900-1976)가 193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마산문창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은 전임자이던 주기철 목사가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한 바로 직후였다. 따라서, 한상동은 자연스럽게 전임자이던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면서 남긴 신앙적인 지도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고, 성실하게 목회 후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였다.

한상동 목사는 1940년 7월 3일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41년 7월 10일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어서 주기철 목사를 만났다.[34] 그 당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1938년 9월부터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참된 주님의 종들이 수많은 희생을 무릅 쓰고 순교자의 길을 택했다. 약 2천 여 명이 투옥을 당하고, 200여 교회가 폐쇄 당했으며, 50여명의 순교자가 나왔다.[35] 앞에서 언급한 주기철 목사를 위시하여 최봉석 목사, 최상림 목사, 박관준 장로, 김윤섭 전도사, 박의흠 전도사 등이 순교하였다.

한상동 목사의 역할과 사명은 해방 후 어떻게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느냐는 문제를 놓고서 발휘되었다. 한상동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경남 지역

---

[34]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277.

[35] Samuel A. Moffet,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75.

에서 활동할 때에 그의 주변에는 많은 협력자들과 동조자들이 모여들었다. 1939년부터 1940년 7월 3일 경남 경찰서에 검속될 때까지 한상동 목사 주변에는 주남선 목사, 이인재 목사, 최상림 목사, 최덕지, 조수옥, 이현속, 김현숙, 이정자, 백영옥, 배학수, 김인희, 박의흠, 손명복, 염애자, 이찬수, 황철도 등이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36]

신학자라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한상동 목사는 일본 치하에서 타락한 목사와 장로 등을 바르게 인도하여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만 5년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에 밝힌 소감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감사였다: "과거 5년간의 옥중 생활을 회고하여 볼 때, 그 생활 전부가 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추도도 없었다. 진실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생활전부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나는 확실히 체험했다."[37] 한상동 목사는 감옥에서 추후 계획을 기도로 준비하였다. "1944년 11월경이었다. 독일이 망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이어 일본이 망할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출옥의 일자가 금일인가? 내일인가? 하여 매일 기대하게 되었다. 나는 금년에 출옥하면 수양원을 만들어서 일본 정치 아래서 양심이 마비되어 타락한 목사들이 수양하여 조선교회에 앞날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며, 또한 신학교를 설립하여 진리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할 전도인을 기

---

[36] 안용준, 「태양신과 싸운 이들」(서울: 세종문화사, 1972), 291-297.

[37] 한상동, "옥중기," 「파수군」 29 (1953년 6월호), 22.

르며, 전도하여 이 나라를 기독교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개월 전부터 기도했다."[38]

한상동 목사를 비롯한 출옥 성도들은 변질되고 타락한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1945년 9월 20일에 발표하였다.

1. 교회의 지도자 (목사 혹은 장로) 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므로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회정화한 후 교역에 나설 것.
2. 권징을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자복할 것.
3.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4. 교회 재건의 기본원칙을 전한 각 노회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이것을 실행하게 할 것.
5.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할 것.[39]

그러나 일본의 탄압에 굴복해서 신사참배에 동원되었던 지도자들은 이런 권고와 방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배교한 자들은 교회 재건의 원칙들을 놓고서 출옥성도들이 독선적이라고 비난하였다. 하나님의 교회가

---

[38] Ibid.,

[39] 김양선, 「한국교회해방 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45.

객관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앞에 놓고서 정당한 권징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교권을 좌우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책벌과 회개에 대한 변명을 하였다.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는 각각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고 항변했다. 1938년 9월, 대한 예수교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홍택기 목사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다고 하면서, 일제에 강제로 할 수 없이 따라갔던 사람들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40]

해방 직후 한국사회는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중국 임시정부에서 돌아온 이들과 해외 독립운동파와의 연대를 놓고서 국내 애국인사들이 여러 정당으로 난립해있던 시기였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이 다 기독교에 관련된 분들이었지만 서로 경쟁이 치열하였고 당연히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정권 경쟁에 사로잡혀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국교회 재건의 방안을 놓고서 안타까운 사태가 전개되었다. 출옥성도들은 대부분 중량감 있는 신학자도 아니요, 대도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사들이거나 전도사들, 여성도들이었다. 더구나 해방

[40] Ibid., 46.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2), 510-514.

직후 목사들은 제일 먼저 세속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운동에 앞장을 섰다. 교회지도자들은 마땅히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배교의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자숙해야만 했었다. 그래야만 교회가 존경을 회복하여 재건될 수 있었고, 바르게 신앙의 위치를 잡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목회자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정부수립과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던 길이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어용목회자들은 앞장서서 교회권력을 장악하여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앞장을 섰다.[41]

한상동 목사는 한국교회의 재건 방안에서 기존 교단과 교회 밖에서 새롭게 갱신하자는 주장들과는 달리 일부 동지들과는 갈라서고 말았다.[42] 이런 복잡한 교회 재건의 혼미한 환경에서도 한상동 목사는 고려신학교 복구에 힘을 기울였다. 평앙신학교가 폐쇠된 이후로, 일본에 협력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던 조선신학교가 1940년에 서울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평양의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나갈 신학교가 필요했으니, 경남노회를 이끌어 가던 주남선 목사, 평양신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했던 박윤선 목사와 같이 힘을 합하여 1946년 7월 9일, 고려신학교 설립을 결정하고,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수립하기

---

[41] William Blair & B. Hunt,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 which followe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133-141.

[42] 김정일, "해방 후 재건교회의 탄생 배경 연구: 출옥성도 김린희, 최덕지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46 (2015), 194; "평양 형무소에서 출옥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옥중투쟁 강도에 따라서 개건운동의 방향을 달리하였다. 신사참배는 거부하였지만, 동방요배, 국기배례, 정오묵도 등을 수용한 쪽이 이기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이다. 일체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 항쟁한 부류로 최덕지, 김린희 전도사, 박신근, 이광록 집사 등은 이후에 재건파 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로 발표하였다.[43]

왜 한상동 목사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신학교를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전국 총회가 지원하는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하지 않고, 경남노회 산하에서 시작했던가? 그 주된 이유는 지난날 배교한 친일파 교권주의자들이 아직까지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총회에다가 인준을 요청해 보았자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44] 한상동 목사가 1946년 말에 경남노회 탈퇴 선언을 하고, 다음해 지지하는 67개 교회와 함께 새로운 노회를 건설하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45] 결국 이런 우려는 박형룡 박사가 1947년 10월 14일에 고려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가 1948년 4월 서울로 올라가고 말았다. 박형룡 박사는 신학교가 총회의 승인을 당장이라도 얻어야만 한다는 점과 총회 신학교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으므로 갈라서고 말았다. 설립 초기부터 교수로 사역해 온 한부선 선교사(Bruce H. Hunt)는 미국 정통장로교회 (Orthodox Presbyterian Church)가 파송한 선교사로서 교수로 영입되어서 강력한 보수주의 신학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 후로 부산에 교사를 마련한 고려신학교는 박윤선 목사를 교장으로 취임케 하고, 학교 교수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

43 이상규, 최수경 편집, 「한상동 목사: 그의 생애와 사상」 (부산: 글마당, 2000), 311-313.
44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325.
45 남영환, 「한국 기독교 교단사, 고신 교단사를 중심으로」 (서울: 영문, 1995), 326-330.

그러나 한상동 목사와 대립하던 김길창 목사 등은 1949년 3월 8일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남노회를 조직하였다. 1949년 4월 23일 서울 새문안 교회에서 모인 총회에서는 전권위위회를 구성하였는데, 결국 한부선과 한상동이 이끄는 경남노회를 승인하지 않았고, 고려신학교측을 교회의 분규와 소란을 일으키는 책임자들로 규정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들의 침략으로 한국동란이 일어나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런 와중에서도 경남노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1951년 5월 25일 부산 중앙교회에서 속개된 총회에서 경남 (법통)노회는 축출되고 말았다. 한상동 목사와 고려신학교가 속한 경남노회는 총회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46]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계승하여서 한국교회에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려 하였지만,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여러 후진들을 규합하여 박윤선, 한부선, 이상근, 김진홍, 김현철, 안용준 목사 등을 교수진으로 합류케 하였다. 안타깝게도 한상동 목사는 1960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측과 다시 합하여 총회장을 두 번 이나 역임하면서 2년간 동거하다가, 1962년 10월 17일 다시 고려신학교 복귀를 선언하고 되돌아온다. 하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46]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157-158.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지난 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격을 소유하고, 주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온 종이라도 부패한 인간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성인은 아니다. 한상동 목사도 지난 날 주를 위해 죽음을 택한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나 이 점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생애에서 이따금 기억시켜 주고 있다."[47]

4.7. 박윤선 목사와 경건한 리더십

한국 장로교회에서 최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지도자는 정암 박윤선 목사이다. 특히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신학자요,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분이 박윤선 목사(1905-1988)라고 할 수 있다. 박윤선의 수업을 들은 모든 신학생들과 그의 설교를 경청했던 거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경건한 삶과 인격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

박윤선은 평북 철산에서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평양 숭실전문

---

[47]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부, 1996), 161.

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뒤, 193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34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 학위 과정을 수학했고 (1936년), 귀국하여 평양신학교에서 어학을 가르치다가, 다시 도미하여 반틸 박사 문하에서 변증학을 1938년에 수학하고 돌아왔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48] 또한 화란어를 독학하여 바빙크를 비롯한 개혁파 신학자들의 글을 소화하였다.

박윤선이 남긴 감화력은 지속적인 성경연구와 기도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성경주석으로 극대화 되었다. 1946년부터 시작해서 1979년 2월까지, 한국인 최초로 신구약 전권 주석을 완성한 박윤선은 한국에 밀려들어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확산을 막아내고, 성경 중심의 개혁신학을 확고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박윤선의 성경주석은 각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참고하는 교과서였다.

또한, 한국교회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목회자들이 이를 소화하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이는 박윤선 목사가 기도 가운데서 집필에 몰두하여 남긴 저술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윤선의 영향력은 당시 다른 사람이 분간치 못했던 개혁주의 신학과 현대신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와 넓이만

---

[48]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55-56.

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이 담겨있는 경건의 샘물과 같은 역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제의 강압에 항거하여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으나, 1940년 신사참배를 수용하여 서울에 세워진 조선신학교에서 폭넓은 자유주의 신학을 학문적 체계로 널리 퍼트리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극심한 혼돈에 처했던 시기였다. 계속되는 논쟁에 휘말리다가 1953년에 조선신학교는 총회에서 이탈하여, 한국신학대학교가 되었는데 이런 시기에 박윤선의 저술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성실한 신학자로서 박윤선의 리더십은 1950년대에 한국교계에 널리 확산되어나갔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폭넓게 칼빈주의를 소개하여 한국 개혁신학의 폭을 넓게 확장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고려신학교 초기에 박윤선 교수는 성경신학, 변증학, 조직신학, 신약신학 등을 모두 다 가르쳤다.[49]

그러나 박윤선은 전혀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고려신학교를 떠나서, 서울로 옮겨가게 되었고, 결국 총신대학교 교수직에 취임하여 많은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게 된다. 곧 주일 성수에 엄격했던 고신교단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박윤선 교장은 당시 교단 지도자들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박윤선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스푸너 선교사를 배웅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부두에 나갔다가, 배가 출항하기까지 군인들의 제지로 인해서 한

[49] 박윤선 유고집,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주일 오전예배에 출석하지 못했고, 간단히 부둣가에서 전송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 이것이 주일성수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교단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50] 고려신학교 이사회는 "전국교회에 주일성수에 부덕 됨을 자인하고, 총회의 결정대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표시가 있을 때까지 중지하고 이후는 표시에 따라 다시 결정하기로 가결하다"고 발표하였다.[51]

이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후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사실상 교단 내부에서 실제 교회의 재건 방향을 놓고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즉 주일성수에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는 교단 지도자들의 박윤선 교장에 대한 비판은 교회의 재산권을 다투는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여 진통을 겪고 있었던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박윤선은 1957년에 일부 교회에서 예배당을 소유하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서 교인들 사이에 세속 법정에서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자, 그에 대해서 박윤선은 항의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신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나 있다가, 주위의 간청으로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박윤선의 결연한 반대의지와 처신에

---

[50] 박윤선, "주일 지키는 법에 대하여,"「파수군」104호 (1960년 11월호), 16. 고려신학교 이사회, "'주일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란 박윤선 목사의 논문에 답변함"「파수군」107호 (1961년 1월호), 45.

[51] 허순길,「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부산: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부, 1996), 132. idem,「한국장로교회사」, 425-431.

대해서 불만이 쌓여있었는데, 교계인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박윤선을 공격할 빌미를 얻게 된 것이다.[52] 박윤선의 주일 성수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성원하던 한부선 선교사도 역시 고려신학교 교수직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 몇 달간 박윤선은 부산에서 주석을 집필하다가, 1961년 2월부터 1964년 4월까지 서울 동산교회를 시무하였고, 총신대학교 신약교수로서 1974 년까지 10 여 년간 봉직하였다. 다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성경주석을 완간 하였다. 귀국하여, 1979년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하였다가 1980년 11월부터는 수원에 세워진 합동신학대학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1988년 6월 30일 별세하기까지 가르쳤다. 끝까지 한국교회가 교권주의자들에게 휘말리는 것에 반대하여 순수한 신학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 한국교회에는 걸출한 목회자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후진들이 신앙유산을 물려받아서 오늘의 교회를 형성하여 지켜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한 분들이 많은데,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걸출하고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희생과 죽음을 감당했던 남다른 용기와 경건을 겸비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개인적

---

[52]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108.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133-138.

인 사생활에서 감추고 싶거나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개인적인 인격이나 가정적인 모습들은 신학과 목회지도력의 이면에 들어있지만, 다소 유감스럽고 부족한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서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목양자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사역하고 살아가며,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성과 부패성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각 사람은 온전하기 보다는 부족한 면이 더 많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에는 가장 선한 목회자이자 사표가 될 분을 떠올리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앞에 열거한 분들이라고 말할 것이요, 특히 박윤선 박사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53] 하지만 그의 경건한 삶의 이면에는 다른 가정과는 다르게 독특한 애환과 고난과 역경도 많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54]

4.8. 석원태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총회를 주도한 석원태 목사 (1934-)는 십자가

---

[53] 남영환, 「한국 기독교 교단사」, 331-332.

[54] 박혜란, 「목사의 딸」 (서울: 아가페북스, 2014).

의 감격에 찬 호소력과 눈물이 담긴 불과 같은 열정적 설교를 통해서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기독교 연합 단체의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석원태 목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정통 신앙을 고수하고자 노력하는 고려파 소속 교회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석원태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단순한 한 가지 진리, 성도간의 소송사건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쾌하게 각인시킨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바에 따라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고소 사건은 세상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오직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교단 정치와 질서에 따라야만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을 세우기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에서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였다.

1973년 9월 제 23회 고신 (부산) 총회를 앞두고 고려신학교 교수들이 발표한 신학적인 입장에 반대하여 1973년 9월 18일 석원태 목사는 "신자간의 소송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55] 이를 계기로 하여 "반고소 고려파"를 세우게 되었고, 제 23회 총회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던 소송마저도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석원태 목사는 고린도전서 6장 1-11절과 마태복음 18장 15-20절에 근거하여, 신자들 사이에는 서로 고소하는 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

---

[55] 석원태, "고려파가 서 있는 역사적 입장과 소송건," 「고려신학」 제 11집 (2004):13-23.

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악의적인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해야 하기에 법정에 가는 송사가 타당하다.

1973년 6월 9일에 당시 고신 교단의 중요한 지도자들 사이에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놓고서 논쟁이 격화되었고, 여기에 석원태 목사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주장하는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판결하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 경향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기 시작한 석원태 목사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명쾌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일부 지도자들은 신자가 신자를 불신 법정에 고소하므로 우리 교단의 방향과 진로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송상석 목사도 과거에 그런 소송을 하였으니 우리도 소송함이 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 교단 행정에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기독 신자의 윤리표준은 성경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운동의 생명 중에 하나는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자체의 교훈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 지체 없이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함이 그 특질입니다.

세상 법관들의 재판에 교단 재단의 소망을 걸어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에 귀를 기울이며 소망을 걸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슬퍼하실 일인 줄로 압니다. 소송에서 어느 편이 승리했다고 해서 함께 형제 된 우리끼리 맺힌 장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체 말고, 우리들의 온갖 인간적인 입장과 경우와 위신을 고린도전서 6장 1-11절에 매장하고, 성경이 엄히 그리고 분명히 금한 신자간의 소송을 필자는 한사코 반대하고, 또한 소송을 취하하고 총회 자체가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석원태 목사는 서울에서 고려신학교 복교를 추진하였다. 1973년부터 석원태 목사가 발표한 글은 원리적으로는 이미 박윤선 교수가 정리한 바에 의하여 제시된 것을 복원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앞에 인용된 글의 배면에는 고신 교단의 상징적인 지도자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한상동 목사와 송상석 목사간의 갈등이 신학교를 장악하려는 입장으로 나뉘어서 법적인 이사장 송상석 목사의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문서 위조의 죄목으로 부산지방 법원에 고소를 제기해 놓았던 것이다.[56] 그 후로, 석원태 목사는 험난한 개척자의 길을 달려서 오늘의 고려파 교단을 형성해 놓았다. 1976년 10월 19일 서울 고려신학교 강당에서 목사 총대 37명과 장로 총대 41명이 참석하여 반고소파 고려총회가 출범

---

[56] 김태윤, "반고소와 석원태 목사에 대한 나의 소고," 「고려신학」 11 (2004), 106-107.

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977년 수적으로 우세했던 경남법통노회(마산측) 지도자들이 고려신학교와 총회를 장악하고 석원태 목사를 신학교에서 물러나게 하므로 그들과 결별했다.[57]

혼란과 분열의 와중에서 성경적으로 원리를 지키는 고려신학교 복구와 수호, 반고소 고려측의 계승을 달성하고자 석원태 목사는 불 같은 열정과 승부사적인 기질을 발휘하였다. 그래서 그가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보였는가를 평가할 때에 석원태 목사의 성역 50주년 기념문집에 나오는 표현들에는 "열정과 패기의 지도자" "감격" "승부사" "뒷심이 좋은 지도자" "사명에 미친 사람" "눈물과 꿈" 등이 들어있다. 그런 리더십의 면모에 대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8]

개인적으로 필자는 "나의 탯줄, 나의 영원한 스승이신 목사님"이라고 존경을 표한 바 있다.[59] 성경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고전 4:15)고 하였다. 필자가 석원태 목사님께 아비이자, 스승이라고 한 것은 고려파 교단과 신학교를 통해서 인재들을 양육해 낸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한 것이다.

석원태 목사는 세계 선교를 외치고 실천하여 넓고 큰 사명감을 불어넣어

---

57 「고려 (반고소) 25년사」 고려 (반고소) 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경향문화사, 2002), 106.

58 양문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석원태 목사," 「우성 석원태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문집」 (서울: 경향문화사, 2004), 80.

59 천환, "나의 탯줄, 나의 영원한 스승이신 목사님," 「우성 석원태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문집」, 90.

준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1980년 경향 선교회를 처음 만들었고, 고려 교단과 함께 68명의 선교사 파송, 세계 선교지에 200여 회원교회가 협력하는 공동체를 건설하였다. 고려신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로 퍼져나간 선교의 열매는 교회의 설립목적이자 본질이기에 실행한 모범적인 사역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만이 진실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서 그 누구에게나 과오와 오류가 따른다. 어느 한 개인이라고 해서 완전할 수 없고,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영향력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그치고자 한다. 석원태 목사는 개인적인 윤리문제와 노회이탈 등의 과오를 범하게 됨으로써, 2013년 12월 19일 교단전권 위원회의 결정으로 반고소 고려파 총회에서 제명을 처분 받았고, 일부 노회와 교회들이 분열하는 고통을 치르고 말았다.

끝으로 현재 한국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온전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목회자들에게나 크고 작은 공로와 업적이 있으며,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앞에서 거론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처럼 공로와 함께 허물과 과오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에, 현재 활동 중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공감하는 평가가 나오기 까지는 유보하

는 것이다.

현재 당면한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풀어야 할 지도자들의 덕목과 중요한 요소로서는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음에 틀림이 없지만, 개인주의와 극도의 쾌락주의가 범람하고 경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전달하는 목양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제 5 장. 목양적 리더십과 목회사역에 관련된 설문조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리더십 분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측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다. 앞 장에서 풀이한 주요 한국 목회자들의 리더십은 지금도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토양과 뿌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장로교회로서 하나의 독특한 교단의 역사와 정서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와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한국교회의 걸출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사라져 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목회자들의 윤리적 타락과 신학적 혼돈, 세속화된 개인주의와 추악한 쾌락과 탐욕, 끝을 모르는 명예욕, 상업주의적 물질주의 등으로 심각한 혼란에 직면해 있다. 21세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대안으로서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와 정신을 확고히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1]

한국교회 신앙전통과 성경적인 유산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양심적인 지도자들에게서 빛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정신은 점점 소멸되어가고 있고,

---

[1] 문석호, 「영적 지도자 : 영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서울: 신앙과 지성, 2000).

빛을 잃어가고 있다. 앞에서 거론한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물들과 위대한 지도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교단과 교회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과 고려측이다. 2015년 9월 16일 양 교단이 대통합을 달성하였지만, 그 속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측은 독립적으로 40년동안 한국교회의 한 축을 형성하여 왔었다. 물론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삼고 있는 성경적이며 보수적인 교단이다. 한국 장로교회 역사의 한 축을 형성하는 고려신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로교회의 건실한 교단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 가지는 역사적 유산과 신앙적 특징은 해방 직후 교회의 재건에 관련된 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5.1. 고신 교단과 고려파의 특수한 신앙전통과 유산

한국교회는 일제하에서 극심한 박해와 협박으로 인해서 사분오열되고 큰 불행을 겪었다.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신사참배 거부의 문제에 관련해서 어느 면에서든지 관여되어 있다. 일제의 간악한 방해와 압박 하에서, 일부 지도자들만 희생을 감수하면서 끝까

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였고 옥에서 투쟁하다가 출옥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전통에 대한 계승과 회복 방법론으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불행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 목양적 리더십 이해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점검하고자 하면서, 독특한 교단적 특성을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고신교단의 파생 역사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목양적 리더십에 관련된 통계조사에 앞서서, 설문 참여자들이 소속한 교단에 대해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과 그 복구를 천명하는 반고소 고려파 교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45년 9월 2일 부산진 교회에서 "신앙운동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약 20여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임을 가졌다. 두 주간이 지난 후에, 1945년 9월 18일, 경남노회의 재건을 선언하였다. "일본 기독교 조선장로교단"으로 한국교회가 흡수 재편되자 이미 1943년 5월 25일, 경남노회가 발전적으로 해산하였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 모임이었다.[2]

그러나 최재화, 강주선, 김상순, 윤술용 목사 등은 경남노회 재건을 위해서는 "참된 회개와 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노회 재건을 위한 독자적 자숙안을 발표하였다.

---

[2]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316.

1. 목사, 전도사, 장로는 일제히 자숙에 옮겨 일단 교회를 사직할 것.

2. 자숙기간이 종료되면 교회는 사직자에 대한 시무투표를 시행하여 그 진퇴를 결정할 것.[3]

여기에 핵심사항으로 목회자들은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 자복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개항이 발표되었다.[4] 이 자숙안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출옥한 한상동, 주남선 목사 등이 평양에 머물면서 아직 남한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추진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 배교와 타락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제안된 자숙안을 놓고서 경남노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말았다. 친일적인 인사들은 이 자숙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세력을 규합하였다.

1945년 12월 3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경남노회 47회 정기노회에서는 이미 선언한 자숙안을 따르자는 결의를 통과하였다. 결국 일제 말기에 교권을 장악하여 주도해온 김길창 목사를 따르는 이들, 출옥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상동, 주남선 목사를 따르는 이들, 온건 중도파로서 심문태 목사를 따르

---

[3] 김양선, 「해방후 한국교회 십년사」, 149.

[4]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294. 목회자와 장로의 휴직기간 동안에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과 신학교 복구 등이 주요내용이다.

는 이들이 각각 대립하여서 혼미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총회에서는 전권위원 5명을 파송하여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 1949년 5월 경남노회 (부산지방), 경중노회 (마산지방), 경서노회 (진주 거창 지방)으로 삼분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총회 전권위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출옥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한부선 선교사 (William Hunt)와는 교류하지 말 것을 결정하였다. 친일 행각을 통해서 교권을 장악해오던 인사들이 교묘하게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경남노회 노회장 이약신 목사가 1949년 6월 23일 총회에 항의서를 제출하였고, 1950년 4월 대구 제일교회에서 모인 제 36회 총회에서 전권위원장 김세열 목사의 보고를 기각하였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 전쟁의 발생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남으로 피신을 거듭하여 내려온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혼돈 속에서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36회 속회 총회가 부산 중앙교회에서 1951년 5월 24일 회집되었는데, 갈등을 빚어오던 경남노회 처리 방안이 결정되었다. 즉 총회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남몰래 모략을 획책하여, 출옥 성도들이 중심이 된 경남노회와 고려신학교를 축출하고 새로운 경남노회를 승인하였다.[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한반도에서

---

[5] 김양선, 「해방후 한국교회 십년사」, 157-158.

영적인 지도자들은 친일파 정리 문제를 놓고서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것이다. 출옥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은 경남법통노회라는 명칭으로 노회를 재건하였다. 이것은 한국장로교회에서 역사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 태동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각각 세력을 확장하려는 치열한 분쟁이 지속되었다. 경남법통노회와 경남노회 사이에 서로 맞서는 경쟁 구도 속에서, 경남지역에서는 서로 자신들의 노회에 가입케하려고 교회마다 쟁탈전이 극심하였다.

해방되던 해부터 시작된 경남노회의 처리 방안은 한국교회의 회개와 복구방안에 대한 것으로 오랜 시간을 끌면서 총회의 핵심주제가 되고 말았다. 한국장로교회는 해방 이후,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만의 남부총회를 개최하여, 1947년 제 32회기에 "제 27회 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참배라는 배교를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다.[6] 그러나 1951년 5월 24일, 제 36회 총회에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교권주의자들이 장악한 총회는 출옥 성도들이 중심되어 구성된 경남노회를 축출하고, 김길창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새로운 경남노회를 승인하고 말았다. 여기에다가 1951년 5월, 교회당 재산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차지하여야 한다는 입장 (마산 문창교회 송상석 목사를 중심한 마산측)과 반고소 입장 (부산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를 중심한 부산측)이 또

---

[6]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복음문서협회, 1983), 45.

한 나뉘게 된다.[7] 1952년 4월 29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모인 제 37차 총회에서는 경남노회와 고려신학교와의 결별을 선언했다.[8] 이후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총회가 출범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 1차 분열의 아픔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파 총회가 고신 교단으로부터 분열하게 된 것은 1973년 고신대학 교수들이 고린도전서 6장 1-11절에 대해 발표한 입장 때문에 일어났다. 신자들 간의 소송을 세상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키고자 석원태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1974년 제 24회 총회에서는 신자 간에 소송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하는 것이 가하다는 결론을 가결하였다. 이에 신학적인 변질과 생활의 불완전함이 초래된다는 신념으로 반고소 고려측이 분열하여 총회가 파생된 것이다.

고신총회에서 분리한 고려총회(반고소파)는 다시 2015년 9월 16일 다시 합동을 선언하였다.[9] "신자간의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었던 고려총회와 고신총회가 다시금 재차 성경적 원리를 선언하고 "성도간의 소송은 절대 불가"라는 합의에 따라 통합과 함께 교단 재정비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40년이 지난 2015년 9월 16일 11시에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에

---

[7] 「고려 (반고소) 25년사」, 54. 남영환, 「한국기독교 교단사」, 380-399.

[8] 김양선, 「한국교회 해방십년사」, 158-160.

[9] 「기독교보」, 2015년 9월 24일자, "교단 통합, 그 의미와 과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교단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신문. http://knews.or.kr/main/index.html .「코람데오」, 2015년 9월 16일자;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7

서 역사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 고신총회(신상현 총회장)는 9월 15일 제65회 총회 첫째 날 고려총회와의 통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고려총회(원현호 총회장)는 15일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저녁 11시까지 회의를 하여 통합에 99% 찬성하였다. 2014년 9월 이후로, 교단 총회장으로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해온 양 교단의 총회장들이 바로 통합 위원장 (김철봉 목사, 천환 목사)들이 앞장 서서 의견을 수렴하고 격려하여 왔다. 양 교단 합동 추진위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통합의 길을 인도하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풀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양 총회의 임원들과 통합추진위원들이 등단하여 악수례하고 서기 박영호 목사가 고려총대 8개 노회의 목사 87명 장로 49명 총 136명을 호명하여, 총 44개 노회 목사 총대 324명 장로 286명 전체 총대수 610명이 되었다.

5.2. 고려파 장로교회의 신학적, 목회적 강조점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교회에는 두 가지 신앙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하나는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전통으로 십계명에서 제 1,2계명

에 대한 충성된 신앙자세였다. 또 다른 하나는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 준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이다. 다소 율법주의라고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계명들을 중요시하는 자세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출옥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고신, 고려교단은 같은 정신으로 주일성수를 엄격하게 강조하였다.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안목을 갖게 되기까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앞에서도 이미 박윤선의 경건한 리더십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960년 7월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선 목사가 갑자기 미국으로 귀국하는 스푸너 선교사를 배웅하러 주일 날 택시를 타게 된 일과 주일오전 예배를 결석한 것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교장직을 사임하였다. 박윤선 목사는 "주일에 부득이 하여, 또는 자비 혹은 선행을 위해서 전송하고 예배당에 가려고 택시를 탔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것 뿐 인즉, 내게 잘못이 없으니 책임질 수 없습니다"[10] 고 해명했으나, 교단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0년 9월 총회에서 공적인 문제로 취급된 바, 고려신학교 이사회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결의를 하였다. 결국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져서 권고 해직으로 일단락 되었다.

---

[10] 박윤선, "주일 지키는 법에 대하여," 「파수군」 104호 (1960년 11월), 16.

한국 목회자들의 목양원리와 지도자로서의 강조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려파 교단은 독특한 원칙을 갖게 되어졌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신학교 이사회와 교수진 사이에 충분한 대화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서, 참으로 "슬픈 역사"가 되고 말았다.[11] 아무튼, 당시 고려파 교회들이 가졌던 엄격한 주일성수 생활이 가히 율법주의처럼 견고했고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12] "고신측 교회의 주일성수 생활은 외부로부터 율법주의라 불릴 만큼 엄격했다. 당시 교회는 개혁주의 주일성수관이라기 보다는 엄격한 청교도주의적 주일 성수 관념을 가졌었다"고 허순길 박사는 회고하였다.[13]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는 오래 동안 누적되어온 인간적인 감정들과 오해, 서로 극복하지 못하는 내적인 앙금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윤선 목사는 예배당 확보를 위해서 법정 소송을 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고, 이에 자극을 받거나 불편한 관계에 놓인 교회 지도자들이 포용의 덕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제 지금 세대의 교회들이 이런 신앙의 전통을 거론조차도 하지 않을 만

---

[11]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426-29.

[12] 고려신학교 이사회 일동, "주일 지키는 일에 대하여" 「파수군」 107호 (1961년 1월), 45: "이 사실을 목격한 어떤 타 교파 교인들이 보고, 고려파 신학교 교장도 주일 날 돈주고 택시타고 돌아다니느라 고려파도 별 수 없네 하여 이것이 말썽이 되고 이 문제가 부산, 대구, 기타 지방에 여론으로 떠돌게 되어 본 신학교 이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전국교회에 미치게 될 주일 성수 문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막기 위한 정신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본 이사회의 책임상 부득이한 행정적 조치로 교장직 사면을 수리한 것 뿐이다."

[13]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428.

큼, 세속화와 상업화가 가속화 되고 말았다. 교회 안에는 때로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총회가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성경에 입각한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도 있다.

이러한 교단적인 흐름이 남아있으므로 건전한 계승과 유연한 실천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 이처럼 보수적인 전통을 익히 들으면서 신학수업을 마친 목회자들은 과연 자신들의 목양 현장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역사적인 교훈과 반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3. 설문조사

1. 목양적 지도력 분석

이 논문에서 실천적인 목양현장의 내용들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집약하고자 한다. 설문조사1은 목양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만 서면으로 응답을 받은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질의한 내용은 앞에서 거론한 목양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영역들과 특징들이다.

설문조사1은 2015년 5월 5일-15일 사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측 (총회장 천환)에 소속한 교회 목회자들에게 인편과 우편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것이다. 모든 응답에 대해서 대조와 비교를 통해 처음 질문지와는 달리, 가장 높은 응답점수를 기록한 항목을 먼저 나오도록 하여서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1-1. 목회사역의 핵심 과제선정

먼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회사역에 임하는 신학적 기초로서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과연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어떤 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가를 정해서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응답자들은 1,2,3 등의 순위를 매겨서 설문지에 표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목회자들은 압도적으로 말씀선포의 사명과 예배를 중요한 임무의 순위를 설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에서 살펴본 목양적 리더십의 핵심 가치들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 총회 소속 목회자들의 목회철학에 그대

로 반영되어 있어서, 먼저 성경적 설교의 사명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오직 말씀으로만" (sola Scriptura!)를 핵심적인 기본신학으로 규정하고 따라가고 있다.[14] 선택지로 제시된 모든 항목들은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핵심 가치들이기에 어떤 것을 따로 분리시켜서 치중할 수 없고,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15]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 목회리더십의 항목들을 단순히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를 놓고 등수를 정해서 선별할 사항들은 아니다. 여기서 거론한 아홉 가지로 선택사항들은 모두 다 현대 교회에서 시행 해야 할 중요한 활동들이다. 다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은 것들은 말씀 선포와 예배, 경건생활을 위한 기도모임과 제자훈련 순으로 나타났음에 의의를 갖고자 한다.

가. 성경적인 설교와 말씀 선포.................................58명/109명(53.2%)

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예배중심 사역.....................17명 (15.6%)

다. 경건생활 훈련과 기도모임 강조.................................. 10명 (9.2%)

---

[14] John Frame,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0); 김진운 역, 「성경론」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2014), 15.

[15] John Murray,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6), v.1; 박문재 역, 「조직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19, John Fram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Belief (Phillipsburg: Presbyterian & Reformed, 2013). 머레이 교수와 프레임 교수가 소논문들과 강연에서 영속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한 항목들 중에서 간추린 것이다.

라. 제자화 훈련과 성도들의 신앙 강화와 양육........................ 7명 (6.4%)

마. 성도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의 소명 발휘.......................... 6명 (5.5%)

사. 성도들의 교제와 친목도모.. 5명 (4.5%)

아. 전도 행사 강화와 교회의 수적 양적 부흥......................... 3명 (2.7%)

자. 교회 이웃에 대한 자선과 구제, 봉사활동.......................... 2명 (1.8%)

차. 교회력에 따른 교회 행사 준비와 진행.............................. 1명 (0.9%)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대부분의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가) 항목에 주목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설교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혁주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사명감 속에는 말씀 중심의 신학적 전통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가 가)항목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 항목에 표현된 것은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것은 예배와 경건생활을 훈련시키고, 기도집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은 목양적 리더십의 핵심 과제는 매우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외형적 팽창에 매달리는 목회사역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건전한 판단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들의 마음 속에 아) 항목, 전도 행사와 교회의 수적 양적 부흥과 자) 항목 사회적 활동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것 등은 우선 순위에서 거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 항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목회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대교, 로마 가톨릭, 영국 성공회에서 강조해온 교회력과 절기 예배행사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개혁주의 목회자들의 건전한 신학적 기초가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계량적 통계 수치들은 안타깝게도 개신교회 출석자들이 현저히 퇴보하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항목에 표현된 바, 개혁교단의 일선 목회자들은 분명한 신학적 강조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 현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목회자들은 교회의 수량적 성장에 매달리려 하지 않는 의식을 보여준다.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예우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 지라도, 설문 1-1은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먼저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1-2. 한국 개혁주의 목회자들의 신학적 기초

한국개혁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사역에 임하면서 어떤 교훈과 가르침들을 중점 내용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고려 교단의 신앙적 전통과 개혁주의 신학교육에서 습득한 진리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드러내는 설문조사이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 장로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성경적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16]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재인식을 점검하려는 의미가 있다.

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권위 강조..................38명/109명 (34.7%)

나. 주일성수와 철저한 경건 강조................................ 34명 (31%)

다. 교회의 화평과 일치, 연합 강조........................... 18명 (16.4%)

라.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유산 강조....................... 15명 (13.5%)

마. 성도들의 은사발휘와 문화 변혁적 사명.................. 5명 (4.5%)

---

[16] John Frame,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hillipsburg: Presbyterian & Reformed, 2006); 김용준 역, 「조직신학개론」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2011), 참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교단의 목회자들은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사상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높이고자 함이 설문조사로 확실히 드러난다. 인본주의적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보다는, 지식과 물질적 우월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성공과 승리가 더 큰 기세를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가) 항목은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개혁주의 목회자들의 신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수호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함을 보여준다. 나) 항목은 각종 편리주의가 세속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물려받은 신앙전통 중에서 주일성수와 경건생활에의 강조가 중요한 목회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다) 항목은 건전한 개교회의 평화를 도모하는 목회적인 관심사가 지대함을 보여준다.

라)항목은 특히 고려총회가 교단적으로 강조해 온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유산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고려교단의 목회자들은 교단적 특색을 크게 드러내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나 철저한 교파적 이해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라) 항목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비교적 건전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 항목은, 변혁주의 문화관으로 사회참여와 활발한 현실문제 개입에 대한 것인데, 아직은 우선 순위로 다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보수적인 교단들이 영혼구원과 양육을 중심으

로 하는 목회사역에 대한 성숙과 반성이 있어야 할 부분이며, 장차 한국 개혁주의 정신이 앞으로 개선하고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설문조사 1-3. 목회자들이 인식하는 개선 과제들

한국 교회가 13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양적,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갱신해야 할 과제가 많다. 목양적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서 나오는 항목들에 대한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다.[17]

가. 모범적이며 존경 받는 윤리적인 생활................ 36명/109명(32.8%)

나. 성도들과의 소통부족 26명/ (24%)

다. 성실한 가정생활의 모범제시와 자녀교육................. 15명/ (13.6%)

라. 강력한 사명과 비전제시를 통한 카리스마 발산...........14명/ (12.8%)

[17] 심민수, "교회 리더십 승계의 실행전략," 「복음과 실천신학」 21 (2010):246-83. 이호영, "말씀 중심의 개신교 신앙,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사상」 48 (2004):284-94.

마. 헌신과 목회적인 돌봄 사역.................................... 11명/ (10.4%)

바.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은사사역................. 7명/ (6.4%)

목회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는 가) 항목에 표시된 모범적이며 윤리적인 생활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가) 항목에 대해 33%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주목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윤리의식 실종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존경심은 좁은 길을 가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생활의 경건에서 나온다. 한국교회에서는 최근 목회자들의 윤리갱신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난 십 여 년 동안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손봉호 교수는 "그동안 정직운동과 검소, 절제 운동을 일으켰지만 사회는 별로 정직하거나 검소해지지 않았다. 자승자박이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검소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의 건전한 생활과 성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절실하고 체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8]

설문조사 1-3에서 나) 항목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만한 의미가 있는 통계수치이다. 이 항목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아직까지도 지역

---

[18]손봉호,"기윤실 운동은 실패했다"2010년 2월 22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기윤실 총회 강연.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5315&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의 소통 부족이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치 이다. 현재 많은 목회자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 항목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세워나가며, 목회자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여 모범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목양적 지도력을 이해함에 있어서 앞장서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면서 명령하며 이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라) 항목에서 드러난다. 최우선 과제가 목회자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할 것과 목회자의 자녀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19]

한국교회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이미 자기 자신과 가정을 중심으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목회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항목을 최우선 과제로 표시하지 않았다. 즉,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오순절 은사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내적 치유사역이나 각종 은사사역을 좀 더 절실하게 격려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목회자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이 항목에 나타난 반응이 한편으로는 매우 고무적인데, 건전한 목회철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 항목이

---

[19]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조언자로서 목회자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교회와 기독교 가정생활 사역자들의 연구를 참고할 것. Garry Chapman, *The Five Love Languages* (Chicago: Moody Press, 1995); 장동숙 역,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대한 관심이 극히 적다는 것은 장로교회의 전통적 신학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목회는 보다 다양한 은사들의 협동사역이므로, 건전한 성령사역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야만 할 부분이다.

#설문조사 1-4. 한국 목회자들의 비전과 핵심가치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를 추정하기 위한 설문이다. 1-4설문에서는 목회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한국교회 일선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미래 사역의 과제들에 대하여 균형 잡힌 인식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다. 목회사역의 우선 과제로 선택할 항목들은 최근까지 가장 시급한 한국교회의 과제들로 제시된 것들 중에서 간추린 것들이다. 장차 목회자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비전들이 과연 한국교회의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려는 조사이다.[20]

---

[20] 이명구, "표절・세습 성 돈에 함몰된 합동 교회들," 「누스엔조이」 2013년 12월 7일자.

가. 긍정적인 언어와 희망의 메시지-비전과 사명감 제고.....38명/107명 (35%)

나. 전교인의 참여와 일치를 도모하는 화합적인 동기부여.............22명 (21%)

다. 지적인 자극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양육............................ 21명 (20%)

라.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대화와 방문에 힘쓰는 목양......... 20명 (18.3%)

마.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다양성을 채우는 행사................................. 6명 (5.7%)

가) 항목이 가장 압도적인 것은 현재 한국 교회의 중요한 흐름을 감당하고 있는 정통 교단의 목회자들은 말씀 선포를 통한 비전제시와 사명감 제고에 대하여 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 항목과 마) 항목과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와 구제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목회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과 성도로서 사명감을 제고하도록 하는 사역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 설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가장 어려운 임무이기도 하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30년간을 설교한 로이드 존스 박사는 설교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으

www.newsnjoys.or.kr/news/ articleView.html? idxno=194310. 코람데오닷컴. "한국교회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2013년 7월 25일자).

로 중요한 임무라고 역설하였다.[21]

그리고 비전의 선포와 설교 이외에는 세 가지 사항들이, 나), 다), 라) 항목이 엇비슷하게 목회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목양적 사역에서 나)항 치중해야 할 화합과 일치, 다)항 지적인 양육과 훈련, 라)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 등이 거의 비슷한 주요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목회자는 세상의 사업가처럼 성취목표를 숫자로나 양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목회사역에서도 더 자주 강조하고 힘써 나가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다양한 목회자 개인의 비전과 소질과 각기 처한 형편과 지역에 따라서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이처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개하고 싶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안타깝게도 이번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다수가 50대와 60대가 많은 관계로, 이번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한 분들의 통계가 분산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항목,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찾아서 격려하는 개인적인 배려와 맞춤형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목양의 중심축이 목표 지향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자들과는 달리, 성도들은 비전의 제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를 더 원하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목

---

[21] D. Martyn Lloyd-Jones and Bryan Chapell,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2012), 13.

회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방향과 성도들이 기대하는 방향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점차 벌어지고 말았다. 목회자들은 더욱 더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와 명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큰 부작용이 들어나서 성도들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상은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지속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말았다.

#설문조사 1-5.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자기 점검

이번 항목에 담긴 질문의 핵심은 목회자들 자신에 대한 점검을 묻는 항목이다. 성도들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선한 목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목회자의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넘어트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 목회자들은 목양적 사명을 감당해야할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체 한국교회가 큰 영향을 받는다.

설문 1-5항은 목회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대답하는 항목이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항상 목양에 힘쓰는 모범을

보여줬다. 목자가 앞장서서 양떼를 인도하되, 특히 "좋은 꼴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일"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물었다.

가. 본인은 목양적 사역자로서 양떼를 먹이는데 최선을 다한다........92명/107명(86%)

나. 본인의 성향이나 목회 스타일은 관리형 리더십이다........................13명(12.3%)

다. 본인은 신중한 합의형 리더라고 생각해서 의견조율에 힘쓴다.............2명(1.7%)

1-5항 설문조사에서 나온 최종 집계를 보면, 86%에 달하는 한국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목회 과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목양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건전하게 설 수 있는 토대가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목양적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직무에 임하고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양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닥쳐올 피해는 양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목자의 임무소홀은

일체의 변명에 해당할 뿐이며, 다른 궁색한 자기 합리화가 성립될 수 없다. 영국의 스펄존 목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모든 재료들과 가용한 연장들을 철저하게 동원하여서,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데 활용할 것은 권유한다. 심지어 음성도, 도서관의 책들도, 사회조직들이나, 기도까지도 모두 다 동원할 것을 권장한다.[22]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 27:23). 예수 그리스도의 부지런함과 헌신적인 전도사역이 목양적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인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일이라고 존 맥아더 목사는 강조한다. 주일날 두 편의 강해설교에 평생의 사역을 집약하고 있는 맥아더 목사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담아가려고 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현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에서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그레이스 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는 현대 교회에서 목양적 사역을

---

[22] Charles H. Spurgeon, *Lectures to My Stud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54), 7. John F. MacArthur & Master's Seminary Faculty, *Preaching: How to Preach Biblically* (Nashville: Thomas Nelson, 2005).

성경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23]

목양적 리더십은 통상적으로 조직의 극대화를 위해서 재능을 발휘하는 관리형 리더십이나, 구성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는 합의형 리더십이 아니라는 말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서부터, 예배 순서 담당자들의 선정과 양육, 시설관리와 행사 준비 등을 모두 다 돌아보아야 하기에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각도로 챙기고 보살피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설문조사 1-6.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처하는 사역

목양적 사역에서 사역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목양자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가차없이 비판하셨고, 단호한 심판으로 경고하셨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 24:24, 막 13:22).*** 사도 요한의 사역 말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독교의 본질을 혼돈케 하였다.

[23] John F. MacArthur & Master's Seminary Faculty, *Pastoral Ministry: How to Shepherd Biblically* (Nashville: Thomas Nelson, 2005).

이에 따라 사도 요한의 서신과 종말론적 계시에서도 이단에 대한 경계가 많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1서 4:1)***. 이어서, 사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새롭게 성장하던 초기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교훈과 경계를 주셨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라고 사도 베드로는 사역자들에게 경계하였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보다 명쾌하게 이단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 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후 2:1).***

지금 한국교회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공개적이며 공격적으로 기성 교회들에 맞서고 있다. 이런 사이비 유사 기독교 단체들은 건전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유인해가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듯이, 이 시대에 목회자들은 진리를 확고하게 선포하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만 한다.

"목자가 양떼를 이리떼와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가. 이단종파와 사이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80명/107명 (74.7%)

나. 성도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율적인 훈련이라 생각한다.... 19명 (17.7%)

다. 타 종파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편이다..... 8명 (7%)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거짓된 자들은 항상 건강한 성도들 주변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목회자들은 기도하며 항상 영적인 전투대열에서 깨어있어야만 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6).

정통 신학훈련을 잘 받은 목회자는 이단들이 성행하는 혼탁한 시대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주요 이단으로 여호와증인, 기독교사이언스, 몰몬교, 안식교를 꼽았었다.[24]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신종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정통 기독교에 비슷한 교단과 교파들에 대해서도 철저

[24] Anthony A. Hoekema, *The Four Major Cults: Christian Science, Jehovah's Witnesses, Mormonism, Seventh-day Adventism* (Grand Rapids: Eerdmans, 1995).

하게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25] 후크마 박사의 저술에 담긴 주요이단들 외에도, Urick은 미국교회 안에서 일부라도 거짓된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는 다음 교단들과 교파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왜곡된 내용들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비판하였다.; The Masonic Lodge, United Pentecostal Church, Modern Judaism, Roman Catholicism, The New Age Movement, Astrology and Witchcraft, Unitarian Universalism, Modern Liberal Protestantism, Church of Christ and Christian Church, Eastern Orthodox church 등이다.

지금은 한국교회에 각종 미혹과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다. 개신교 각 교단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유사 기독교로 규정한 단체들이 많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여러 교단들이 결의한 바에 따라서 자료들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대처해야만 하겠다.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할 대상들로는 공적인 교단에서 이단이나 불건전한 그룹으로 규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옛이름, 안상홍 증인회의 장길자), 통일교, 박대선 장로에게 영향을 입은 전도관의 후예들, 김기동의 귀신론과 그에게 영향을 입은 자들, 구원파에 속하는 여러 계열들 (권신찬과 그의 사위 유병언 그룹,

---

[25] Steve Urick, *Major Cults and False World Religion* (Bloomington: AuthorHouse, 2014), xii.

이요한, 박옥수 계열), 피터 왜그너를 따르는 신사도 운동가들과 마이클 비클 계열의 직통 계시파, 박윤식의 계시론, 류광수의 다락방, 빈야드 운동의 능력 전달자들 등이다.[26]

설문조사 1-6문항에서 가)항에 응답한 분들이 75%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5%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은 이단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본다. 정통 신학을 확고하게 정립한 목회자들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대처하는 것은 다소 안이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한국목회자들이 양의 탈을 쓴 자들을 연구하고 파헤쳐서 성도들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다.

#설문조사 1-7. 성도들의 개인전도와 교회의 증거사역 제고

목양사역은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로 이어져야 하고, 널리 확산되면서 전개해야 할 사역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 촌락과 마을로

26 「교회와 신앙」, http://www.amennews.com/news/.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훈련시켰고, 이를 거듭 시행하였으며, 세상 끝까지 전파하실 것을 명령하였다 (행 1:8). 초대교회의 주요임무는 전도와 증거와 봉사를 통한 이방세계의 복음전파와 선교 사역이었다.[27] 기독교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참된 행복과 진리를 나눠주는 종교이다.

먼저 목회자가 가져야 할 복음전파에 대한 본질적인 책무인식이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열매가 증거를 통한 제자삼기라는 것을 확산시켜야만 한다. 설문조사 1-7문항은 선교적 사명인식에 대한 시급성과 절박감에 대한 이해를 타진하는 것이다.

"목자는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듯이, 성도들의 생산성과 재생산의 극대화를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가. 개인 전도와 교회 전도사역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있다....50명/105명 (47.6%)

나. 전도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노력은 하지만 효과가 적다 40명 (38%)

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은사에 따라서 위임하고 있는 편이다 15명 (14.4%)

---

[27] Harvie M. Conn, *Evangelism: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1992), 12.

현재 한국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극히 부진하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반감과 무관심에 직면하고 말았다. 한국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전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무뎌진 것은 전도를 무력화시키고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바, 통계숫자에서도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이 29.2%로 가장 높았고, 불교 28%, 기독교 21.3%, 유교 2.5%, 원불교 1.3% 순이었다. 특히 무종교인의 신뢰도는 종교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무종교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역시 가톨릭이 32.7%로 가장 높았고, 불교는 26.6%인데 비해, 기독교는 8.6%에 불과했다.[28]

젊은이들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는 자녀 세대 영향 큰 50대층에서 신뢰도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전도의 열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이 곤경에 처해있고, 또한 새로운 교회 설립보다는 후퇴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설문지 1-7문항에 응답한 것을 종합해보면, 최근에 이들 목회자들 중에서

---

[28] 「기독신문」, "한국 성인 10명중 2명만 교회 신뢰," 2014.2.5.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71

무려 52%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투적인 열정을 상실하고 의지가 줄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의 적절한 전도방법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이 설문지 1-7 문항에 응답한 목회자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들은 전도사역을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1884년 9월 20일, 최초 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이래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반도에 희망의 빛이 전해졌다. 일제 강점기에 암울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백만인 구령운동"을 필두로 하여 축호전도의 열정이 넘쳐흘렀었다. 해방 이후 갈등과 전쟁의 폐허에서 솟아오른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공허한 인생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진리와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다. 앞으로 더욱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전파의 열정이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1-8. 협력하고 협동하는 리더십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와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협력하게 하는 협동사역을 실시하였다 (행 6:2-4). 목회자의 리더십은 홀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구성원들을 리더가 되도록 격려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현대교회도 긴밀한 협력과 상호 협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담임목회자를 중심으로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상하 수직관계가 일상화 되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장로교회 역시 당회의 권위와 권한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행동양식이 되어버린 유교적 사고와 행동 방식, 봉건 시대의 산물인 관료주의적 체제에 익숙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1-8 문항은 목회자들 사이에 협력목회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다.

"목자되신 주님은 양들의 주인은 좋은 목동들을 활용하였는데, 좋은 도우미와의 협업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가. 목사의 권위를 이양하여 부교역자들, 평신도들과 동역한다...52명/105명 (49.2%)

나. 담임목사가 개척한 교회라서 협력목회는 정말로 힘들다 ....29명(27.8%)

다. 부교역자나 평신도 지도자들과 분담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24명 (23%)

매우 솔직하고도 정확한 한국교회 목회현장이 이번 문항에서 파악될 수 있다. 모든 교회사역이 담임교역자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기 때문이다. 1-8문항의 나)항과 다)항목을 합하여 보면, 협력목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독자적인 행동으로 시행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평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는 절반 정도에 해당할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교회는 개척설립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행사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설립과 개척사역을 담당했던 목회자의 은퇴가 진행되었고, 교회부흥을 주도하던 세대가 거의 다 목회일선에서 퇴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당회원들이 새로운 젊은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담임목회자의 교체와 리더십 이양의 과정을 순탄하게 거치면서 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 동시에 수평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당회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단순히 목회자 위주로 협력해주던 세대가 아니라, 다양한 교회 사역에 참여하

고 주도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졌다.

다)항목에 응답한 목회자들이 23%에 해당하는데,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가 팀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이처럼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에만 의존하게 되면, 평신도들과 부교역자들은 항상 수동적이 되고 만다.

#설문조사 1-9. 한 영혼을 위한 목회자의 민감성과 유대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일일이 양들의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은 많은 가축을 방목하는 것 같지만, 양을 비롯한 가축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다. 영혼의 목자되신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며 기도하신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살펴보면, 항상 만나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풀어주셨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발휘해야 할 능력과 재능은 성도들에 대한 민감성과 대응능력이다. 목회는 낭떠러지 빠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구해가지고 돌아

오는 사역이다. 목양에 임하는 사역자들이 잃은 양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목장은 행복한 양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설문 1-9는 목회자가 얼마나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주고, 부르듯이,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표명하면서 돌보고 있습니까?"

가. 방문이나 목회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돌보고 있다....44명/105명 (42.2%)

나. 개인별로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주변 관련자까지 철저히 보살핀다...38명(36%)

다.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 개인 성도별 맞춤 양육은 불가능하다.23명(21.8%)

설문조사 1-9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가)항목과 나) 항목을 합하면, 거의 대다수 목회자들이 해당된다. 성실하게 목양사역을 한다고 자평하는 목회자들이 78%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중형교회 이상에 해당하는

데,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긴밀한 영적 교통과 양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현대 한국인들은 너무나 생업에 쫓기고 바쁘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는 부모들이 늘어났다. 한국에서 평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는 35초에 불과하다는 리포트가 나왔다.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부모와 대화하는 청소년들이 불과 5% 이하이다.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찌하여 이렇게 멀어지고 말았을까? 부모들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보를 얻는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은 SNS를 비롯한 스마트폰으로 첨단 정보와 지식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자녀와의 대화가 어렵게 되었다. 최근 각종 인터넷 매체의 범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부모와의 대화단절만이 아니라, 게임중독, 건강악화, 유해콘텐츠 접촉으로 난폭성이 더해지기 쉽다.[29] 부모는 그저 필요한 공납금이나 용돈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개별 성도에 대한 긴밀한 영적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다)항목에 응답한 목회자가 전체에서 22%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섯 교회 중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조차도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다. 급변하는 한국 가정과 유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말았다. 최근 한국의 공교육이 무

---

[29] 김정화, "스마트폰이 가족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년).

너졌고, 가정들이 파탄 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담임목사와 성도 간의 영적인 유대감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려서 관계형성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학벌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 멍든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자신이 없게 된다.

교회가 양적으로 확장되면, 그 다음에는 조직과 체계가 각 분야마다 갖춰지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는 여러 모임에서 의견을 듣기도 하며, 성도들에게 조언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리더들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회에서 좋은 지위나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역시 소외된 계층으로 치부되기 쉽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인 간구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목회 지도자들은 교회 밖에서 감당해야 할 직무들이 늘어나서 항상 분주하다; 노회와 총회 상비부와 임원회, 지역 교회 연합회, 각종 선교단체 행사와 해외 단기선교, 신학교 운영, 교단 업무, 동창회, 경목회, 체육행사 등. 이처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목회자로 활동하게 되면, 병들어서 고통 당하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등한히 할 수 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목회적 리더십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설문조사 1-10. 병든 심령의 위로와 치유사역

목양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모습은 시편 23편 4절에 담겨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 당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함께 임재하시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묘사되어있다.

설문조사 1-10에 담긴 문항들은 한국 교회에서 스트레스와 절망감과 질병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목회자가 돌보는 사역에 관한 것이다. 단순히 말씀과 기도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병들어 있는 양들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치유하며, 아픈 양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격려하며, 고통에 처한 자들을 격려하는 목회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가. 상처를 입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3명/105명(60%)

나. 특별한 치유사역은 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대처한다............41명(39%)

다. 목회상담을 배우고, 특별한 세미나 등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1명 (1%)

가)문항에 응답한 60%의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나름대로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 당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나)항목에 답한 40%에 달하는 목회자들은 현대인들의 중압감과 삶의 무게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극소수만이 현대목회에서 상담치유 사역을 찾아가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터득한 목회자들은 현대 목회의 한 부분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만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상처가 많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인간들이기에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각종 질병과 신

체적 고통이 주어진다. 제임스 밀러 (James Russell Miller, 1840–1912) 박사는 미국 연합장로교회 목회자로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이기에 「위로의 목회사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30] 목회자만이 진정한 위로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짧은 것이며, 보장이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 인생관에서 나온 안목만이 가슴에 희망을 넣어줄 수 있고, 매 순간에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좁은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기만 한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긴 안목에서 바라보면,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끝이 아니라, 문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기에 위로를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전인격적인 치유자로서 질병과 심리적인 왜곡과 마귀의 지배에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어루만지고 온전케 하였다. 이런 면에서 사도들은 훈련을 받았고, 역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다 (행 3:6). 야고보의 권고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실천하는 일에 나서야 하는데, 여기에 목회자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만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경쟁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

[30] James Russell Miller, *The Ministry of Comfort* (London: Hodder & Stoughton, 1901), 9: "Consciousness of immortality is a mighty motive in life."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3-16).

#설문조사 1-11. 평화를 도모하는 목회자의 인내와 노력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오염된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지만, 역시 사람들 사이의 악취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사람의 거짓됨과 부패성을 숨김없이 증언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대립이 극심하였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중요한 사도들 사이에서도 경쟁과 질투심이 있었다. 한국교회도 예외 없이 현대 사회의 인간적인 모순점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성도들 사이에 대립과 싸움, 성도 사이에서 주어지는 상처들이 많다.

설문 1-11문항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평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립적인 의견을 가진 성도들이나 지도적 그룹과의 충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가. 목회자의 목회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성도들까지도 이름을 부르며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고 있으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다 56명/105명 (53%)

나. 의견차이로 갈라선 성도들을 위로하고 화합방안을 제시하는 편이다....26명 (25%)

다. 수 차례 노력하였으나 끝내 살라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23명(22%)

응답자들 중에서 가)항목을 선택한 목회자들이 53%에 이른다. 가)항목을 실천하는 목회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숫자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매우 성숙한 인격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한국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의 반증이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재력

가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가)항목의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은 갖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려는 훌륭한 목회철학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모든 목회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을 가진 성도들과의 조화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온 일부 지도자들, 특히 당회를 움직이는 장로들과의 사이에 의견대립이 심각해질 경우에 교회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일부 반대하는 성도들이 의견주도층을 형성하는 경우에 심각한 충돌이 빚어진다. 한국에서 비교적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각종 분열과 대립의 상처가 깊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나)항목에 반응을 보여준 25%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점도 역시 한국교회의 목양자들의 놀라운 신앙적 성숙도라고 풀이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포용하고 넓은 마음과 용서하려는 의지와 많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목양적 리더십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최고의 모델로 따라가는 사역에서 발휘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모략으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주님은 결코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지시하거나 대립하지 않으시고,

인류의 부패와 거짓됨을 용서하시고자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자 겸손하게 인내하셨다.

다)항목에 의견을 표시한 목회자들이 22%에 이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동안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기에 결코 평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항상 자신을 잘 다스리며, 속히 지나간 아픔에서 회복하여야만 남은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 목회자들도 역시 인간의 감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목회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

#설문조사 1-12. 목양적인 배려와 격려

현재 한국교회 목회환경은 사회적으로 정서가 매우 불안하다.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급변하는 정치적 격랑과 세계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이상과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낙심할 때가 많다. 한국

에서는 매년 자살률과 이혼율이 극심하게 높아지고 있고, 전 연령층에서 5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에 고통하고 있다.[31]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시대에는 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국인들은 지구촌의 극한 경쟁과 첨예한 싸움들을 이겨내야만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나 은퇴 전후의 장년층이 모두 다 직업을 구하고, 생존하려는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충분한 배려와 위로를 받고 싶은 은퇴자들이지만, 고달픈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1-12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목자로서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가. 성도들의 열매와 업적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그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해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다............. 49명/105명(46%)

나. 내게 주어진 양이라고 생각되는 분들과는 대화하고 결정한다......... 45명(43%)

다.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과 미성숙한 부분들도 다 공개하고 있다........12명(11%)

---

[31] "우울증 환자 매년 증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14/0701000000AKR20140814067000017.HTML. http://newspeppermint.com/2015/01/21/

가)항목에 표시한 목회자들과 나)항목에 의견을 표한 목회자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항목에 해당하는 목회자들과 나)항목에 속하는 목회자들은 서로 다른 목회를 하는 경우이다. 가)항목에 속한 목회자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모습으로 교회봉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항목에 속한 교회들은 긴장과 충돌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두 그룹이 비슷한 숫자가 엇비슷하다.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바, 서로 대립적인 답변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설문조사 1-12에서 가)항목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은 설문조사 1-11에서 가)항목에 의견을 표한 목회자들이라고 연계시켜서 풀이해 볼 수 있다.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목회자는 칭찬과 격려와 노고를 위로하고 치하하는데 인색하지 않는다. 반면에, 교회 내에서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며 대립하는 성도들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은 지지하는 그룹과 교류하게 된다.

설문 다)항목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극히 적은 이유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의 인간적인 허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목회자의 가정은 완전해야 하고, 부부관계에서나 자녀들도 모두 다 모범적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양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장 어려운 시대에

목회적 열매를 나타내야 할 절심함이 위의 설문에 담겨있다.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어버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을 추구한다.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시대의 심리상태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목회자의 고통에 대해서 여유 있게 참아주려는 성숙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설문조사 참여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기본자료

목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12문항에 응답한 분들은 총 107명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측 총회에 소속한 목회자들이다. 설문에 참여해준 목회자들의 나이를 보면, 50대와 60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소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목회경력이 15년 이상이 되는 중견 목회자들로 경험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었다. 경기도, 호남, 경상도가 많았고, 서울지역이 적었다.

교회의 성도 숫자를 보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황이 반영되어 있다. 참여한 목회자의 절반가량이 총출석교인 수 50명 이내의 소형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1. 목회자의 연령

30대-6명(6%), 40대-16명(15%), 50대 45명(42%), 60대 40명(37%)

2. 지역별 분포

서울 6교회(6%), 경기 38교회(35%), 충청 4교회(4%), 강원 6교회(6%), 호남 31교회(29%),

경상 22교회(20%)

3. 목회경력

1-5년 10(9%) 5-10년 17(16%) 11-20년 33(31%) 21-30년 21(20%) 30년 이상 25 (23%)

4. 교회규모

50명 이하 32 (46%) 51-100명 16 (23%) 101-200명 7 (10%)

201-500명 10 (14%) 501-1000명 2 (3%) 1001명 이상 3 (4%)

#종합적 분석과 요약

설문조사 1에서 모두 12개 문항별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이어서 필자는 제 2장에서 풀이한 목양적 리더십이 한국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몇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한 예수교 장로교회 고려측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견고하고 건실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 말씀의 선포를 목회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둘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윤리적 과제와 성도들의 기대치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자기 점검에서 건실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다.

셋째, 목회지도력이 드러나야 할 비전과 미래과제는 긍정적인 언어와 소통 강화로 압축된다. 양육과 제자훈련, 교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 사역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전파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냉정한 시대흐름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론과 효과 면에서 고뇌하고 있다.

다섯 째, 이단이 성행하는 한국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측 교회의 강단에서는 철저히 개혁주의 신학의 유산에 근거하여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신학훈련을 잘 받았기에 능히 대처하고 있지만, 다소 이단 논쟁을 피하려는 목회자들도 있다.

여섯 째, 목회자들 대부분은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라는 목양적 사명감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교역자나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며 협동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일곱 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목양적인 관심과 배려에 열심을 갖고 있고, 열정적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바, 감성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고 돈독하

게 하는 목회자의 격려와 섬김이 더욱 중요하다.

여덟 째, 성도들의 상처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여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목회상담이나 치유목회의 장단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범 교단적으로 적절한 연구과정을 제공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아홉 째,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그룹도 배려하고 있고, 품어 안으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목회적 관심과 포용력을 발휘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제 6 장 예일교회에서 실행된 목양적 리더십

본 장에서는 예일교회에서 발휘된 목양적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목양적 리더십의 근간은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설교와 말씀 사역에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것들이다. 예일교회에서 지난 30년 동안에 증거 된 모든 설교와 성경공부, 제자훈련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것들로써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특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모든 사역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오직 말씀으로만 (sola Scriptura!)을 외쳤던 개혁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6.1. 예일교회 30년에 나타난 목양적 리더십

예일교회는 인천의 공장지대 거주자들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곳에서 시작된 교회다. 지금은 대도시의 외곽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하철 간석역이 개통

되어서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고, 따라서 번성하는 주택과 학교 시설들이 발전하게 된 주택지역의 한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1984년 4월 무렵 첫 시작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이다. 교회 개척 이후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도시 중심으로 생산과 상업에 종사하는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발전이 매우 더디었고, 차츰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들어 온 후에, 다수의 자녀들이 출생하여 주변의 학교가 새롭게 형성되던 지역이다. 1980년대 이후로 올림픽개최와 아시안 게임등을 유치하면서 인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 특히 도시 주변의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흥을 체험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꿈과 비전을 품고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가치체계와 참된 소망을 제공하는 교회로 찾아왔다.[1]

예일교회는 1980년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러했듯이 급성장한 한국 경제발전의 성장기를 그대로 체험한 교회이며, 전형적인 교회 성장의 혜택과 은혜를 누린 교회이다. 열악한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

[1] 이원설, 문영식, "21세기 목회환경 변화의 주된 특성," 「목회와 신학」 제 67권 (1995년 1월호), 45.

필자는 1984년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로 30여 년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전부였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단 한 번의 분란이나 분열이 없이 평안의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목양적 리더십 아래 헌신된 성도들의 성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일교회는 보수적이며 전형적인 복음중심의 장로교회로서 목양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필자의 목양일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사도바울처럼 성도를 온전케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각 사람을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사역의 초점을 두고 있다.

1) 개척교회 담임목회자의 목양적 신념

예일교회는 첫 개척자가 초기 1년을 넘기면서 다른 교회로 이명 되어갔다.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은 주변환경 속에서 과연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불분명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불과 몇 명 남은 교회를 맡게 된 필자(당시 전도사)는 초기 정착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였다. 교회다운 모습이 갖춰지기 까지 무려 10여 년이 흘러갔다. 교회가 지역 사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절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첫째로 필자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열정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거의 당시에 활발하게 일어나던 한국의 모든 개척교회 교역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지역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담임목회자의 신앙과 신학이 교회의 골격이 된다. 필자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말씀 중심의 설교를 생명처럼 지켜왔다. 그의 설교는 개혁주의 신앙전통을 통해서 형성된 확고한 계시중심 신학에 뿌리를 두었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은 변하게 마련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붙잡았다.

개혁주의 신학을 확고하게 섭렵하여 목양사역에 임하고 있는 담임목사로서 매 주일 성경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에 주력하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람의 힘이나 재능으로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파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으로 여겨왔다. 이런 결과는 지난 30년 동안 그의 설교의 영향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그 열매를 보고 있다

둘째, 목회자로서 필자는 예수님처럼 양떼들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기꺼

이 감수하고 살아가겠다는 헌신적인 섬김이 삶의 밑바닥에 담겨있다.

30여 년의 목회사역을 정리해보면 필자가 가졌던 생각과 행동들을 몇 가지 사례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은 담임 목사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다소 부득이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소개하려는 동기에서 간추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하나님 주권정신

가정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절대 돈을 차용하여 쓰지 않았다. 이는 개척 초기부터 부부가 함께 서약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을 각오하자고 했는데 오늘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어기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나. 자립정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분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시는 주인이시다".

1984년 4월 개척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당시 시카고 한인교회를 중심하여 4개 교회가 매달 개척교회 지원금을 보내왔다. 그 해 성탄절 카드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1985년 부터 예일교회는 자립합니다." 자립을 선포하고 더 어려운 교회 지원을 부탁드렸다. 그 후 몇 년 동안 주님의 광야 연단은 매우 힘들었으나 광야체험의 신비한 경험들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다. 개척정신

개척 후 몇 년이 지나면서 홀어머니와 처자식 부양의 가장의 책임은 물질 빈곤의 현실 앞에 비켜갈 수 없었으나 때마침 유혹이 왔다. 당시 교단교회의 서울 중형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이 왔다. 주택과 생활, 자녀교육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없어 기도하던 중에 개척의 샘을 파서 우물맛도 보지 못한 채 땟거리와 처자 문제로 개척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청빙 거절 통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라. 본(本)이 되는 실천의 정신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님의 목양은 이론과 지식이 아닌 실천과 삶 그 자체였다. 뒤돌아 보면 많은 시행착오와 허물이 많았지만 한 가지 놓지 않으려는 필자의 초심은 만삭되지 못한 자로써의 힘 써야할 최선의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아버지의 부성을 놓지 않고 목양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책임과 희생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다. 퇴임하는 그 날 까지 내 몫의 감당할 신자로써의 헌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네 가지 정신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두고 사역해왔었다.

모든 목회자들은 재물과 관련하여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넘어지게 된다. 재물에 관하여 순수하고자 했던 필자는 초기 개척 시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놓고서 기도하던 중에 때로는 갈등하면서 힘겹게 지냈지만, 결코 순수한 헌신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2) 예일교회를 이끌어 온 천환 목사의 목회철학

예일교회라는 이름이 지금 한국에 수십 개나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일"교회라는 이름과 같은 뜻으로 부르게 되는 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예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제일이다(Jesus First)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1984년 4월, 천환 전도사는 예일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시에 요한복음 12장 23-24절을 본문으로 하여, "인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인자의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희생하는 목양적 사역원리가 담겨있음에 주목하였고, 필자는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다. 이처럼 섬김의 목회원리는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으로 확산되었다.

초창기 개척교회가 정착하게 되면서, 예일교회는 안정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마침내, 1993년 1월 9일, 예배 장소로서는 세 번째이고, 교회당 건축으로는 두 번째가 되는 곳으로 입당하게 되었다. 예배당은 간석동 우성아파트 유치원 부지에 총건평 450평을 신축하였는데, 한국교회의 급성장에 발맞춰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때가 교회의 부흥의 파도가 일

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88올림픽을 개최하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세계화의 추세를 따라서 부흥 발전하였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 간석동 지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고 곳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교회에서 마련한 담임목사 사택 계약을 취소하였고 7년여의 세월을 교회 옥상에 마련된 옥탑방에서 지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기가 그지없었다. 그렇지만 담임목사의 희생과 헌신은 교회가 우선이며 성도들과 함께 고난은 나누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여겨왔다. 그 이후 교회개척 20년 만에서야 아파트에 마련된 사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런 섬김의 목양적 리더십이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예일교회는 또 다시 2003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다. 주변에 다시 좋은 예배처소가 있어서 이전하게 된 일이다. 담임목사는 그때까지는 단 한번도 교회에서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었다. 개척 후에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휴가나 휴식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개척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 한 달 동안 쉬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현재 예일교회가 위치한 곳에 세워졌던 예배당 건물 매입의 기회가 주어졌다.

필자가 안식하는 한 달 동안에, 매일 새벽기도를 장로님들이 맡아서 설교

하면서 인도하였다. 예배당 매입 여부를 놓고서 그 당시 앞장섰던 장로님들이 서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또 다시 교회당을 구입하게 되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모두 다 하나가 된 것이다. 그처럼 중요한 교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장로님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충성하고 있다. 홍준길 장로, 안세민 장로, 박성철 장로, 채원석 장로, 백용상 장로 등 모두 다섯 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모든 구입 절차를 장로님들이 진행했고, 새 예배당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004년 10월, 대지 700평, 건평 700평에 다시 간석 4동에 있던 예배당을 구입하였다. 물론 담임목사는 성도들보다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고 헌금하며 교회를 세워왔다. 어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모자라는 건물 대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도 하고 이자를 내기도 했고, 건축자금을 조달해야만 했는데, 담임목사가 앞장 서서 헌금을 해야만 했다. 조금도 주저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자로서의 철저한 헌신의 목양철학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서야 교회에서는 2015년에 담임목회자 은퇴적금을 시작하였다.

교회마다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간에 약간의 진통과 시련이 있는데,

예일교회는 안정된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일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전혀 분열이나 대립은 없었다. 특별하게 부유한 교인들이 없지만, 서민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교우관계를 정립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 성장도 거듭되어서 안정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다음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전 성도들에게 공포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 내용이다.

1. 예일교회 표어 : 변화! 회복! 부흥!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 (합 3:2)

2. 예일교회 목표(비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 1:29)

3. 우리의 생활 원리

1)매일 새벽기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

우시리로다"(시 46:5)

2)매 주일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3) 3대(3代)신앙계승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딤후 1:5)

4. 2016년 목회 방향과 특색

1)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목장을 통한 영혼의 가치와 선교의 비전을 확장해 나간다.

2)우리 교회는 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은 본(本)이 되는 신앙생활에 힘쓴다. (공예배, 십일조와 헌금생활, 이웃사랑, 서로섬김)

3)우리 교회는 다음세대(영유아부,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대 S.F.C. , 청년)을 키우는데 전력한다.

4)우리 교회 담임목사는 결혼, 주례, 장례집례, 각종 축하예배(돌, 회갑, 고희)등의 사례를 정중히 사양한다. 그 마음은 주일 예배 시 감사헌금, 혹은 헌당헌금으로 봉헌하면 된다.

5)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교인들의 애경사에 가족을 돌아보듯 적극 참여한다.

6)우리 교회 재정부는 헌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매월 첫째주에 게시판에 보고한다.

7)우리교회 담임목사는 교회가 제공하는 생활비 외에 외부 집회나 설교 사례비를 교회 헌당이나 장학금으로 드린다.

8)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빈자리 없는 부흥을 위하여 각 목장과 개인으로 전도하여 새생명을 양육하는 기쁨을 누린다.

9)우리교회 전 성도들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성전헌당 프로젝트에 전원 참여한다.

담임목사 천환

3) 본문중심 설교와 목양적 리더십

개혁주의 정통 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예일교회는 종교개혁의 유산과 전통을 따라서 철저하게 성경본문 중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메시지를 심화시키고 확장하여 왔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첫 부임 설교에서 나타난 목회적 신념과 목양적 철학이 그대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

되어왔다. 필자의 핵심적인 목양사역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며 증거하는 사역이었다. 다음에 나오는 도표는 신구약 성경을 균형있게 드러내는 설교임을 입증하고 있다.

예일교회에서 필자가 중점적으로 설교에 역량을 집중하였던 것들을 집약하면 다섯 가지 원리들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담임목사는 철저하게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강해 설교를 하였다. 이는 예일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근거가 되었다. 성경적인 본문설교를 통해서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감 있게 증거 하는 매우 소중한 적용사역에 힘써 왔다. 즉, 개혁주의 전통과 신앙유산을 존중하는 필자는 철저하게 오직 성경말씀에 입각한 본문 강해 설교를 강조하여왔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진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었다. 성경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것은 즐거운 사명이기도 하고, 두려운 책임이기도 하다. 준비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신선한 꼴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난 30년 동안 단순하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지속해 온 것을 증거하는 목록표이다.

<본문중심의 강해 설교 목록표>

년도	설교본문	기간
1986	베드로전서 강해	4,6~4,27
1986	종말론 강해	5,18~6,15
1986	빌립보서 강해	6,29~11,16
1986	갈라디아서 강해	12,14~12
1987	로마서 강해	1,4~9,27
1987	고린도 강해	10,11~12,27
1988	갈라디아서 강해	1,31~6,26
1988	사도행전 강해	7,3~9,4
1988	계시록 강해	9,18~12,25
1989	계시록 강해	1.8~5,28
1989	아가서 강해	6,18~8,20
1989	사도행전 강해	10,22~12~27
1990	사도신경 강해	1,7~3,25
1990	예수의 비유 강해	4,22~6,10
1990	성막론	7,1~11,25
1990	빌립보서 강해	12,2~12,9
1991	빌립보서 강해	1,1~3,3
1991	성경인물 강해	3,10~6,9
1991	에베소서 강해	6,23~8,4
1991	계시록 강해	8,11~8,25
1991	에베소서 강해	9,1~12,15
1992	에베소서 강해	1,7~5,3
1992	성경인물 강해	6,14~9,27
1992	사무엘상 강해	10,4~10,25
1992	스가랴서 강해	11,1~12,27

<본문중심의 강해 설교 목록표>

년도	설교본문	기간
1993	사도행전 강해	2,28~5,2,　6,13~8.29
1994	사도행전 강해	7,31~10,9
1995	성경인물 강해	5,29~8,27
1996	성경인물 강해	3,3~12,29
1997	계시록 강해	1,5~9,28
1998	창세기 강해	1,18~12,27
1999	창세기 강해	1,3~12,26
2000	창세기 강해	1,30~12,24
2001	출애굽기 강해	6,17~12,30
2002	출애굽기 강해	1,6~2,17,　3,3~12,29
2003	출애굽기 강해	1,5~4,13
2005	베드로전서 강해	1,16~7,24
2005	베드로전서 강해	7,31~8,14,　12,11~12,25
2005	베드로전서 강해	12,11~12,25
2006	성경강해	1,15~4,2,　5,28~10,18
2006	셀비전과 전략	12,3,12,　　24~31
2007	셀비전과 전략	1,7
2012	요한복음 강해	1,11~4,25
2012	계시록 강해	9,5~12,26
2013	계시록 강해	2,27~9,29
2013	전도서 강해	10,27~12,18
2014	예레미야 강해	1,16-12,21
2015	예레미야 강해	1,14-11,25

둘째, 예일교회의 강단은 항상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순수한 성경해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경말씀을 오직 성경의 다른 구문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풀이하고 증거하는 설교가 되려면 철저한 말씀 연구와 함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확신과 기초가 충실해야만 한다.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 성경은 불변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현재 동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가르침이다. 오직 계시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죄인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정립하여 나가도록 지침을 제시할 수 다.

셋째, 필자의 목양적 리더십은 나침반의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시대를 분별하는 각성을 주었고, 균형 잡힌 안목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강단위에 올라가서 담임목사가 성경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치 영적 전쟁에 나선 장군이나 군사와 같이, 성도들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벧전 5:8)를 외치게 된다. 본문중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요소가 되었던 것은, 시대를 분별하도록 자극하는 설득력과 호소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영적인 선지자로서 세상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두

려움 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 사역은 목양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도 하다. 영혼에 대한 각성과 함께, 성령의 위로와 치유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새롭게 충전되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 (요 17:3). 목양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필자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기도 하였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자 진리의 전파자로서 두려움 없이 깨우치고, 선포하였다.

다섯 째, 예일교회 강단에서는 그 어떤 특정한 성경말씀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성경을 전부 다 살펴보도록 전파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만! (*sola scriptura*)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 성경으로만! (*tota scriptura)*을 실현한 것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조금치라도 가감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모든 본문을 동등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6.2. 예일교회의 핵심적인 목양사역들

예일교회는 목자 되신 주님의 사역을 본 받아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목양사역을 실행해 오고 있다.

1) 당회원들의 협조와 섬김

예일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은 장로교회의 특성상 가장 핵심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당회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담임목사의 지도력과 당회원들의 연합된 협조로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예일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후원 하에서 당회가 하나로 단합하여 모든 교회 생활을 지도해 나오고 있다. 담임목사의 목양적인 섬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당회원 장로님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장로석이 따로 구별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예일교회는 본당 예배실 앞자리에 따로 구별된 장로석이 없다. 구별된 자리는 자칫 권위를 드러내거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회원들은 주일 점심식사의 안내, 배급, 설거지, 교회 청소 등을 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봉사하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와 실천은 교회 전체 분위기를 안정된 공동체로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다.

앞에서 교회당 이전과정을 소개하면서 당시 시무 장로님들의 기도와 단합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 후로도 당회원들의 기도와 말없는 봉사가 교회의 중추신경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어왔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세가 중요한데, 예일교회 당회원들은 모범적으로 목양적인 섬김을 실천해 오고 있다.

장로님들의 섬김은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들을 비롯하여 예배 봉사위원들이 무보수로 섬기고 있다. 재능이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보다는 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 예배 봉사자들이 상업적인 기교에 물들기 쉽다. 예배위원이나 봉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익힌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본질에 헌신하여 몸을 바치는 것이다. 예일교회 당회는 참된 예배의 섬김을 훼손하지 않고자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2)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교회

예일교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누고 베푸는 사역에 힘써왔다. 전체 경상비 헌금의 20%를 선교비, 전도비, 신학교 후원 등으로 외부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체 후원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학교에 보내는 전략적인 후원활동이다. 매년 신학교 헌금을 총 교회 예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왔다.

필자는 개척 초기부터 돕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고, 이를 실천하도록 기도해왔다. 어느 한 해라도 돕는 금액을 줄이거나 늦추지 않고, 한국교회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성원하여 왔다. 신학교는 좋은 교수가 있어야 훌륭한 교역자를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분의 신학교수 사례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으며,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92년 7월, 전라북도 정읍군 임암면 하부리 587번지에 전북 예일교회의 설립을 도와서 형제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후원하였다. 이것은 민족 복음화 사역에 동참하려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항상 관여하는 일이다. 이 교회는 농어촌 지역에 있던 고신측 교회였는데, 그 당시 섬기던 목회자가

임지를 옮기면서, 농촌지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돕게 된 것이다.

1984년 개척하던 첫 해에 시카고 한인교회, 경향교회, 석남제일교회, 성문교회가 개척교회 보조를 위해 매달 전도비를 보내와서 그 해 1985년부터 교회 자립을 꿈꾸고 그 해 성탄절을 앞 두고 개척교회를 후원해준 교회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우리 교회는 내년이면 자립을 할 것이니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교회자립 선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상당한 재정적 연단이 있었으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다. 지금 예일교회가 위치한 간석동 예배당 뒤쪽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마당을 개방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였다. 주민들은 예일교회의 마당을 통과할 때마다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과 화장실을 완전히 개방하여, 주민들도 언제나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청소년 학습을 위해서 교회시설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섬기는 교회를 지향하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고쳐주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알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3) 다음 세대의 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교회

교회가 소중하게 품은 자산은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젊은 일군들이다. 예일교회에서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별들" (stars)이라고 부르고 있다. 별은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레 근거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세상에서는 모두 다 명예와 돈과 인기를 갖추는 "스타"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예일교회에서는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이 진정한 "별들"이라고 인식하고, 격려와 성원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구체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사역에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 예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힘써오고 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길러서 사역하도록 하시는데 있었다고 본다. 이 땅 위에 젊은이와 청소년, 아동들을 미래의 주역이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된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준비시켜서 성경적인 비전으로 이끌어 제자화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매년 중요한 절기 예배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3세대

통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의 정신과 경건함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서로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다. 3세대 통합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소중한 미래의 꿈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

예일교회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별들"(STARS)이라고 호칭한다.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예일 아카데미와 독서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에 뒤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학습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도록 돕고 있다.

특히,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라나는 후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전반기 후반기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돕고 있다. 특히 신학교에 재학 중인 신학생들을 돕는 일과 예일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중학생은 한 학기에 50만원, 고등학생 한 학기에 1백 만원, 대학생 3백 만원, 모두 일 년에 약 2천만 원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도 결산에 나와 있다.

수년 동안 S.F.C. 지도교역자를 주변 중학교에 파송하여 매주 채플을 인도하도록 하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힘써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후원과 섬김의 사역은 지속될 것이며, 보다 더 규모를 확장해서 해외에 나가는 유학생 후원과 신학생 양성을 위해서 더 힘쓰고자 한다.

교단이 통합된 이후에도 고신 대학교와 고려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꾸준히 후원하고자 한다.

4) 제자 훈련과 양육 시스템

목양사역에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예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양육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 예일교회 사명 선언문에 제자훈련과 양육시스템이 담겨있으며, 성도들은 누구든지 양육프로그램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제자는 말씀과 생활을 모두 다 훈련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제자훈련 성경대학 과정에서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배우도록 지도하고 있는 일이다. 매주 수요일에는 기혼여성들 위한 제자훈련 과정이 따로 모이고 있다. 양육반에서 새생명 코스를 마치는 날에는 세족식을 거행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섬김의 본을 따

르고자 한다.

제자훈련의 방법이나 자료면에 있어서 예일교회가 다른 교회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목양철학은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체계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확신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성도들의 수준과 형태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지적인 학습으로 그치는 경우에는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같이 자라나야 할 겸손한 봉사와 경건한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반이나 여성도들의 성경공부에서나 혹은 각 소그룹 모임에서도 항상 오직 말씀만이 생명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혼선에 빠지게 된다. 제자훈련은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방법이 아니다.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조직은 오직 자신을 훈련하되, 하나님과의 교통을 실천하고 배워나가는 양육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과정을 졸업하거나 어떤 교재를 마스터 하는 것으로 제자훈련을 오해하는 것

이다.

5) 전략적 모슬렘권 세계선교

예일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하고 있다.[2] 예일교회에서 선교는 매우 중요한 공동과제이고, 기도제목이며, 목회지향점이다. 그래서 직접 단기선교를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

첫째, 예일교회는 선교적 비전을 숫자화 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총체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불태우고 감동적으로 후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소그룹이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있다. 불신자를 회심시켜 양육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며 1000명의 사역자를 준비하여 전 세계 100개 교회 개척과 100명의

---

[2] Darrel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224.

[3] Michael Frost & Alan Hirs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한국IVP, 2009), 11.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둘째, 중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유럽, 미주 등 세계 곳곳에 있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군을 발군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국제선교회 (Fellowship for International Mission, FIM)를 섬기고 있다. FIM 국제선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16억 이슬람권을 바르게 알아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기도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모슬렘에서는 전 세계에 176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총 선교사 17만 명 중에서 단지 6%만이 무슬림 복음화 사역에 가담하고 있다.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선교의 중심역할을 감당해 오던 서구교회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교세가 갑자기 후퇴하고 말았다. 서구교회는 교인들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향력이 쇠퇴하고 말았다. 반면에 비서구지역 교회들은 급성장 해왔다.[4]

한국 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된 전문선교사 파송기관은 17개교단 선교부와 82개 선교단체들이다. 교단과 교파 중심의 선교에서 전문선교 단체가 주도

---

[4] Scott Moreau, "Exciting and Challengind Realities in Mission Today," 강승삼 편집, 「한국 선교의 미래와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6), 160.

권을 갖게 되었다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선교단체의 특성은 초교파적이고 협력기관을 표방한다는 점이다. 점차 사회구조가 복합화 되면서 선교단체도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고 있다. 물론, 평신도 선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FIM 국제선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절실해 지고 있다. 선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도와서 선교에 동참케 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선교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선교학자 랄프 윈터 박사는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려면 선교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적합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일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 오고 있다. 주님에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자 노력한 결과로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실행해 나갈 수 있었다. 한국교회가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다.

셋째, 2007년 6월 10일 제 1호 예일교회 파송선교사로 유해석 선교사 부부를 후원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유해석 선교사는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FIM 대표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슬람권 선교사 파송과 훈련을 위해서 앞장 서서 활동하고 있는 유해석 선교사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의 파송선교사이다. 이제는 이집트 카이로 빈민촌에서 체험한 것들을 근간으로 하여 단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 웨일즈와 이집트 카이로 지역을 망라하여 무슬림 선교사역에 헌신해 오고 있다. 오랫동안 천환 목사와 교제를 나누어 온 관계에서 신뢰를 쌓았고, 담임목사가 신뢰하는 분이기에 성도들과의 유대감이 남다르다.

유해석 선교사는 1990년 4월 오엠 선교회 1기생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슬람권 선교전문가로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여러 권의 저술로 발표하였다.[5] 또한 영국 웨일즈에 세워진 선교센타에서 선교훈련을 받았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무슬림에게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웨일즈를 오고 가면서 그곳에서 한국으로 와서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일대기를 펴내기도 했다.

넷째, 몽골에서 활동하는 황필남 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해 오고 있다. 1991년부터 몽골에 입국해서 82개 현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왔다. 또한 현지에서 군인사역, 걸인 사역, 어린이 공부방, 번역사역을 겸하고 있다. 황 선교사는 몽골 지방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몽골인들에게도 순회사역을 하면서 해외까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중심사역은 연합장로교 신학교에서 확실하게 인재를 양육하는 일이다. 또한 박윤종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여 지도자 훈련과 선교사 양성을 도모하도록 협력하고 있다.

---

[5] 유해석,「높여주심」(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58.

6.3.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는 목양적 리더십

예일교회를 안정된 기조 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섬기는 중에, 교단을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필자에게 주어졌다. 때로는 대외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임하는 예일교회의 목회일정을 일부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3년과 2014년 두 해에 걸쳐서 고려교단의 총회장으로 섬기게 된 것은 담임목사와 예일교회가 함께 감당해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파 교단은 2013년 11월에 중심부에서 교단을 지도해오던 목회자의 윤리적인 실수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었다. 경향교회와 석원태 목사에 대한 처리 건으로 교단의 일부 교회들이 분립하게 되었고, 전체 교회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도력의 공백상태가 초래되고 말았다. 천환 목사가 총회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양에 전념해 온 신뢰감이 동역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려신학교의 졸업식 예배를 예일교회당에서 거행할 정도로 교단의 일부 교회 분열은 아픔을 남겼다. 2014년도에 제 68회 신학교 졸업식과 제 24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예일교회에서 개최됐다. 천환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이

런 전국대회 모임을 주최하면서, 고려파 교단의 각성과 깨우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키는데 주력했다. 남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배들이 남긴 순수한 신앙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데 초점을 맞춰서 교단 수습을 인도해 나갔다. 교단 조직과 허술한 체계로 인해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고려파 총회를 중심으로 전국교회와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이고 단합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15일 고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있었던 제 65회 총회에서 마침내 고려파와 고신측이 성경적인 원리에 합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을 이뤄냈다. 교단에서 제공한 역사적인 선언이 담긴 기념패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신총회와 고려총회 통합기념패"

고려총회 통합추진위원장 총회장 천환 목사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선교 130여 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고,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순교로 대처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제 26회 (1976) 총회 시에 성경 (고전 6:1-10)에 대한 해석차이로 안타깝게 분열되었다가, 이제 성경 해석이 동일함을 확인하였기에, 서로 통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한국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공감하고 제 65회 총회 시에 통합하기로 한다. (엡 4:1-6)

우리는 새 시대의 고신을 창출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고, 조국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

주후 2015년 9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

한국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단의 총회장과 연합단체의 대표회장직을 역임하였지만, 이처럼 교단의 통합을 순탄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5년 가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려파 교단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은 고신총회와의 통합을 이루었다. 고려파 총회 소속 200여 교회들 중에서 또 다른 계파로 이탈하거나 반발해서 뛰쳐나가거나, 또 다른 분열을 명문으로 갈라

지지 않고, 모든 고려파 총회 소속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통합에 참여하였다. 이런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게 됨은 전적으로 필자의 섬김의 리더십과 예일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힘입은 것이다. 전 성도가 총회장 후원회 회원이 되어 2년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회 경상비를 쓰지 않고도 총회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총회의 신학교 유지와 크고 작은 교단의 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성도들의 희생과 성원이 막대하였다.

예일교회는 교단 연합의 중추적인 사역을 이루는데 주춧돌이 되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고, 담임목사는 엄청나게 힘든 사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고신총회와 연합된 후에도 겸손하게 섬기는 목회자로서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제 7 장 예일교회와 목양적 리더십에 관련된 설문 조사

앞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예일교회의 목양사역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다음의 항목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양적 리더십에서 핵심요소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일교회 목회사역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1부, 12 질문, 2부 15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의 핵심 사항으로는 담임목사의 목양적 리더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교회 성장이나 목회 방법론을 추구하는 평범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리더십이 예배, 설교, 개인적인 관계, 행정과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정도와 차이를 구별하도록 질문한 것이다. 2015년 6월 7일, 14일 주일에 성도들의 서면 응답을 받았다.

7.1. 예일교회 30년의 목양적 리더십과 관련된 설문조사

먼저, 목양적 리더십이 예일교회의 목회 30년에 반영된 부분들에 관한 질문과 응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일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참여해 온 성도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 설문1. 기독교 신앙생활의 동기에 관한 분석

성도들이 예일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과연 누구와 어떻게 연관을 갖고서 등록하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문항이다. 예일교회는 3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가족 중심의 연대성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 우연한 기회에 자발적으로 찾아 나옴 ------------- 58명 (20.1%)

나. 기독교에 관계된 학교생활에서 권유를 받음 --------- 8명 (2.8%)

다.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들의 간청으로 ------------- 113명 (39.2%)

라. 교회의 전도 잔치를 통해서 --------------------- 25명 (8.7%)

마. 기타 전도, 권유, 이사 등----------------------- 84명 (29.1%)

총 288명이 응답한 이 첫 번 째 항목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좀 더 심각하게 책임져야할 목양적 임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예일교회에 정착하여 봉사하는 주요한 성도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가족 간의 연대가 깊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거의 39.2%에 달하는 성도들은 가족관계로 예일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주요 직분자들과 주요 봉사자들은 먼저 신앙생활을 하던 가족들이 예일교회에 소속되었던 분들이었고, 차츰 가족관계로 연계된 분들이 또 다른 가족의 간청으로 나오게 되어서 예일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냉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분들의 의견에서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진행하는 각종 전도활동으로 인해서 맺은 열매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된 분들이나 우연한 기회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분들이 많다.

■ 설문2. 교회와의 관련성을 맺게 되는 핵심연결 고리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된 예일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갔는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었다.

가. 담임목사의 설교와 영향력 -------------------------------84명 (28.2%)

나. 교회가 자택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 99명 (33.3%)

다. 가족이 다니고 있으므로 --------------------------------- 80명 (26.8%)

라. 교회의 규모와 시설이 좋아서 ---------------------------- 5명 (1.7%)

마. 교회 및 담임목사에 대한 주변의 평이 좋아서 -------- 30명 (10.0%)

이번 항목의 응답자들은 주요 제직들로서 점차 교회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 단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총 298명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33.3%에 해당하는 숫자가 역시 예배당의 위치와 관련되어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등록하여 정착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역시 가족들이 권유하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를 맺은 교회에 편안하게 정착하고 있다.

목양적 리더십의 일부인 목회자의 설교라든가 교회에 대한 평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성도들은 먼저 가족과 관련되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서도 역시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 평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일교회에서 주요 직분자들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비교적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목양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 설문3. 목양적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목회자의 목양적인 돌봄과 개별적인 배려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료이

다.

가. 관심과 도움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낀다 -------------119명 (40.1%)

나.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목회자의 배려가 있다 --------- 117명 (39.4%)

다. 내가 필요해서 간청하는 경우에만 접촉이 되고 있다 ---------35명 (11.9%)

라. 거의 목양적인 돌봄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26명 (8.9%)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297명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만족하고 있고, 역시 거의 동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들의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80%에 달하는 성도들이 목회적 배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약 20%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목회자들로부터의 사랑과 관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본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아흔 아홉 마리를 놓아두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배려와 관심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미래 과제 중에 하나이다.

■ 설문4. 영적인 자극에 관한 질문

예일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얻게되는 영적인 도전과 신선한 자극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는 문항이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질문 앞에서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 예, 거의 항상 도전과 영적인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 78명 (26.8%)

나. 가끔씩 강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63명 (21.7%)

다. 잔잔하게 은은히 감동을 받는 편입니다 ------------------- 107명 (36.8%)

라. 매주 별다른 자극은 없어도 말씀이 좋습니다 ------------- 43명 (14.7%)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전통을 계승한 예일교회에서 목양적 리더십의 핵심은 말씀 선포에 있다. 이번 항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통계조사 항목 중에서 건전한 교회인가를 점검해보려고 할 때에, 성도들의 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예일교회에서는 예상 밖으로 매우 긍정적인 통계가 나왔다. 총 응답자 291명 중에서 85% 이상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가,나,다 항목에 응답하였다. 강력한 영적 자극과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26.8%이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말씀선포를 통하여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다고 표시하였다.

목양적인 목회지도력의 핵심은 성경적인 말씀 선포에서 시작되는 만큼,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할 맑은 샘물, 즉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는 말씀을 제공하는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물론 성경해석은 일시적인 응용이나 인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학적인 기초와 주석에 기초하여 본문의 뜻을 살려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 설문5. 신앙 인격적인 성장에 관한 부분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모습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하는 항목이다.

가. 예, 저는 매우 달라진 새사람으로 정립 되었습니다 --------69명 (24.1%)

나.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141명(49.1%)

다. 아주 초보적인 신자로 조금 바꾸어졌습니다 ----------------67명 (23.4%)

라.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6명(2.0%)

마.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퇴보 하였습니다 ----------------------- 4명 (1.4%)

신앙생활은 항상 진보하든지 후퇴하든지 변화가 따르고 있다. 과연 같은 교회를 오래 출석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평가하고 있을까? 총 287명이 응답한 이 항목에서 자기진단이 매우 흥미롭게도 5번 항목과 유사한

형태의 답변이 나왔다. 70% 이상에 달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항목에서 가장 의미가 큰 부분은 교회에서 일상으로 듣게 되는 말씀의 감화력이 크다는 점이다.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은 예배시간의 참석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동반하는 바, 이런 영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을 통과하는 동안에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전한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된 결과이다. 이러한 좋은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고, 결과가 나온 것은 목양적 리더십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 설문6. 교회의 핵심 동역에 대한 평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예일교회의 지난 30년 동안 역사와 성장을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문항이다. 많은 항목들을 놓고서 1,2,3으로 등으로 우선순위 3가지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일교회가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내적인 동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1) 담임목사님의 설교

2) 심방

3) 성경공부

4) 담임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5) 역동적인 예배

6) 열정적인 선교

7) 성도들 사이의 친교와 교제

8) 기도와 중보기도 사역과 양육

9) 사모님의 헌신

10) 새벽기도

11) 교회시설

12) 새신자 양육과 관리

13) 사회봉사와 구제

첫째, 예일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제 1 순위로 소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드러낸 문항이다.

응답: 1) 148명 2) 1명 3) 9명 4) 31명 5) 8명 6) 7명 7) 46명 8) 27명 9) 2명 10) 3명 11) 3명 12) 11명 13) 3명

둘째, 예일교회의 성장과 발전에서 제 2 순위로 손꼽는 것에 대한 문항별 집계이다.

응답: 1) 32명 2) 16명 3) 39명 4) 38명 5) 16명 6) 17명 7) 33명 8) 37명 9) 9명 10) 7명 11) 5명 12) 18명 13) 5명

셋째: 예일교회의 성장과 발전에서 제 3 순위로 중요한 것을 지적한 문항들의 통계이다.

답: 1) 19명 2) 9명 3) 9명 4) 20명 5) 12명 6) 19명 7) 45명 8) 27명 9) 12명 10) 15명 11) 12명 12) 25명 13) 12명

위 항목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성도들은 총 311명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구분해 보도록 구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현재 나이는 다음과 같이 각 연령대를 골고루 반영하였다.

10대 57명 (18.4%), 20대 27명 (8.7%), 30대 46명 (14.7%), 40대 69명 (22.2%),

50대 57명 (18.3%), 60대 23명 (7.4%), 70대 11명 (3.5%), 미상 21 명 (6.8%)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일교회에서 직분과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다.

SFC (22명), 성가대(10명), 교사(14명), 기타 제직들, 집사, 권사, 장로 (265)

각각 남자와 여자 성도들로 구분해 볼 때에, 여성도들이 많았다.

남자-114명 (36.6%) 여자-175명 (56.3%) 미구분-22명 (7.1%) 총 311명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일교회에서 예배, 목장, 회의 등에 빈번하게 참석하는 분들이다.

일주일에 1회- 92명 2회- 53명 3회- 42명 4회- 28명 5회- 7명

6회- 5명 7회- 1명 8회- 4명 9회- 0명 10회- 5명

위에 열거한 많은 항목들 중에서 예일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우선 순위로 정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느끼는 목양적 리더십의 측면들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번 6번 문항은 각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가장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일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선택한 항목들은 결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활동들로서 필수적인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일교회 3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굳이 세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요청한 것은 핵심요소들을 압축해서 드러내 보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이들 문항들에 최우선 순위로 빈도수가 많은 항목들이 예일교회의 성장 동력에서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지난 30년 동안에 예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은 담임목사의 설교와 탁월한 리더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역시 성도들은 담임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예일교회가 건강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총 응답자 299명 중에서 거의 60%에 달하는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의 목양적 사역을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비중을 두었다. 다음으로 교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들은 성경공부,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친교, 기도와 중보기도 사역, 새신자 양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2. 예일교회 담임목사의 목양적 리더십에 관련한 설문

다음에 나오는 설문조사 내용들은 30년간의 예일교회 역사 속에 반영된 목회적 영향력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담임목사의 목양적 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다소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질문들 중에서 매우 민감하게 느낄 부분들이 있는데, 설문조사 안내문에서 각 항목은 현재 담임목회자와 교역자들, 혹은 교회 지도그룹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담임목회자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분이기에 조사하는 것이다. 담임목사의 목양적 지도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묻게 되는 질문은 총 15개 항목이며, 이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1번부터 5번까지 편차를 두고 그 중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대로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선택할 사항은 변별력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질문하는 15개 항목은 목양적 리더십 연구에서 이미 검토하였고, 살펴본 내용들을 반영한 질문들이다. 목양적 리더십이 예일교회에서 발휘되어진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정하였고, 지난 30년 동안에 형성되어 온 것들을 입증하려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응답에 참여한 성도들은 문항을 읽고서, 충분하게 생각하여 다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긍정적 반응으로 나가도록 설문지를 배열하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 그렇다. 5.매우 그렇다.

1. 목회적 배려. 담임목사는 성도 개인별로 자상한 배려와 관심을 쏟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

응답: 1번 6명(2.2%) 2번 21명(7.6%). 3번 102명(37.1%) 4번 82명(29.9%) 5번 64명(23.2%)

응답자들의 통계에 나타난 바, 예일교회에 출석하는 절반가량의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목회적인 관계성을 정립하고 있다고 본다. 총 응답자 275명 중

에서, 53%성도들은 담임목회자와 좋은 관계라고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47% 정도의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번 항목에서 담임 목회자가 더욱 더 개인별, 가정별, 집회별로 개인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2. 목회적 비전. 담임 목사는 교회를 이끄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응답: 1번 5명 (1.8%) 2번 9명 (3.2%) 3번 64명(23.2%) 4번 100명(36.3%) 5번 97명(35.5%)

예일교회에서 한 담임목사가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총 응답자 275명 중에 71.8%가 담임목회자의 목회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두 번의 총회장과 교단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온 성도들의 성원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자의 추진력과 지도력을 공감하는 성도들의 협력과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결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자극과 도전. 담임 목사로부터 성도 각자가 교회봉사에 충성하도록 고

취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응답: 1번 9명(3.3%) 2번 17명(6.2%) 3번 110명(40.5%) 4번 76명 (27.9%) 5번 60명(22.1%)

예일교회에 정착하여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특히 응답에 참여한 272명 중에서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담임목사의 지도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항목에서는 약 50%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통해서 교회 생활에 깊이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통계에는 약 15%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와 그들과의 연관성이 다소 느슨하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번 통계 조사에는 10대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교역자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다소 느슨할 수밖에 없다.

4. 전문성과 자질. 담임 목사는 신학적인 전문성과 헌신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 1번 8명(2.9%) 2번 8명 (2.9%) 3번 75명(27.2%) 4번 86명 (31.2%) 5번 99명 (35.9%)

목양적 리더십은 탁월한 전문가로서 능력이 나타나야 하며, 겸손하고 성실한 헌신으로 앞장서야만 한다. 예일교회에서는 총 응답자 총 276명 중에서 67.1%가 담임목사의 지도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목양적 리더십의 핵심으로 꼽아야 할 부분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로서의 성실함과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다.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로 목양에 임해야만 교회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5. 신뢰와 존경. 담임 목사가 대부분의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 1번 3명(1.2%) 2번 13명(5.0%) 3번 70명(27.1%) 4번 84명(32.6%) 5번 88명(34.1%)

예일교회에서는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총 응답자 258명 중 66%가 절대적으로 담임목회자를 따르고 있고, 우호적인 분들까지 합하면 91%에 달하고 있다.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소명의식을 재확인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써 유지할 수 있다.

질문1-5번까지를 종합해보면, 예일교회에서는 담임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전

폭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어서 목양적 지도력이 그 동안에 잘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교회가 안정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역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수적으로 양적으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었다.

6. 협조와 지체들의 연합. 예일교회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각부서와 조직이 협조적이다.

응답. 1번 12명(4.4%) 2번 43명(15.8) 3번 85명 (31.1) 4번 82명(30.0) 5번 51명(18.7%)

매주일 날마다 6백 여 명 이상이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예배와 교육과 친교에 참여하고 있는 예일교회는 여러 부서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협력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 관심이 없고, 각 부서간에 서로 잘 협조하는 체제라야만 목양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항목에 응답한 분들이 총 273명인데, 그 중에서 48.7%에 해당하는 성도들만 협조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저 보통이라는 답변이 31.1%인 것은 아직도 교회가 조직적으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7. 새가족 양육. 예일교회는 새가족 양육 과정이 잘 준비되어있고 시행되고 있다.

응답. 1번 8명(2.8%) 2번 28명 (10.2%) 3번 88명 (32%) 4번 76명 (27.7%) 5번 75명 (27.3%)

교회의 발전과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은 새가족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착시키는데 있다. 총 응답자 275명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양육 과정이 잘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일교회에 들어온 분이 있다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안내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해야만 한다. 따라서 예일교회에서는 새신자들과 담임목사와의 면담과 식사, 이어지는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 가입한 성도들의 정착률이 높아지게 된다.

8. 예배와 년도별 목표. 예일교회는 예배공동체로서 년 중 마스터 플랜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응답. 1번 8명 (3.1%) 2번 21명 (8.3%) 3번 75명 (29.5%) 4번 88명 (34.6%) 5번 62명 (24.4%)

이번 항목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예일교회는 각 계절과 성도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년 간 예배의 중심 주제들과 전체 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총 응답자 254명 가운데 약 59%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각종 예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일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개인들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함께, 진리 가운데서 올려드리도록 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자 한다.

9. 지역사회 봉사. 예일교회는 지역사회와 교회 밖 봉사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응답. 1번 12명(4.2%) 2번 40명(14.1%) 3번 125명(44.0%) 4번 61명(21.5%) 5번 46명 (16.2%)

예일교회의 대외 사역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와 교회 밖 봉사, 주변 거주민들을 향한 교회 친화력을 증강시키는 전도사역이다. 총 응답자 284명 중에서 지역봉사가 잘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이 37.7%에 그치고 말았다. 경로잔치를 통해 이웃을 향한 봉사를 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더욱 더 세상 속에서 약자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적으로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 서야 할 것이다.

10. 구제사역의 동기부여. 예일교회는 구제사역에서도 성도들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응답. 1번 8명 (2.9%) 2번 39명(14.5%) 3번 116명 (42.9%) 4번 66명 (24.5%) 5번 41 (15.2%)

인천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예일교회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다. 총 응답자 270명 중에서 교회의 구제활동과 대민봉사 사역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숫자가 39.7%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수치는 장차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예일교회가 주변에 살고 있는 최빈곤층을 향해서 구제사역에 더욱 더 분발하여야 할 분야라고 본다.

11. 예배참석과 헌신도. 예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높은 편이다.

응답. 1번 4명(1.5%) 2번 29명 (10.9%) 3번 120명 (45.3%) 4번 64명(24.2%) 5번 48명 (18.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됨의 근본이다. 총 응답자 265명 중에서 42.3%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리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삶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더욱 더 모이는 일에 힘쓰도록 예배 중심의 교회생활을 강조하고 격려해야 할 사항이다.

12. 충성과 자발적 참여. 예일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응답. 1번 5명(1.6%) 2번 43명(14.1%) 3번 104명(34.2%) 4번 101명(33.2%) 5번 51명 (16.8%)

신앙생활은 참여 속에서 훈련으로 단련된다. 총 응답자 304명 중에서 예일교회의 행사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비율은 50%로 집계되었다. 이런 분들이 예일교회의 중심을 담당하는 핵심 봉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일교회의 현재 당면 과제는 그런 숫자와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다. 급속한 저출산과 새신자의 감소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3. 복음증거와 글로벌 사역. 예일교회의 전도와 선교사역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응답. 1번 2명 (0.8%) 2번 11명(4.3%) 3번 86명 (33.9%) 4번 87명 (34.3%) 5번 68명 (26.8%)

예일교회는 개교회에만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해외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 전도 집회와 전도를 목표로 하는 행사를 자주 전개하고 있다. 총응답자 254명 중에서 4번과 5번에 표시했는데 합하면 61.2%가 전도와 선교사역에 대해서 활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일교회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로 나가서 땅 끝까지 확산하도록 보다 더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14. 자부심과 만족도. 예일교회의 성도들은 본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응답. 1번 4명 (1.5%) 2번 13명(4.7%) 3번 87명 (31.6%) 4번 95명 (34.6%)

5번 76명 (27.6%)

예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성도들은 총 275명 응답자 중에서 171명 (62.2%)에 해당한다. 다수의 성도들은 교회에 소속감이 확실하다는 통계수치이다. 하지만, 이번 문항에서 1번에서 3번까지를 택한 응답자들도 거의 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 분들은 예일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에서 그저 그렇다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예일교회는 좋은 교회이며, 올바른 진리를 깨우쳐주는 건전한 교회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긍지를 갖도록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15. 재정과 투명성. 예일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용도에 맞게 잘 운영된다.

응답. 1번 9명 (3.3%) 2번 20명 (7.4%) 3번 73명 (26.8%) 4번 82명 (30.1%) 5번 88명 (32.3%)

예일교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에 매년 일 년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으며, 집행이나 운용 면에서도 세밀하게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총 응답자 272명 중에서 62.4%가 예일교회 재정운용에 대해서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상에서 문항들에 대한 답변들과 지금까지 살펴본 각 항목에 대한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총체적으로 교회가 건전한 목양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회자에 대한 평가항목들에 대해서는 매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은 안정적인 교회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며, 목양적 리더십의 결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예일교회가 30년 동안에 담임목사의 목양적 리더십을 통해서 안정된 발전을 이룩하고 있음이 확연하게 입증되는 통계표이다.

물론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통계표에 반영된 일부 항목들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여 수정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도 많다. 담임목사는 성도들의 불만과 불평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만 한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도, 또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도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유리 상자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의 비판과 걱정이 쏟아지게 되어있다.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도모해

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논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드러내신 목양적 리더십을 따라가야만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새로 소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일교회에서 살펴본 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담임목사에 대한 것들까지도 평가하도록 성도들에게 질문하였고, 이런 항목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조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설문들을 직접 작성케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목양적 리더십이 30년 동안에 반영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통계들을 근간으로 하여 본 논문의 핵심인 목양적 리더십의 제고와 확산을 위해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한국교회에는 130여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마다 대립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세대가 성장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교회를 안정하게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를 품어주는 목양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속히 퇴조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시

키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속에 담긴 목양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들을 풀어나가야만 한다.

한국교회의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는데, 각종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 맞는 대안모색을 위해서는 지금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교회가 엄청난 변화와 급격한 퇴락에 직면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한다. 출산감소에 따른 인구의 축소가 한국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학교에는 지원자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교회는 절대자원이 되어야 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의 통계가 보여주는 바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개척교회들은 불과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실천적으로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목양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일반 리더십의 학문적인 이론들을 망라하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에 가장 큰 감화력을 남긴 지도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영향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였다. 또한 그러한 영향력 하에서 목회자로 일하는 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

로회 고려파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하나의 지역교회 인천 예일교회에 반영되어서 천환 목사의 목회사역 30여 년 동안에 성도들의 신앙체질에 잘 스며들어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21세기 퇴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 하에서,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목양적 리더십의 발휘를 위해서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함에 있어서는 전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조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화합과 연합을 추구하는 목양적 리더십이다.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철저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이 세워져야 한다. 하나 됨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주의적인 자기과시와 권위적인 지도력이 무너져야 하고, 예수님의 목양적 리더십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야만 한다.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되고, 각 교회마다 연합하는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자부심과 보람을 안겨주는 목양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교회의 화합과 통합은 부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요, 튼튼한 기초가 된다. 여기에 부흥의 감격과 열정이 솟아올라서 영적인 힘이 발휘된다.

둘째,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부흥과 새로운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교회는 성경적인 부흥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1] 이 논문을 통해서 성실하게 지역에서 부흥을 체험해 온 예일교회 30년 목회에서 발휘된 담임목사와 성도들의 목양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앞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임목사로부터 설교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과 영적인 영향을 얻어서 생각과 생활이 변화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부흥의 도구들은 곧바로 화합과 연합됨을 추구하면서, 목양적인 삶을 살고자 실천하는 가운데서 주어진다.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찾아오고, 열성을 갖고 전도하며, 희망을 품고 제자훈련을 받아서 성숙해 가는 모든 과정에는 담임목사의 목양적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흘러 내려가야만 한다. 그러한 목양적 영향력을 온 교회가 총체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가 목양적 리더십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목회철학에 정립되어야만 한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다시 기도하고 염원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은 지역교회에서 목양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야만 지역교회가 안정된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서 성경적인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일교

---

[1] Iain H. Murray, *Revival and Revivalism*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4), 10.

회에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잘 드러난 것이 바로 목양적 목회지도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목양적 리더십이 부흥이나 양적인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그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의미이다. 목양적 리더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세계 교회사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이 있다. 교회사에 나타난 사건들 속에서 세계 교회는 이미 몇 차례 부흥운동을 체험했었다. 목양적 리더십은 교회의 참된 부흥과 영적인 힘을 제공하여 왔다는 교훈은 미국 대각성 운동에서도 얻을 수 있다.

영적인 전환기에 처했던 미국에서는 1733년부터 1735년 사이에 요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1703-1758)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회개와 성령의 체험을 맛보았다.[2] 당시에 미국은 청교도 세대가 세운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퇴조하고 점차 유럽 각 국가의 식민지 상태 하에서 신대륙 전체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였다. 사람들의 관심사항은 더 화려한 마차와 카드놀이, 술집과 유행을 따르는 일이 되어버렸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수재로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에드워즈는 개혁신학에의 확고한 기반 위에서 회개를 외쳤다. 그가 매사츄세츠 노쓰햄튼 교회에서 선포한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

[2] Jonathan Edwards, *The Religious Affection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746; Reprint edition, 2013).

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은 1741년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부흥운동의 선언서에 해당한다. 수많은 저술과 설교로 영향을 끼쳤던 에드워즈는 당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안타깝게 질병으로 인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의 목양적 영향력은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그의 외손자 아론 버르 (Aaron Burr)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을 보좌하던 부통령으로 영향을 끼쳤다.

죠지 휫필드 (George Whitefield, 1714–1770)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개혁주의 설교자로서, 에드워즈의 영향력을 더 널리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는 1740년에 미국 13개주를 순회하면서 "대각성"집회를 인도하였다. 단순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아주 잘하는 '설교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은 존경과 영향을 끼쳤던 목양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지도자였다.[3] 이들이 전개한 부흥운동은 인간적인 기교나 방법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경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일어나는 회개운동이었다. 신약성경에 기초한 부흥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며, 자신들의 참혹한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성령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모든 부흥운동이 다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

---

[3] Harry S. Stout, *The Divine Dramatist: George Whitefield and the Rise of Modern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91), viii.

의 감정에 호소하고, 심리를 움직이는 이야기와 목소리와 음악 등의 방법들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일으키는 부흥주의자들의 운동은 심각한 폐해를 남겼다. 부흥회 시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집회들이 횡행하였고, 오순절 날의 체험은 개인의 신비한 영적 경험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저들 부흥주의자들의 설교와 선포의 중심에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었다. 1820년대에 찰스 피니가 일으킨 부흥운동은 전도와 은사집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새 시대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소위 전문 부흥사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을 낡은 유물이라고 방치하게 된다면,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다른 약속과 희망을 부채질 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한국교회에서 목양적 리더십이 소실되고 은사중심의 초자연주의가 범람하게 되면서 부흥회가 변질되고, 기도원이나 산에서 모이는 수양회와 특별집회 등이 신비주의로 기울고 말았다. 성도들은 그러한 기복주의에 물들었고,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새로 성장한 이성적인 세대는 산기도와 수양관에서의 모이는 집회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셋째,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과 부흥을 도모하고 교회가 목양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소생하게 되려면, 성경말씀과 개혁신학이 체계화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교회의 화합과 연합을 출구하는 목양적 리더

십이라고 해서 무조건 타협하고 혼란된 가치관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내적인 일치와 하나됨을 추구하되, 진리와 진실함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의 기본 원리가 확고하게 세워져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 예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하여 확고한 신학적인 체계와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어느 시대에 세워진 교회든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간에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사상과 참된 진리를 근간으로 해야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참된 주님의 교회는 예배당의 겉모습만으로 융성하게 보인다거나, 목회자들의 이력서에서 장식되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참모습이 드러나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성경적인 목양을 통해서 세워져 왔는데, 안타깝게도 큰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가짜 목양적 리더십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이미 유럽이나 미주에서 드러난 바, 상업주의적인 영향에서 교회가 벗어나도록 모든 관점과 인식을 다시금 바꾸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품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목양적인 자세와 태도에 집중해야만 한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세계 문화의 격동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목양적인 리더십이라야만 새생명의 원천이 공급될 수 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준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교회를 세우는 목양적 리더십은 확고한 성경적인 진리에서 대한 인식과

깊은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에서 나온다. 현대 신학자들의 왜곡된 교훈에 대처하는 확고한 목회자들의 신학적 성숙이 요청되는 것이다.[4] 목양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들은 먼저 철저한 세계관과 신학적인 기반이 확고해야만 한다. 필자는 그런 중요한 깨달음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 반틸 박사(Cornelius Van Til, 1895-1987)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확고한 인식을 제시한바 있다. 1932년부터 나오기 되는 반틸의 개혁주의 조직신학과 변증학은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저술에 기초하면서 당대에 저명했던 화란 철학자들 (D. H. Th. Vollenhoven, Herman Dooyeweerd)에게서 제안되어진 것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반틸 박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동하며 존재하는 까닭에, 하나님과 관련하지 않고서는 세상은 제대로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5]

목양적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는 견고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과 인식이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반틸 박사는 세상의 학문들이 진리를 주장하

---

[4] 문석호, 「현대신학의 이해 :철학과 신학과의 관계를 통해본 현대신학의 흐름과 그 내용」 (서울: 솔로몬, 2000).

[5] C. Van Til,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 In Defense of the Faith, vol. II (Phillipsburg; P&R, 1980). John Frame, *Cornelius Van Til: An Analysis of His Thought* (Phillipsburg: P&R, 1995). idem,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문석호 역, 「기독교적 □ 지식과 변증학: 신학을 위한 철학적 지식론의 해명과 변증학의 방법론에 관하여」 (서울: 은성, 1993).

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간결하고 적합한 인식과 비판을 제시하였다.[6] 즉, 합리주의자들은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임재, 본질, 무한성, 인과성, 모순율 등을 개념 그대로 채택해서 기독교에 대입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증거주의자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과학적 사실들과 체험적 증거들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제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에 대한 전제를 확고히 세워서 분명하게 맞서야 한다.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목양적 리더십은 이런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다분히 논쟁이고 변증적이며 대립적이 될 수밖에 없다.

목양적 리더십은 진리에의 확신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것이다. 목회자가 되는 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세상에 대해서나, 거짓 진리에 대해서나, 가짜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두려울 것이 없으며, 무서울 것이 없다. 세상의 허망한 가르침들을 가려내고 분별해 내는 정확한 안목이 있기에, 앞장서서 죄악을 척결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아무에게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목회관을

---

[6] C. Van Til, *Common Grace and the Gospel* (Phillipsburg: P&R,1972), 64, "The ontological Trinity will be our interpretative concept everywhere. God is our concrete universal; in Him thought and being are coterminous, in Him the problem of knowledge is solved. If we begin thus with the ontological Trinity as our concrete universal, we frankly differ from every school of philosophy and from every school of science not merely in our conclusions, but in our starting-point and in our method as well. For us the facts are what they are, and the universals are what they are, because of their common dependence upon the ontological Trinity. Thus, as earlier discussed, the facts are correlative to the universals. Because of this correlativity there is genuine progress in history; because of it the Moment has significance."

실천하는 길이다.

진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이 항상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려면,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에게나 성도들 앞에서나 아무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목양적 태도가 진리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양적 리더십은 거친 무리들과 저항하는 비진리에 맞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일사각오"가 성경적인 리더십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가 화합과 연합을 통하여 부흥하고 발전하는 목양적 리더십의 발휘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회개운동이다. 참된 회개는 진정한 성경적 부흥의 힘을 발휘하였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제한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에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중에 체험한 은혜가 확산되어 나가게 되므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점검하기를 그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이미 본 논문 제5장에서 압축한 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목양적 리더십이 재조명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전통과 자원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벌어진 회개

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성경 사경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였고, 회개와 풍성한 위로를 체득하였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목양적 리더십의 한국적 전형을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내려주신 가장 역사적인 축복이자 특별한 은혜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1909년 새벽기도 운동에서 찾아내야만 한다.

특히 회개 기도운동이 사경회와 부흥회, 성경공부모임과 기도모임을 통해서 갖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실천적인 모습들은 전 세계 그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고, 한국교회가 초기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확신한다. 한국교회는 이미 소중한 은총의 체험을 갖고 있다.

한국교회가 체험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기회였고, 특별한 은혜였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딤후 2:24). 돌트 신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중생을 가져오시며, 동시에 사람의 행동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풀이하였다. "이제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동되고 동기를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지 자체 역시 능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가 받은바 은혜를 인하여 믿고 회개하도록 촉구되는 것이다."[7]

---

[7] Canon of Dort, III-IV.12.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과 믿을 것을 동시에 주문하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회개와 믿음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막 1:15). 회개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 받은 증표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성도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탕자가 돌이키는 것이다 (눅 15:17-20).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확정하는 긍정적인 실천이다. 회개는 어떤 사람의 죄책에 대해서 심판하고 저주하며 고발한다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내는 용서의 약속에 연계되어 있다 (사 41-44:20, 암 9:11-14, 호세아 2:14-23, 11:8-11, 14:2-8 등).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막 4:12, 눅 24:47). 이를 풀이한 칼빈의 설명에 의하면, 회개란 옛사람을 죽이는 것(mortificatio)과 새사람을 살려내는 것(vivificatio)이다.[8] 나의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살아나는 것이다. 회개는 성령의 검으로 처절하게 자연인의 본성을 죽이는 것이며, 경건의 초보를 배우는 일이다.

---

[8] Calvin, *Institutes*, III.iii.8; " For from 'mortification' we infer that we are not conformed to the fear of God and do not learn the rudiments of piety, unless we are violently slain by the sword of the Spirit and brought to nought. As if God had declared that for us to be reckoned among his children our common nature must die."

회개운동의 모델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이고 있던 성도들이 엄청난 회개의 은혜를 체험했다. 평양신학교를 세운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세례자 교육과 지도자 양성을 지도하고 있던 중에 저녁집회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다. 당시 장대현 교회는 점차 부흥해서 여러 교회를 개척분립 했는데, 사창골 교회, 남문외 교회, 산정현 교회 등 여러 교회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윌리엄 블레어 (William N. Blair)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합됨을 설교하고, 서로 하나됨을 강조하였다. 가난하고 무지하던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어린 아이가 슬피 울듯이 마음을 토해내게 되었다.[9] 자신의 한 손가락 끝이 잘렸을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한 지체가 고통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 받는다고 말했다. 그 교회 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확실히 성령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있었다. 감격과 격정 가운데서 그들을 밀어 올려내는 강대한 힘의 임재에 며칠 간 충만하게 젖어 들었다. 그 감동의 격류는 통성기도와 통회의 울음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마치 영혼의 찬양처럼 들렸다. 살인, 강간, 그리

---

[9] 박용규, 「평양대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William N. Blair, *Gold in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3rd. edition 1957), 65. W. Blair & B. Hunt, *The Korean Pentecost & the Suffering which Followe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71-74; 김태곤 역,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85~89. William W. Blair,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The Korean Mission Field* (May 1907), 66이하. 방위량, 「그는 이렇게 믿었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불결함과 음욕, 도적질, 거짓말, 미움과 질투 등 부끄러움이 없이 고백했다. 사람이 힘으로 이런 고백을 강요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많은 한국교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창백해지고, 마루에 얼굴을 가렸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근원은 성경공부를 통해서 영혼의 감동이 주어졌기에 일어날 수 있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받은 영적인 감동이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순결을 사모하는 밝은 눈을 제공한 것이다. 그 어떤 요인보다도, 성경공부에서 빚어진 감화를 핵심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존 네비우스 선교사에게서 선교방법론으로 한국을 익혀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라는 방법론을 배웠다. 1890년 한국을 방문한 네비우스 (John Nevius, 1829-1893)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수재로서 중국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는 중국 산동지방에서 선교하는 동안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중국말을 배워서 직접 현지인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네비우스 선교사는 동양권 선교의 원칙과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선교사들에게 자신이 열매를 거둔 성경학습반 제도와 자립, 자치, 자전 등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10]

---

[10] John Nevius,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8). Charles Clark, "Fifty Years of Mission Organization Principles and Practise," in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한국교회 안에서 목양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안은 결코 구호에 그치거나, 막연한 개념이 아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의 선배들이 세워왔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여러 교단들이 계승하고 있다.[11] 사실, 이 논문에서 강조한 목양적 리더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의 면면에 담겨있던 참된 교회의 건설, 교회의 연합과 일치, 복음에의 헌신 등 가장 중요한 열매의 원천이었다.[12] 특히 이 논문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 교단과 예일교회 30년에 관련한 문항조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교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적 리더십이 발휘되게 한다면, 다시금 참된 교회의 영향력과 생명력이 강단에서부터 온 교회와 사회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향한 강렬한 기도가 집약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행복과 위로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순수 신앙이 회복되도록 목양적 리더십만이 확고한 대안이다. 한국인 최초 7인 목사 중에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확산시켜서 전국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수천 번의 집회를 열었고, 이것이 오늘까지 계승되어서 각 교회가 사경회와 심령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에 소망을 갖는다. 이제 한국교회에

(Seoul: John D. Wells School, 1934), 61-66. 김홍만, "존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신학적 재평가," 「개혁주의 선교신학」 8 (2014):370-391.

[11] 김재성, "한국 개혁주의 신앙의 형성과 본질 탐구," 「국제신학」 17 (2015): 9-44.

[12] 안병만, 이세령 편집, 「고신교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II」 (용인: 미래교회 포럼, 2014), 11-21.

집회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목회자들의 목양적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만 진정한 부흥이 회복될 수 있다.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앙전통을 통해서 형 성된 순교적 신념과 부흥신앙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자료1. 설문조사 문항 1.

한국교회의 목양적 리더십에 관련된 설문조사

1. 귀하가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목회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 2, 3 등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경적인 설교와 말씀 선포 ( )

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예배중심 구현 ( )

다. 교회력에 따른 교회 행사 준비와 진행 ( )

라. 성도들의 교제와 친목도모 ( )

마. 경건생활 훈련과 기도 모임 강조 ( )

바. 성도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의 소명 발휘 ( )

사. 제자화 훈련과 성도들의 신앙 강화와 양육 ( )

아. 전도행사 강화와 교회의 수적 양적 부흥 ( )

자. 교회 이웃에 대한 자선과 구제, 봉사활동 ( )

2.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목회사역에서 강조해온 주요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1,2,3 등으로 순위를 매겨보세요.

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권위 강조 ( )

나. 주일성수와 철저한 경건 강조 ( )

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유산 강조 ( )

라. 교회의 화평과 일치, 연합 강조 ( )

마. 성도들의 은사발휘와 문화 변혁적 사명 ( )

3. 귀하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부족한 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1,2,3 등으로 매겨주세요.

가. 성도들과의 소통부족 ( )

나. 모범적이며 존경 받는 윤리적인 생활 ( )

다. 헌신과 목회적인 돌봄 사역 ( )

라.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은사사역 ( )

마. 강력한 사명과 비전제시를 통한 카리스마 발산 ( )

바. 성실한 가정생활의 모범제시와 자녀교육 ( )

4.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순위로 1,2,3 등으로 순위를 매겨주세요.

가.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대화와 방문에 힘쓰는 목양 ( )

나. 긍정적인 언어와 희망의 메시지-비전과 사명감 제고 ( )

다. 지적인 자극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양육 ( )

라.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다양성을 채우는 행사 ( )

마. 전교인의 참여와 일치를 도모하는 화합적인 동기부여 ( )

목양적인 리더십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수님의 목양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양떼를 이끄는 선한 목자의 지도력이었습니다. 목자가 앞장 서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육간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감동적으로 베풀어주셨습니다. 현재 목양하는 사역자로서 귀하는 "목자가 앞장서서 양떼에게 꼴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일"을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가. 본인은 목양적 리더로서 생명의 꼴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나. 본인의 성향이나 목회 스타일은 관리형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 )

다. 본인은 신중한 합의형 리더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인 의견조율에 힘쓴다

( )

6. 목자가 양떼를 이리떼와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가. 이단종파와 사이비 유사 종파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 )

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인 훈련이라 생각한다 ( )

다. 타 종파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편이다

( )

7. 목자는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듯이, 성도들의 생산성과 재생산의 극대화를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가. 개인 전도와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사역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있다

( )

나. 전도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서, 다소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가 적다

( )

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은사에 따라서 위임하고 있는 편이다

( )

8. 목자되신 주님은 양들의 주인은 좋은 목동들을 활용하였는데, 좋은 도우미와의 협업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가. 담임목사의 권위를 이양하여 부교역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과 동역한다 ( )

나. 부교역자나 평신도 지도자들과 분담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 )

다. 우리교회는 담임목사가 개척한 교회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정서적으로나 교회 문화적으로 협력목회는 정말로 힘들다 ( )

9.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주고, 부르듯이,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표명하면서 돌보고 있습니까?

가.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 개인 성도별 맞춤 양육은 불가능하다

( )

나. 성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알고 있으며 주변관계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 )

다. 개별 방문이나 목회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돌보고 있다

( )

10. 목자는 병에 걸렸거나 아픈 양을 고치고,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현대적 목회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 스트레스나 상처를 깊이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

나. 치유사역의 특별한 은사나 방법은 없으며,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대처한다 ( )

다. 목회상담을 배우거나 특별한 세미나 등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 )

11.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험산준령을 넘는다고 하였는데, 현재 귀하는 목회 사역에서 이런 부분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 의견차이로 갈라선 성도들을 위로하고 화합방안을 제시하는 편이다

( )

나. 여러 차례 노력하였지만, 끝내 갈라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 )

다. 목회자의 목회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성도들까지도 이름을 부르며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고 있으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다

( )

12. 목자는 양들과 함께 먹고, 들판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였는데, 현재 목회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 내게 주어진 양이라고 생각되는 분들과는 대화하고 함께 결정하는 편이다 ( )

나.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과 미성숙한 부분들도 다 공개하고 있다

( )

다. 성도들의 열매와 업적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그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해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다 ( )

■ 설문의 분포도 조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구분 남 ( ) 여 ( )

2. 연령별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3. 지역별 서울 ( ) 경기 ( ) 충청( ) 강원( ) 호남권 ( ) 경상도 ( )

4. 사역기간별 1-5년( ) 5-10년( ) 10-20년( ) 20-30년( ) 30년 이상( )

5. 교회규모별 50명 이하( ) 50-100명( ) 100-200명( ) 200-300명( ) 300명-500명(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자료2. 설문조사 문항 2.

목양적 지도력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

다음의 항목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양적 리더십에서 핵심요소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일교회 목회사역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1부, 12 질문, 2부 15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것이다. 해당사항에 표를 해 주세요.

I. 다음은 목양적 리더십이 예일교회의 목회 30년에 반영된 부분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독교 신앙생활의 동기에 관한 질문:

귀하는 처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가. 우연한 기회에 자발적으로 찾아 나옴

나. 기독교에 관계된 학교생활에서 권유를 받음

다.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들의 간청으로

라. 교회의 전도 잔치를 통해서

마.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2. 교회와의 관련성을 맺게 되는 부분:

예일교회를 선택하게 된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 담임목사의 설교와 영향력

나. 교회가 자택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다. 가족이 다니고 있으므로

라. 교회의 규모와 시설이 좋아서

마. 교회 및 담임목사에 대한 주변의 평이 좋아서

3. 목양적 돌봄에 관한 질문: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회자의 개별적인 배려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 관심과 도움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목회자의 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내가 필요해서 간청하는 경우에만 접촉이 되고 있다

라. 거의 목양적인 돌봄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4. 영적인 자극에 관한 질문:

예일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설교와 양육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도전과 신선한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가. 예, 거의 항상 도전과 영적인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나. 가끔씩 강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 잔잔하게 은은히 감동을 받는 편입니다

라. 매주 별다른 자극은 없어도 말씀이 좋습니다

5. 신앙 인격적인 성장에 관한 부분:

예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모습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가. 예, 저는 매우 달라진 새사람으로 정립 되었습니다

나.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다. 아주 초보적인 신자로 조금 바꾸어졌습니다

라.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마.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퇴보하였습니다

6. 예일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여러 항목을 보시고 1,2,3으로 3가지를 선택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담임목사님의 설교

2) 심방

3) 성경공부

4) 담임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5) 역동적인 예배

6) 열정적인 선교

7) 성도들 사이의 친교와 교제

8) 기도와 중보기도 사역 와 양육

9) 사모님의 헌신

10) 새벽기도

11) 교회시설

12) 새신자 양육과 관리 13) 사회봉사와 구제

위 항목 중에서 제 1 순위로 꼽는 것은?

제 2순위로 꼽는 것은?

제 3 순위로 꼽는 것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앙경력을 밝혀주시면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 나이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이상)

둘째, 예일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하신 기간은? 약 ( )년

셋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직분과 봉사하는 분야는?

( )

넷째, 귀하의 성별은? (남, 여)

다섯째, 일주일에 교회에 관련된 각종 예배, 목장, 회의 등 몇 번이나 참여하십니까? ( )회

II. 다음은 목양적 리더십에 관련된 세부적인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30년간의 교회역사에 반영된 목회적 영향력에 관해서 특성과 변화를 연구하려고 설문조사하는 것입니다. 담임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이해하시고, 귀하가 느끼는 바를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담임목사님은 개인별로 자상한 배려와 관심을 쏟는다 ( )
2. 목사님은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여 준다 ( )
3. 목사님은 내가 교회봉사에 충성하도록 고취시켜준다 ( )
4. 목사님은 전문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지도해 나간다 ( )
5. 목사님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
6. 예일교회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각부서와 조직이 협조

적이다 ( )

7. 예일교회는 새가족 양육 과정이 잘 준비되어있고 시행되고 있다

( )

8. 예일교회는 예배공동체로서 년 중 마스터 플랜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 )

9. 예일교회는 지역사회와 교회 밖 봉사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 )

10. 예일교회는 구제사역에서도 성도들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 )

11. 예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높은 편이다( )

12. 예일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13. 예일교회의 전도와 선교사역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

14. 예일교회의 성도들은 본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

15. 예일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용도에 맞게 잘 운영된 다 ( )

참고문헌 목록

1. 외국 서적 및 논문

Ambrose. *The Fathers of the Church*, tr. Roy J. Deferrari.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3.

Bailey, Kenneth E. "The Shepherd Poems of John 10: Their Culture and Style." *Near East School of Theology Theological Review* 14 (1993):3-21.

Banks, Robert J. *Reviewing Leadership*: A Christian Evaluation of Current Approaches. Grand Rapids: Baker, 2005.

Barnes, Albert. *The Way of Salvation*, "A Sermon Delivered at Morris Town, New Jersey, February 8, 1829." In *The Presbyterian Enterprise*, ed. Maurice W. Armstrong, Lefferts A. Loestcher, and Charles A. Anderson. Philadelphia: 1955.

Bass, B. M.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ew York: Free Press, 1985.

_____.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 (Winter, 1990): 22.

Beeke, Joel R. & J. Stephan Yulle. "Biographical Preface, William Perkins, the Father of Puritanism," In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4.

Best, Ernst. *Following Jesus. Discipleship in the Gospel of Mark.* Sheffield: The University of Sheffield, 1981.

Beutler, Johannes & Robert T. Fortna, eds. *The Shepherd Discourse of John 10 and Its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Bernstein, Steven M. & Anthony F. Smith. "The Puzzles of Leadership." In *The The Leader of the Future: New Visions, Strategies and Practices for the Next Era.* ed. Frances Hesselbein and Marshall Goldsmith.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Blackaby, Henry T. & Richard. *Spiritual Leadership*; 「영적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2.

Blair, William & B. Hunt.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 which followe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김태곤 역,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_____.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The Korean Mission Field* (May

1907).

Blomberg, Craig L. *Jesus and the Gospels.*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예수와 복음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Brown, Arthur Judson. *The Master of the Far Eas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Brown, Peter. *The Rise of Western Christendom: Triumph and Diversity 200-1000 AD.* Chichester: John Wiley & Sons, 2003, revised 2013.

Burns, J. M. *Leadership.* N.Y.: Harper & Row, 1978.

Calhoun, David Bays. *Princeton Seminary,* vol. 2, The Majestic Testimony, 1869-192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6.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ord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9.

Carroll, Jackson W. *God's Potters: Pastoral Leadership and the Shaping of Congrega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6.

Carwardine, Richard. *Trans Atlantic Revivalism: Popular Evangelicalism in Britain and America, 1790-1865.* Westport: Greenwood Press, 1978.

Chapman, Garry. *The Five Love Languages.* Chicago: Moody Press, 1995.; 장동숙 역,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Chemers, Martin M. *An Integrative Theory of Leadership*.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7.

Clark, Allen D.「한국교회사」. 심재원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68.

Conn, Harvie M. *Evangelism: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1992.

Cooper, James and Barry Posner. *Christian Leadership Challenge*. Seoul: Timothy Publishing Co., 2009.

Couch, Mal. ed., 문석호 역,「포스트모던 시대 속의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신앙과 지성, 2001.

D'Ambrosio, Marcellino. *When the Church Was Young: Voices of the Early Church Fathers*. Cincinnati: Franciscan Media, 2014.

Durant, Will. *Story of Philosophy: The Lives and Opinions of the World's Greatest Philosophers*. New York: Simon & Schuster, Retrieved 2013.

Edwards, Jonathan. *Watchman for Souls*.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_____. *The Religious Affection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746; Reprint edition, 2013.

Evans, M. G. "The Effect of Supervisory Behavior on the Path-Goal Relationship."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5 (1970): 277-298.

Fiedler, F. E. *A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 McGraw-Hill, 1967.

Field, Taylor. *Up side Down Leadership.* 서울: 아가페, 2013.

Frame, John. *Cornelius Van Til: An Analysis of His Thought.* Phillipsburg: P&R, 1995.

_____.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문석호 역, 「기독교적 神지식과 변증학: 신학을 위한 철학적 지식론의 해명과 변증학의 방법론에 관하여」. 서울: 은성, 1993.

_____. *No Other God: A Response to Open Theism.*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2001.

_____.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0; 김진운 역, 「성경론」.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2014.

_____.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Belief.* Phillipsburg: Presbyterian & Reformed, 2013; 김용준 역, 「조직신학개론」.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2011.

Frost, Michael and Alan Hirs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한국IVP, 2009.

Gibbs, Eddie. *Leadership Next.* 서울: 쿰란 출판사, 2005.

Guder, Darrell L.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Guinness, Os. *Calling* ; 「소명」. 서울: 한국 IVP, 2006.

Haggai, John E. *Be the Leader.* 서울: 보이스사, 1990.

Hankins, Barry. *The Second Great Awakening and the Trenscendentalists.* Westport: Greenwood Press, 2004.

Hart, D. G. *Calvinism: A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3.

Haugk, Kenneth C. & William J. McKay. *Christian Caregiving: A Way of Life : Leader's Guide.* Minneapolis: Augsburg, 1994.

Hoekema, Anthony A. *The Four Major Cults: Christian Science, Jehovah's Witnesses, Mormonism, Seventh-day Adventism.* Grand Rapids: Eerdmans, 1995.

Hill, Jonathan.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2011.

House, R. J. and T. R. Mitchell.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Contemporary Business,* 3 (Fall, 1974): 81-98.

_____. "A Path-Goal Theory of Leader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6 (1971): 321-339.

Laniak, Timothy S. *Shepherds After My Own Heart.*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_____. *While Shepherds Watch Their Flocks: Rediscovering Biblical Leadership.* Matthews:

Shepherd Leader Publications, 2007; 김재성 역, 「양을 돌보는 참목자」. 용인: 킹덤북스, 2013.

Loetscher, Lefferts A. *The Broadening Chu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Lloyd-Jones, D. Martyn and Bryan Chapell.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2012.

MacCulloch, Diarmaid. *The Reformation: History.* New York: Penguin, 2003.

MacDonald, Gordon.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서울: 한국 IVP, 2002.

_____. *Building Below the Waterline.* 서울: 한국 IVP, 2013.

Marty, Martin. *The Christian World: A Global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2008.

Miner, Paul S. "The Original Functions of John 2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2 (1983):85-98.

MacArthur, John F. & Master's Seminary Faculty. *Preaching: How to Preach Biblically.* Nashville: Thomas Nelson, 2005.

_____. *Pastoral Ministry: How to Shepherd Biblically.* Nashville: Thomas Nelson, 2005.

Marsden, George M. *The Evangelical Mind and the New School Presbyterian*

Exper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Maxwell, John. *The 21 Most Powerful Minutes in a Leader's Day.*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_____. *Leadership Gold.* 서울: 다산, 2009.

Moffett, Samuel A. "Fifty Years of Missionary Life in Korea." In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 June 30-July 3, 1934 (Seoul: 1934).

_____.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Mott, John R.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Address and Reports of John R. Mott.* New York: Associated Press, 1946.

Murray, John.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6. v.1; 「조직신학」.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8.

Murray, Iain H. *Revival and Revivalism.*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4.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Reprint edition 2001.

Northouse, Peter G.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Thosand Oaks: Sage, 2013, 6th Edition.

Perkins, William.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London: 1631.

Robinson, Bill. *Incarnate Leadership.* 서울: 기독교 성공출판사, 2010.

Stogdill, R. M. & Bernard M. Bass,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Revised and Expanded.* Macmillan: 1982.

Stout, Harry S. *The Divine Dramatist: George Whitefield and the Rise of Modern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91.

Spurgeon, Charles H. *Lectures to My Stud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54;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Taylor, N. W. *Lectures On The Moral Government of God.* New York: 1859; Ulan Press, 2012.

Trinterud, Leonard. *The Forming of an American Tradition: The Re-examination of Colonial Presbyterianism.*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9.

The Wall Street Journal. "Europe's Empty Churches Go on Sale." January 3, 2015.

Van Til, C. *Common Grace and the Gospel.* Phillipsburg: P&R, 1972.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1959.

Watson, David. *The Discipleship.* 「제자도」. 서울: 두란노서원, 2004.

Warfield, B. B.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6.

Wartkins, C. S. "Sin, Penance and Purgatory in Anglo-Norman realm: the Evidence

of Visions and Ghost stories." *Past and Present* 175 (2003):3-33.

Wells, David F. *About All Earthly Powers: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2005.

Wenham, David & Steve Walton. *The Gospels and Acts.*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2013.

Witmer, Timothy Z. *The Shepherd Leader: Achieving Effective Shepherding in Your Church.*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2010.

Yukl, Gary A. *Leadership in Organiz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8.

Zachary, Rick. *The Master of Relationships.* 서울: 12 사도출판사, 2007.

2. 한국어 단행본 저서

강승삼. 편집, 「한국 선교의 미래와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6.

「고려 (반고소) 25년사」. 고려 (반고소) 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경향문화사, 2002.

길선주. 「영계 길선주 목사 저작집」제 1권. 서울: 기독교서회, 1968.

김덕수.「리더십 다이아몬드」. 서울: 두란노, 2009.

김린서.「영계 선생 소전」. 저작 전집 제 5권. 서울: 신망애사, 1951.

______.「한국교회 순교사와 그 설교집」. 부산: 신앙생활사, 1962.

김병삼.「명품 리더십」. 서울: 프리셉트, 2009.

김요나.「일사각오」. 서울: 주성, 1987.

김재성.「무디, 오 놀라운 복음전도자」. 용인: 킹덤북스, 2013.

김충남.「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생애」. 서울: 백합출판사, 1971.

김상복.「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엠마오 출판사, 1987.

남영환.「한국 기독교 교단사: 고신 교단사를 중심으로」. 서울: 영문, 1995.

명성훈.「리더십 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문석호.「영적 지도자 : 영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서울: 신앙과 지성, 2000.

______.「현대신학의 이해: 철학과 신학과의 관계를 통해본 현대신학의 흐름과 그 내용」. 서울: 솔로몬, 2000.

민경배.「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7.

______.「순교자 주기철 목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______.「한국기독교교회사」.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2.

박용규.「평양 산정현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______. 「평양대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박현정. 「하얀 불꽃: 손양원 목사 이야기」. 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1.

백기복. 「리더십 리뷰」. 서울: 창민사, 2005.

손동희.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서울: 아가페북스, 1994.

손양원. 「사랑의 순교자, 손양원 목사 옥중목회」. 서울: 보이스사, 2000.

숭실대학교 기독교문화 연구소. 「한국교회 성장 둔화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2.

신중식 외 7인.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안용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순교일대기」. 서울: 신망애, 1949.

______.「태양신과 싸운 이들」. 서울: 세종문화사, 1972.

유오덕, 강은희. 「크리스천 명품 리더십」.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합회, 2013.

유성은. 「목회자의 리더십과 시간관리」. 서울: 평단출판사, 2004.

유해석.「높여주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이상규. 최수경 편집. 「한상동 목사: 그의 생애와 사상」. 부산: 글마당, 2000.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한국복음문서협회, 1983.

조경현, 「초기 한국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그리심, 2011.

조성종. 「목회자 리더십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8.

차종순. 「애양원과 사랑의 성자: 손양원」. 서울: 홍성사, 2008.

한금석. 「교회성장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한상동. "옥중기." 「파수군」 29 (1953년 6월호).

한홍.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4.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고신 교단 50년사 총회역사 편찬위원회, 2002.

_____.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부산: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부, 1996.

홍영기. 「한국의 교회 개척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3.

3. 한국어 논문

김양선. "신사참배 강요와 박해." 김승태 편, 「한국 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1.

김태윤. "반고소와 석원태 목사에 대한 나의 소고." 「고려신학」 11 (2004): 106-107.

김정일. "해방 후 재건교회의 탄생 배경 연구: 출옥성도 김린희, 최덕지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46 (2015): 178-205.

김재성. "한국 개혁주의 신앙의 형성과 본질 탐구." 「국제신학」 17 (2015): 9-44.

김홍만. "존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신학적 재평가." 「개혁주의 선교신학」 8 (2014):370-391.

문석호. "현대 기독교를 향한 과제와 의미: 신앙고백과 교리." 「교육대학원 논총」통권 7권(2006년 4월): 7-24.

박윤선. "주일 지키는 법에 대하여." 「파수군」 104호 (1960년 11월호).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 13권 3집 (1976년 가을호).

석원태. "고려파가 서 있는 역사적 입장과 소송건." 「고려신학」 제 11집 (2004):13-23.

손봉호. "기윤실 운동은 실패했다." 2010년 2월 22일, 기윤실 총회 강연.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5315&.

심민수. "교회 리더십 승계의 실행전략," 「복음과 실천신학」 21 (2010):246-83.

양문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석원태 목사." 「우성 석원태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문집」. 서울: 경향문화사, 2004.

어춘수. "주기철, 십자가를 지고 간 순교자."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년」. 서울: 동연, 2015.

이만열. "신사참배와 한국교회." 「고신교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 용인: 미래교회포럼, 2014.

이명구. "표절 · 세습 성 돈에 함몰된 합동 교회들,"「뉴스엔조이」 2013년 12월 7 일자. www.newsnjoys.or.kr/news/ articleView.html? idxno=194310.

이원설, 문영식. "21세기 목회환경 변화의 주된 특성."「목회와 신학」 제 67권 (1995년 1월호).

이호영. "말씀 중심의 개신교 신앙, 무엇이 문제인가?"「기독교사상」 48 (2004):284-94.

이한수. "한국교회의 성장정체와 그 윤리적 대안."「신학지남」 256호 (1998): 82.

정일웅.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본 원인과 대안."「목회와 신학」 2007년 2월호.

천환. "나의 탯줄, 나의 영원한 스승이신 목사님."「우성 석원태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문집」.

최영기.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2007년 11월호.

한상동. "옥중기."「파수군」 29 (1953년 6월호).

4. 학위논문

고성진. "훈육대장의 변환적 리더십이 생도들의 학습동기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

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권상술. "상사의 변형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태도 및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김정화. "스마트폰이 가족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년.

박기윤. "교육목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서정하. "한국 기독교 목회자의 리더십 행위가 성도들의 조직시민행동과 정통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양기성. "목회자의 리더십 유형이 목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이금석. "평양신학교 설립과 미국 청교도 신학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용택. "목회자의 리더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Lee, Jong Hyeong. "Samuel Austin Moffett: His Life and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890-1936." (Ph.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3

천 환 목사 약력(Vita)

천환 목사는 1953년 7월 24일생으로 인천의 남동구 방축로 486에 소재하고 있는 예일교회 담임목사로서 고려신학교 대학부와 고려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후 2011년부터 미국 고든콘웰 신학대학원에서 Dr. David A. CURRIE 와 Dr. Suk Ho Moon과 Dr. Timothy Laniak 에게서 목회 지도력(Pastoral skill)에 대해 2016년까지 연구했습니다(expected). 그는 1984년도 예일교회를 개척하여 2016년 현재 (32년간)까지 한 교회를 목양하고 있으며 2년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총회장을 지내는 동안에 2015년에 고신과 고려 교단이 40년 만에 통합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 모슬렘을 위한 국제선교단체인 FIM 선교회에 이사장직과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사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